농업·농촌경제동향

2001 가을

농업관측센터 편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로 나누어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전망/관측")

작성자: 전망팀(김경덕/서진교/이병훈/송우진)

연락처: 3299-4240 / 팩스: 965-4395

목 차

<요 약>
Ⅰ. 국제경제 동향 1
1. 경제성장 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4
Ⅱ. 세계농업 및 농정 동향 6
1. 세계농업과 농정 6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16
3. 국제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 20
Ⅲ. 국내경제 동향 27
1. 거시지표 27
2. 물가 32
3. 소비 37
4. 고용 39
Ⅳ. 농촌경제 동향 40
1. 농촌물가 40
2. 농가교역조건 43
3. 주요품목의 농업소득 44
4. 농업인력 45
5. 농산물 수출입 46
Ⅴ.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52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52
2. 채소류 57
3. 과일류 71
4. 과채 83
5. 축산 83

Ⅵ. 특별주제 ····· 95
○ 최근 WTO 농업협상 의제별 논의동향 ····· 95
○ 중고농기계의 유통 현황과 전망 ····· 102
○ 2000년 농가구, 농가인구 동향 ····· 102
부 록 ····· 108
○ 2001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 108

<요 약>

Ⅰ. 국제경제 동향

○ 2001년도 전반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부진과 일본 경제의 계속된 침체, 그리고 유로지역의 성장둔화 여파가 아시아 및 남미로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의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최종 발표되었으며, 9.11 테러사태로 증시의 약세현상과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은 투자 및 수출감소로 0%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IMF 및 WEFA는 200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3%, 1.5%로 하향 전망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고실업 등으로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일본은행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0.15% 인하하는 등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IMF도 2001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당초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해 마이너스 성장(△0.5%)으로 전망.

○ 유로지역 경제는 독일 경제의 부진 및 해외여건의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준에 그침.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지역의 2001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에서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2001년 세계 교역량은 당초 전망보다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임.

○ 2001년 1/4분기까지 강한 달러화로 대변되던 세계 환율은 2/4분기부터 미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음.

○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전망에 따른 원유수요의 감소로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9.11 미국 테러사태 직후 수급불안 예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직 상승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3일 만인 9월14일 이후 하락세로 10월 22일 현재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4.7% 하락한 배럴당 19.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규모와 러시아 및 노르웨이의 산유량 결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감소 예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 일본 치바현에서 지난 9월 광우병이 발생하였음이 영국 수의연구소에의해 최종 판정되었음. 동아시아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일본은 농림수산성에 광우병 대책본부를, 치바현에 광우병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광우병의 진단 및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음.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 27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수입관세를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했음. 이는 관세 잠정조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WTO 협정에서 인정된 사항으로 특별세이프가드(SSG)와 같은 제도로서 1995, 1996, 1997년에 이어 4번째 발동한 조치임.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지육이 1kg당 약 100엔이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이 약 135엔이 증가한 681.08엔이 됨.

○ 일본에서 무세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무세미는 도정단계에서 미리 겨를 모두 제거하여 쌀을 씻지 않고 취사할 수 있게 한 쌀로서 5kg 포장에 보통 쌀보다 100~200엔 정도 높게 거래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음. 무세미는 취사수고를 절약하고, 생활배수를 줄여 환경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짐. 또한 소비자는 쌀을 씻을 때 유실되는 쌀의 맛이 남아 있어 보통쌀에 비해 맛이 좋다는 반응을 보임.

○ 중국은 전국 800여개 현의 6만 7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1.56억ha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감소한 반면 면화, 유지, 당료, 담배, 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1.7%

감소하였는데 이중 곡물재배 면적은 2.5% 감소하였음. 반면 채소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전년에 비해 각각 7.8%, 8.6% 증가하였음.

○ 1998년 말 독일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일에는 9,200명의 유기농 생산자가 있으며, 재배면적은 41만 6,500ha로 나타남. 2000년 초에는 7,464개의 농장들이 9개의 생산자조직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고, 이들이 관리하는 경지면적은 38만 3752ha 였음. 독일의 유기농산물 마케팅 경로는 자연식품점포(전체물량의 1/3)를 비롯하여 슈퍼마켓, 직판, 건강식품상점이나 빵집 등으로 다양함.

○ 프랑스의 유기농 매출은 연 20~30%의 증가율을 보여, 1998년에는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프랑스의 유기농시장은 영국과 독일에 비교하면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1997년 프랑스 정부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산업에 1,54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함. 프랑스 농림어업부는 10년 후 유기농 생산자 수는 4,000명에서 12,000명이, 생산면적은 100만ha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USDA는 2002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35억 달러 증가한 570억 달러로 7% 증가할 것이라고 2001년 8월말 발표했음. 또한 2002년도 수입은 390억 달러로 전년보다 5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음.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옥수수, 밀, 콩, 면화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고, 이외에 콩, 대두유, 가금육, 과일, 채소, 견과류 등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 금년 12월 또는 내년 초에 정식으로 WTO에 가입할 예정임. 중국은 가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8월 1일 128개 품목에 대한 가격지지 철폐를 발표. 중국은 향후 관세인하 등 농업보호

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가능한 국내농업지원을 유지하면서 WTO 가입에 관련된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해 나갈 전망임.

○ WTO는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를 신설하였음. 중국의 WTO 가입후 12년간 경과조치로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함. WTO 규정상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는 인정되지 않지만, 이번 새로운 조치는 WTO 특례에 해당함. 반덤핑 조치도 중국의 WTO 가입후 15년간 중국만을 대상으로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 2001/02년도 세계곡물 생산량은 쌀과 대두가 소폭 감소하고 옥수수와 소맥이 증가할 전망임. 곡물 소비량은 전월보다 80만톤 늘어난 18억 9,610톤으로 전망되고, 전년대비로는 930만톤 늘어난 수준임. 교역량은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6% 증가한 2억 6,855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0.4% 증가, 전년대비 13.1% 감소한 4억 2,067만톤으로 전망됨.

○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3억 9,327만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0.9% 늘어난 4억 484만톤으로 전망됨. 교역량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2억 4,200만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4% 감소한 1억 2,596만톤으로 전망됨.

○ 2001/02년도 소맥 생산량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5억 7,120만톤, 소비량은 5억 9,997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전망임.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4.3% 감소한 1억 3,613만톤이 될 전망임.

○ 옥수수 2001/02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5억 8,385만톤인 반면 소비량은 전년대비 2.2%늘어난 6억 1,643만톤으로, 생산량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1.6%

감소한 1억 2147만톤이 될 전망임.

○ 2001/02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8,067만톤으로, 소비량은 1억 7,994만톤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852만톤으로 전망됨.

Ⅲ. 국내 경제 동향

○ 200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민간소비지출의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특히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전분기 12.7%에서 54.3%로 대폭 상승한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분기 119.8%에서 23.5%로 대폭 하락.

○ 2001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침. 8월 산업생산은 7월에 이어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 2001년 2/4분기 출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에 그침. 8월중 내수출하는 7월 마이너스 증가에서 1.9% 증가로 반전했으나 수출출하는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4분기 재고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전년동기 대비 14.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하였음. 그러나 재고율(재고/출하)은 전월의 89.3%를 정점으로 8월 85.4%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2/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둔화로 74.5%를 기록,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7월에는 71.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8월 평균가동율은 생산둔화 지속으로 73.4%를 기록했으나, 전월에 비해 2.4%p 증가한 수준임.

○ 2001년 2/4분기중 본원통화는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9월중에는 7.2% 증가에 그쳤음. 한편 9월중 총통화(M2) 증가율은 평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했는데, 이는 추경예산 집행 등에 따른 증가요인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감소요인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미연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와 한은의 콜금리 목표 인하 등으로 국고채 유통수익률과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으로 당분간 콜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은 1/4분기중 엔화환율과 밀접히 연동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월 미국 테러사태 파급효과로 엔화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 나갔음. 향후 주식시장의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보일 전망

○ 향후 우리 경제는 미국 테러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최근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2001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4% 대에서 하향 조정해 2%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는 연중 4%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1년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3% 하락함. 9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가 하락한 122.5를 기록하여 전월(△0.4%)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었음.

○ 2001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9%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로는 3.2% 상승하였음.

○ 2001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이 주요국 통화에 대해 상승하여 원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113.7을 기록하였음. 9월 수출물가는 113.6을 기록,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후 오름세로 반전하였음.

○ 한편 2001년 3/4분기 수입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2.0% 하락한 116.4를 기록하였으며, 9월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2/4분기 도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4% 감소하였음. 8월 도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차량용 연료 판매호조로 전월보다 1.0%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3.5% 증가하였음.

○ 2/4분기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분기 마이너스 증가율(△8.1%)에서 5.0% 돌아섰으며, 월별로도 8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휴대용 전화기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음.

○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247만 6천원 이었으며, 소비지출은 8.2% 늘어난 166만 8천원으로 나타났음.

○ 2001년 9월 경제활동인구는 2,248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 참여율은 61.5%로 전월보다 0.5%p 상승하였음.

○ 9월 취업자는 2,179만 7천명으로 전월보다 27만 3천명(1.3%)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0%), 광공업(2.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 전산업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년동월 대비로는 농림어업(△3.9%)과 제조업(△1.6%) 등에서 감소한 반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6.8%)은 크게 증가함.

○ 2001년 9월 실업자는 68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6만 8천명(9.0%)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도 전월 3.6%에서 3.3%로 0.3%p 하락했음.

Ⅳ. 농촌경제 동향

○ 9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과실과 두류의 하락폭이 커 전년동월대비 1.4% 하락한 11.9를 기록. 축산물은 가축판매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계란가격도 6월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음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9.7% 상승한 142.0을 기록함.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했는데, 이중 보건의료와 교통통신의 상승폭이 컸음. 농업용품은 전년동월대비 16.0% 상승하였음. 이중 가축과 사료의 상승폭이 컸고, 영농광열

비는 하락하였음. 농촌임료금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음.

○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지수는 올해 9월 84.2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로는 3.9% 하락하였음.

○ 9월 농업소득은 고랭지감자,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사과, 노지고추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배, 노지포도, 시설감귤, 대파의 소득은 감소하였음.

○ 9월 농림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234.5만명임.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반면 농가의 농외취업자는 상승세를 이어감.

○ 금년 9월까지 누계 수출량은 농산물이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6.6% 하락하였음. 품목별로는 사과(117.5%), 오이(50.5%), 백합(53.9%), 고추(42.5%)의 수출 증가폭이 컸고, 돼지고기(49.2%), 홍삼(31.2%), 토마토(33.7%)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9월 누계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축산물과 임산물의 수입은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였음. 주요품목의 수입금액은 쇠고기(38.4%), 돼지고기(35.8%), 닭고기(60.7%)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옥수수(2.9%), 밀(8.4%)은 증가하였음. 열대과일의 수입은 포도, 바나나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이 증가하였음.

○ 9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농산물(20.6%)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축산물(56.5%), 임산물(12.9%), 수산물(26.1%)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2.7% 감소하였음.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 3/4분기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로 하락한 품목보다는 상승한 품목이 많았음. 콩(23.0%), 양파(10.8%), 참외(24.2%)의 가격하락 폭이 두드러졌고, 이외에 보리, 고구마, 대파, 오이의 가격도 하락하였음. 반면 고랭지 재배품목과 과일류, 축산물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있었음. 감자(33.2%), 배추(33.0%), 무(65.9%)등의 고랭지 채소와 사과(61.3%), 배(31.3%)등의 과일류, 그리고 한우(30.3%), 성돈(12.4%), 계란(21.2%) 등의 축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품목	단위	2000 3/4	2001 2/2	2001 3/4	전년동기 대비 (%)	전기대비 (%)	비고
일반미	원/80kg	167,867	162,027	160,649	1.4	0.3	전라미
보리	원/70kg	71,680	69,814	69,997	△2.3	0.3	쌀보리
콩	원/70kg	235,788	178,000	181,564	△23.0	2.0	백태
감자	원/20kg	8,445	19,721	11,251	33.2	△43.0	수미
고구마	원/20kg	20,179	20,000	19,379	△4.0	△3.1	
배추	천원/5톤	2,683	2,378	3,569	33.0	50.1	
무	천원/5톤	2,497	2,241	4,143	65.9	84.9	
마늘	원/kg	1,409	1,390	1,663	18.0	19.7	난지형
양파	원/kg	412	283	367	△10.8	29.8	
대파	원/kg	1,144	723	1,079	△5.7	49.2	
건고추	원/600g	4,366	5,204	5,305	21.5	1.9	화건
오이	원/kg	25,957	20,452	23,874	△8.0	16.7	취청
사과	원/15kg	9,820	26,556	29,628	61.3	11.6	
배	원/15kg	24,462	32,913	32,131	31.3	△2.4	신고
수박	원/6kg	3,911	5,030	3,798	△2.9	△24.5	
참외	원/15kg	16,234	35,341	12,301	△24.2	△65.2	
한우	천원/500kg	2,549	2,690	3,321	30.3	23.4	큰수소
성돈	천원/100kg	163	196	184	12.4	△6.5	
돼지고기	원/500g	4,175	4,163	4,505	7.9	8.2	
닭고기	원/kg	3,300	3,322	3,359	1.8	1.1	
계란	원/10개	865	1,041	1,048	21.2	0.7	

I. 국제경제 동향[1)]

1. 경제성장

○ 2001년도 전반기 세계 경제는 미국의 경기부진과 일본 경제의 계속된 침체, 그리고 유로지역의 성장둔화 여파가 아시아 및 남미로 파급되는 가운데 미국 테러사태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에 그친 것으로 최종 발표되었으며, 9.11 테러사태로 증시의 약세현상과 함께 투자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은 투자 및 수출감소로 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IMF 및 WEFA는 2001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3%, 1.5%로 하향 전망하고 있음.

- 2/4분기 산업생산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4% 감소했으며, 2000년 4/4분기에 0.2% 감소한 후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음. 소비자 신뢰지수와 NAPM 제조업지수도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 미연준은 테러사태 이후 경기불안 해소와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3.5%에서 3.0%로 인하한 바 있으며, 10월에도 추가금리인하를 단

---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서진교 부연구위원(jksuh@krei.re.kr),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 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행하여 현재 2.5%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물가하락과 고실업 등으로 장기불황이 계속되고 있음. 일본은행은 미국 테러사태 이후 기준금리를 0.15% 인하하는 등 경제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중이나 경기침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IMF도 2001년 일본의 경제성장을 당초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해 마이너스 성장(△0.5%)으로 전망.

- 9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하였고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8% 감소하여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유로지역 경제는 독일 경제의 부진 및 해외여건의 악화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2001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1.7% 증가한 수준에 그침.

- 유로지역경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산업생산이 7월 전년동월 대비 1.5% 감소했으며, 8월에도 0.3% 감소하여 유로지역 산업생산의 감소를 주도함.

○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지역내 경기둔화, 세계경기 침체,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 8월에 이어 9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 현재 3.7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지역의 2001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1.8% 수준으로 전망.

○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경제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경제에서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들의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 미국 경제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중남미 경제는 아르헨티나의 대외부채 디폴트선언 가능성과 통화의 평가절하에 대한 불안감, 브라질의 정치불안(내년에 대통령선거 예정)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가 감소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성장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작년에 큰 폭의 경제성장을 한 러시아는 수출감소와 루블화 가치 상승으로 1/4분기 성장이 전년동기 대비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1년 상반기 물가가 12.5% 상승해 경제불안의 중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향후 주력 수출품목인 원유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 전망도 달라질 것으로 보임.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GDP 기준)

단위: %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WEFA	IMF
세계	2.4	3.1	4.2	2.0	2.6
선진국	2.7	2.9	3.7	1.5	1.3
미국	4.4	4.2	5.0	1.7	1.3
일본	△1.1	0.8	1.5	△0.5	△0.5
EU	2.8	2.5	3.4	2.1	1.8
개도국	1.5	4.1	6.0	4.0	4.3
태평양연안국[1]	△5.0	6.2	7.2	3.0	-
한국	△6.7	10.9	8.8	4.0	2.5
중국	7.8	7.1	8.1	7.4	7.5
중남미[2]	1.2	△1.0	3.3	2.0	-
동유럽	1.9	2.2	3.8	3.7	3.5
구소련연방[3]	△3.2	4.6	8.0	4.7	4.0

주: 1)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대만, 태국이 포함됨. 2) 멕시코가 제외됨. 3) IMF는 러시아를 의미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Ⅲ, 200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 2001,

2. 교역량, 환율 및 원유가격

2.1. 교역량

○ 2001년 세계 교역량은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더욱 감소될 것으로 보임.

- WEFA는 3/4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01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2000년 12.7%의 1/3 수준인 3.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1차 하향 조정된 5.9%에서 다시 추가로 2.4%를 하향 조정한 것임.

세계 교역량 증가율 및 환율 동향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교역량	전체	10.5	4.4	4.9	12.7	3.5
	원자재	6.3	1.5	3.1	8.3	3.7
	연료·에너지	4.0	0.5	3.8	9.8	3.7
	공산품	12.0	5.3	5.2	13.6	3.4
환율	엔/달러	121.0	130.9	113.9	107.8	122.7
	마르크/달러	1.73	1.76	1.84	2.12	2.19
	유로[1]	-	-	1.07	0.92	0.89

주: 1) 유로 1단위당 달러로 표시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Ⅲ, 2001.
IMF, *World Economic Outllook*, Oct. 2001.

○ 세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는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인 수요감소를 가져와 세계 교역을 보다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2.2. 환율

○ 2001년 1/4분기까지 강한 달러화로 대변되던 세계 환율은 2/4분기부터 미 달러화가 혼조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미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인 반면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음.

- 엔화는 미국 테러사태에 따른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를 배경으로 한 미증시의 급락으로 미달러화에 대해 일시 강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외환당국이 엔화강세 억제를 위한 개입의지를 밝히면서 약세로 반전되었음. 특히 일본 경기침체의 가속화 및 이에 따른 일본 증시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향후 엔화의 약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유로화는 미국의 산업생산 및 설비가동율 저하 등 미국의 경기지표가 부진하고 테러사태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미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크다는 예상에 따라 강세를 보였으며, 당분간 유로화의 강세는 지속될 전망임.

2.3. 원유가격

○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전망에 따른 원유수요의 감소로 전반적인 하향추세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9.11 미국 테러사태 직후 수급불안 예상으로 일시적으로 수직 상승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3일 만인 9월14일 이후 하락세로 반전해 10월 22일 현재 두바이(Dubai)유 현물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4.7% 하락한 배럴당 19.9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규모와 러시아 및 노르웨이의 산유량 결정 등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감소 예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2001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월동수요로 일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원유 수요감소로 전반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WEFA는 2001년 연간 국제유가는 지난해 대비 약 6% 하락한 배럴당 26달러(브렌트산 중질유 기준)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

원유 가격 동향 및 전망

단위: 달러/배럴

	2000년	2001.7	2001.8	2001.9	2001.10[1]	2001[2]
WTI 유가	26.75	26.46	27.43	26.21	22.28	26.57 (△5.8)
브렌트 유가	23.54	25.08	25.82	25.98	21.47	
두바이 유가	20.52	23.50	24.52	24.16	19.90	

주: ( )는 전년대비 증감율,
1) 2001년 10월 22일까지의 평균가격,
2) 2001년 전망치는 두바이, 브렌트, 알래스카산 평균유가,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2001, 에너지경제연구원.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Ⅰ. 세계 농업과 농정

1.1. 일본 광우병 발생

○ 일본 치바현(千葉縣) 시로이시(白井市)에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젖소가 지난 9월 22일 영국 수의연구소의 검사결과 광우병으로 최종 판정되었음. 광우병은 유럽에서는 1986년 이후 발병이 계속되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일본 정부는 9월 10일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소를 발견한 이후 감염원의 확인을 비롯하여, 확산 방지, 소비자 안전대책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
(http：//www.maff.go.jp/work/press0109919).

○ 일본은 9월 10일 농림수산성에 '광우병대책본부'를, 치바현에 '광우병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였으며, 광우병의 진단 및 방역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위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우병에 관한 기술검토회'에 추가하여, '광우병방역위원회'를 설치하였음.

- 광우병 발생농장의 사육소에 대해 격리를 실시하고, 즉각 해당 소의 도입 경로, 급여된 사료의 종류 및 급여상황 등 발병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였음.

- 광우병의 잠복기간(2~8년)을 고려하여, 해당소의 원도입농장 등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모두 격리키로 함.

○ 농림수산성은 감염원 파악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1953년)에 근거, 전국의 사료공장 중에서 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료를 제조하는 배합사료공장을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 조사항목은 ①육골분의 구입처와 구입량, ②육골분의 혼합방지대책의 실시상황, ③샘플의 수집과 분석 등임.

○ 후생성은 소비자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식육 처분되는 단계에서 생후 30개월 이상의 전체 소에 대하여 광우병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농가들에게 검사가 끝날 때까지 출하 연기를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일부 지자체가 학교 급식에 쇠고기와 우유 사용을 중지하는 등 소문에 의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농림성은 소문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식품산업, 유통업자 등에게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음.

○ 농협도 소비자와 거래처 등에서의 안전성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수의사무국(OIE) 견해를 근거로 "광우병은 감염된 소의 뇌, 척수, 눈 등 특수 부위를 먹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라도 쇠고기, 우유, 유제품은 먹어도 안전하다"고 설명하면서 불안감 불식에 노력.

1.2. 일본 돈육 수입제한조치 발동

○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 27일 돈육과 그 가공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관세잠정조치법'에 근거, 수입관세를 8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인상하는 긴급조치를 발동한다고 발표.

- 발동후 기준수입가격은 지육은 1kg당 약 100엔이 증가한 510.03엔, 부분육은 약 135엔이 증가한 681.08엔이 됨.

○ 이번 긴급조치는 WTO 협정에서 인정된 것으로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때에 자동적으로 관세가 인상되는 특별세이프가드(SSG)와 같은 제도로 일본에서는 1995년, 96년, 97년에 이어 4년만에 네번째 발동되는 셈임.

○ 돈육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분기별 총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 수입량의 119%를 초과한 경우에 발동대상이 되는데 지난 4~6월간 수입량이 18만 9,955톤으로 발동기준량(18만 3,850톤)을 6,105톤이나 상회하였음.

○ 수입제한이 소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농림수산성은 가을 이후 돈육 출하가 늘어나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

1.3. 일본 무세미(無洗米) 판매량 증가

○ 무세미(無洗米)는 도정단계에서 미리 겨(糠)를 모두 제거하여 쌀을 씻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취사할 수 있도록 한 쌀임. 쌀을 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사 수고를 절약하고, 생활배수로서 하천이나 바다의 수질오염의 원인이기도 한 오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

에 환경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절수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되고 있음.

○ 판매자들은 무세미는 보통 쌀을 씻을 때 유실되는 '쌀맛'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통 쌀에 비해 맛이 있다고 하며, 최근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은 보통 쌀과 비교해서 비싼 편임.

○ 무세미는 보통 쌀보다 5kg 포장에 100~200엔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쌀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근 슈퍼와 생협의 쌀 매장에서 가장 호조를 보이고 있음. 무세미 판매가 확대된 것을 전체 판매량이 증가한 요인으로 드는 경우가 많음.

○ 무세미를 가장 빨리 보급한 수도권 생협에서는 판매하는 쌀의 절반이 무세미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서권의 생협에서도 90%가 무세미인 교토 생협을 비롯하여, 30% 미만의 오사카 이즈미 시민생협 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무세미 효과 (1998년 시산치)

효과	시 산 치
환경부하 경감효과	연간 84~112만톤의 무기질 인 배출 방지(경감)
절수효과	연간 약 42만명분의 생활용수에 상당하는 물 절수

주 : 시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무세미의 유통량은 1998년 현재 전체 쌀 유통량(929만톤)의 2%로 한다.
(2) 쌀에는 중량비로 3~4%정도의 겨(糠)가 부착되어 있다.
(3) 겨(糠) 100g에는 무기질 인이 1,500mg이 포함되어 있다.
(4) 쌀 4홉을 취사할 때 쌀 씻는 물이 3.5ℓ를 필요로 한다.
(5) 생활용수는 1인 1일당 350ℓ, 1년은 365일로 한다.

1.4. 2001년 상반기 중국의 농산물 생산 동향

○ 전국 800여개 현(縣)의 6만 7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전국의 농작물 총 파종면적은 1.56억ha에 달하여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품종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면화, 유지, 당료, 담배, 채소 등의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음.

○ 2001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07억ha로, 2000년에 비하여 1.7%가 감소하였고 이 가운데 곡물 재배면적은 2.5%가 감소하였는데, 밀은 4.9%, 벼는 1.9%, 옥수수는 0.9% 감소하였으나, 수수와 조는 6.8%와 0.2%가 증가함.

○ 채소와 과채류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최근 중국인의 생활수준이 개선되면서 채소와 과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채소와 과채류의 생산증가를 촉진시킴. 2001년 채소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은 7.8%와 8.6%가 증가.

○ 2001년 하곡 생산량은 10,188만톤으로 전년대비 4.6%인 약 491만톤이 감소. 이 가운데 산동성(山東省)은 205만톤, 사천성(四川省)은 88만톤, 하북성(河北省)은 79만톤, 강소성(江蘇省)은 78만톤이 감소하였고 하곡 생산량은 2000년도에 1,170만톤, 약 10%가 감소한데 이어, 2001년도에도 감소함으로써 1991년 이후 최저 수준

○ 조생종 벼 재배면적은 2000년에 약 1,000만무(66.7만ha)가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약 900만무(60.03만ha)가 감소. 남방 일부지역의 홍수와 사천성(四川省) 지역의 가뭄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조생종 벼 생산량이 크게 감소.

○ 중국은 축산물의 품종과 품질구조에 대한 개선작업을 강화하고,

규모화를 촉진함으로써 축산업의 견실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1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육류 총생산량은 약 3,080만 톤에 달하여 2000년 동기에 비하여 약 3% 증가.

1.5. 독일 유기농업의 성장과 전망

○ 1998년말 독일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일에는 9,200명의 유기농 생산자들이 있으며(1997년보다 12.6%가 증가), 이들이 경작하는 재배면적은 41만 6500ha(1997년 대비 6.9% 증가)에 달함.

○ 2000년 초에는 7,464개의 농장들이 9개의 생산자 조직들 중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관리하는 경지면적은 38만 3752ha 였음. 800개의 가공부문 기업들이 생산자 조직들에 의해 인증을 받은 상태임.

○ 독일에서 유기농산물의 마케팅 경로는 다양화되어 있음. 1999년에 조사된 바로는 1997년의 유기농산물 마케팅을 통한 총수익은 거의 40억 DM(약 20억 Euro)에 달하고 있었음.

○ 경로별로 보면 자연식품 점포가 마케팅 물량의 약 3분의 1 정도를 당당하고 있으며, 슈퍼마켓이 4분의 1, 직판(농장직영 점포 또는 파머스 마켓)이 5분의 1, 건강식품 상점이나 빵집 혹은 정육점이 약 1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음.

1.6. 프랑스 유기농식품의 시장현황과 전망

○ 1998년 유기농 매출 총액은 약 10억 달러에 이르렀음. 지난 수년

간 유기농 식품의 판매는 매년 20%~30%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지금부터 2003년까지의 매출액은 35억 달러(소매 식품 매출 총액의 3%)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프랑스의 유기농 식품 시장은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영국과 독일과 비교하면 아직 발전과정에 있음. 현재 프랑스의 유기농 식품 생산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프랑스는 연간 약 3만 톤을 수입으로 충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강구중.

○ 1997년 12월 프랑스 정부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과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에 약 1,540만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 프랑스는 이를 통해 2010년경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유기농 식품 생산국을 기대하고 있음.

○ 프랑스 농림어법부에 의하면 10년 후 유기농 생산자 수는 4,000명에서 12,000명이 될 것이며, 유기농 생산 면적은 100만ha가 넘고, 식품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유기농 식품 판매는 현재의 0.5%에서 3~4%에 이를 것으로 추정.

1.7. 미국 2002년도 농산물수출 증가전망

○ 2001년 8월말 미국 농업부(USDA)는 2002년(회계년도 기준)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이 전년대비 35억 달러 증가한 570억 달러로 7% 증가할 전망이라고 발표. 2002년도 수출은 지난 1997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난 3년 동안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2002년도 수입은 390억 달러에 달하며, 2001년 전망치 보다 5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수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한 추세를 보일 것 보이며,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수출증가와 함께 미국 농산물 무역흑자는 1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997년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 2002년도 전체 농산물 수출에서 옥수수(14억 달러이상), 밀(7억 달러이상), 콩(4억 달러이상), 면화(2억 달러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농산물가격 상승에 따라서 밀, 옥수수, 콩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편 옥수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다소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캐나다나 EU로의 밀수출은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봄.

○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품목으로는 콩, 대두유, 면화, 가금육, 과일, 채소, 견과류 등임. 가금육 수출은 러시아, 중국, 멕시코로의 판매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2001년 8월 예측치 보다 10만톤 증가한 320만톤으로 수출액으로 환산하면 2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부 장관은 "국내 농업의 수출 의존도는 다른 경제 부문보다 거의 두배 이상이나 높다." 그리고 "미국은 국내 농민들을 위해서 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교역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

1.8. 중국 WTO 가입을 위한 농업협상 경과

○ 중국의 WTO 가입은 11월 9일부터 13일가지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가입의정서를 채택하고, 중국내에서 비준을 거쳐 WTO에 기탁을 하여 30일이 경과하면 WTO 회원국이 됨. 빠르면 금년 12월중에 늦어도 내년 초에 가입이 확실시.

○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금년 8월 1일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128품목에 대해 가격지지를 철폐할 것을 발표.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부문의 가격지지는 계속되지만, 이번 가격지지 철폐는 무역면에서의 덤핑논쟁에서 불리하게 되는 '비시장경제'주의라는 비판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 중국에서 곡물의 과잉생산은 주로 농업보조금의 투입을 비롯해서 화학비료, 살충제, 물의 대량 사용으로 가속화되었음. 최근까지 계속된 이러한 정책은 주요 농산물인 곡물의 증산체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지만, WTO 가입 후는 가격 경쟁력면에서 수입곡물이 늘어날 것으로 봄.

○ 더욱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육생산 및 소비국으로서 최근까지는 국내 수요증가에 따라 영세농가에 의한 생산도 증대하여 자급자족적인 이른바 지역경제체제에서 그 공급이 조달되고 있었으나, 도시화의 물결이 국내 공업생산과 수입 증대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지역내에서의 생산과 소비 균형은 급속히 붕괴되고 있음.

○ 중국은 향후 관세인하 등 농업보호조치를 완화하는 한편, 가능한 한 국내농업지원을 유지하면서 WTO 가입에 관련된 농업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해 간다는 의도임.

○ 중국의 국내 농업분야에서 보조금 지출총액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평균으로 215억 달러(농업총생산액 2,500억 달러의 8.6%에 상당)에 상당할 것으로 봄. 내역은 180억 달러(동 7.2%)가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WTO의 허용대상정책(green box)이고, 나머지 35억 달러(동 1.4%)를 무역을 왜곡하는 WTO의 감축대상 정책(amber box)에 해당됨.

1.9. WTO 대중국 세이프가드 특례조치 창설

○ 중국의 WTO 가입조건을 포함한 다자간 합의문의 골격이 최근 밝혀졌음. 중국은 WTO 가입후 12년간 경과조치로서 중국의 수출품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는 기존 가맹국이 중국의 수출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 국내산업의 손해 등을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WTO 규정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의 새로운 조치는 WTO 특례에 해당됨.

○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현행 WTO 규정에는 특정국을 대상으로 발동할 수 있고, 보복조치는 인정하지 않는 등 조건이 보다 완화된 세이프가드조치임. 2004년 말에 폐지하기로 되어 있지만 중국에 대해서만은 2008년 말까지 발동 가능함. 이 결과, 기존 가맹국은 일반세이프가드, 대중국 특별세이프가드, 섬유세이프가드 등 3가지 수단의 대중국 수입제한조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반덤핑조치'도 가맹후 15년간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발동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덤핑세를 부과할 때, 수출품의 정당한 가격이나 덤핑률은 대상국의 국내가격이나 생산비용을 지표로 하여 산정하지만, 국영·국유 기업의 비율이 높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

주하여 발동측의 재량을 넓혀놓았음.

○ '중국감시기구' 창설은 상품,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각 이사회가 거의 매년,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이나 자유무역룰의 순수상황을 점검, 문제가 있으면 일반이사회가 중국에 개정을 권고하게 됨. 미국, EU, 일본, 캐나다는 2년마다, 4개국을 제외한 무역 상위 20개국은 4년마다 무역정책심사를 받는 현행제도(TPRM)와 비교해서 현저하게 엄격한 편임.

○ 이상과 같이 WTO가 특정국을 차별하는 일련의 '대중국 특별방어조치'를 설정한 것은 기존의 가맹국측이 중국의 경쟁력 향상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기 때문임. 이것을 가장 빨리 의식한 미국이 중국과의 양자간 협상에서 '방어조치'를 취한 결과, 다자간 합의에까지 확대되었던 것임.

2.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2)]

2.1. 세계의 주요곡물 수급 상황

가. 곡물전체(total grain)

○ 2001/0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대두가 소폭 감소하고 옥수수와 소맥이 증가하여 전월 전망치 수준 보다 높을 전망임. 따라서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월 전망대비 0.4%, 전년대비 0.1% 증가한 18억 3,258만톤이 될 전망임.

○ 2001/02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월보다 80만톤 늘어난 18억 9,610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930만톤 늘어난 수준임.

○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교역량도 늘어나 2001/02년도 세계 곡물 교역량은 전월대비 0.2%, 전년대비 1.6% 증가한 2억 6,855만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

○ 기말 곡물재고량은 전월대비 0.4%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로는 13.1% 감소한 4억 2,06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세계 곡물 재고율은 10월 현재 22.2%로 유지될 전망이어서 FAO의 권장 재고율 수준을 크게 벗어날 전망임.

---

2) 이 자료는 미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내용중 수급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농업관측센터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에게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1999/00	2000/2001 (추정)	2001/02(전망치)		변 동 율(%)	
			2001. 9	2001. 10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71.22	1,830.80	1,825.71	1,832.58	0.1	0.4
공 급 량	2,393.68	2,350.90	2,314.38	2,316.72	△1.5	0.1
소 비 량	1,873.58	1,866.76	1,895.30	1,896.06	1.6	0.0
교 역 량	281.81	264.42	267.92	268.55	1.6	0.2
기 말 재 고 량	520.1	484.18	419.08	420.67	△13.1	0.4
기말재고율(%)	27.7	25.9	22.1	22.2		

자료 :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79, OCT 12, 2001.

나. 쌀(rice)

○ 2001/02년도 쌀 생산량은 중국의 생산감소로 전월대비 0.3%, 전년대비 0.6% 감소한 3억 9,32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월대비 0.1%, 전년대비 0.9% 늘어난 4억 484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전체 교역량은 전월수준을 유지, 전년대비로는 0.6% 감소한 2억 4,20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8.4%, 전월대비로는 1.0% 줄어든 1억 2,596만톤으로 전망됨. 전월대비 재고량 변화를 국가별로 볼 때 미국은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타국은 감소할 전망임.

다. 소맥(wheat)

○ 2001/02년도 소맥 생산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아르헨티나, EU의 생산감소로 전월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전년대비로는 1.4% 감소한 5억 7,120만톤 생산이 전망됨. 소비량은 전월대비 0.9% 증가한 5억 9,397만톤으로 전망되어 소비량이 생산량 수준을 훨씬 상회할 전망임.

○ 기말재고량은 전월대비 1.2% 증가할 전망이나 전년대비로는 14.3% 대폭 감소한 1억 3,613만톤이 될 전망임.

라. 옥수수(corn)

○ 2001/02년도 옥수수 생산량은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생산감소로 전년대비 0.4% 감소한 5억 8,385만톤으로 전망됨. 반면, 소비량은 전년대비 2.2%, 전월대비 0.1% 늘어난 6억 1,643만톤으로 생산량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전망이어서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21.6% 감소한 1억 2,147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마. 대두(soybean)

○ 2001/02년도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1억 8,067만톤으로 전망됨. 소비량은 1억 7,994만톤으로 전월대비 1.2% 증가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852만톤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14.6% 감소할 전망이나 기타국의 재고량 증가로 세계 대두 재고량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임.

3.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가. 쌀(rice)

○ 중립종 쌀의 국제가격은 1998년 8월 이후 생산감소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99년 7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톤당 556.66달러를 기록함. 이후 미국, 중국 등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급락하여 2001년에도 계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수출 공급 증가 및 수요정체 등의 혼조세 속에서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

○ 태국산 장립종 쌀 가격은 1999년 10월까지 계속 하락하여 톤당 221.80달러이었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작년 2월에 253.25달러까지 상승하였음. 이후 다시 계속 하락하여 9월 14일 현재 톤당 178.00달러 수준으로 전월대비 2.9% 상승세를 나타냄. 그러나 앞으로 세계 교역량은 줄고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쌀 가격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임.

나. 소맥(wheat)

○ 소맥의 국제가격은 1996년 5월 톤당 218.11달러까지를 기록한 이후 계속 하락하였고 1998년에는 낮은 국제가격의 영향으로 식부면적이 감소하여 생산이 감소하였음.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세계 경기침체 등 수요제약 요인으로 국제 소맥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2000년 8월 소맥 국제가격은 102.92달러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01년 9월 14일 현재 136.69달러로 상승세를 이어감. 이는 전년동월대비 29.4%, 전월대비 4.9%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기말재고량 감소, 소비량 및 교역량의 증가세로 국제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다. 옥수수(corn)

○ 옥수수의 국제가격은 1996년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유지하여 1999년 7월에는 85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음. 2000년 11월 이후 유럽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따른 대체사료 수요증가, 옥수수 재고량 감소 등으로 조금씩 회복하여 2001년 9월 14일 현재 94.09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라. 대두(soybean)

○ 대두 국제가격은 생산량 감소 및 소비량 증가전망에 따라 기말재고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향후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9월 14일 기준 국제 대두가격은 전월대비 5.0% 하락한 톤당 184.09달러 수준으로 1999년 연평균 가격인 185.90달러 수준임.

○ 2001/02년도에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지만 소비량과 교역량 또한 대폭 증가하여 기말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국제 대두가격은 소폭 상승세가 예상됨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

품 목	1999	2000	2001			
			6월	7월	8월	9월
쌀(중립종)	500.6	431.7	275.6	275.6	267.3	242.5
쌀(장립종)	255.6	211.7	176.5	176.5	173	178.0
콩	185.9	194.0	181.5	197.6	193.8	184.1
옥수수	92.1	91.1	85.7	93.4	94.8	94.1
밀	122.1	110.3	119.7	125.6	130.3	136.7

주 : 쌀 중립종은 U.S. California, Medium 1등품, 장립종은 태국 1등품 가격임.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등품 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품 가격임.

Ⅲ. 국내경제 동향[3)]

1. 거시지표

○ 2001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투자와 수출이 부진했으나, 민간소비지출의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특히 민간소비의 GDP 성장기여율이 전분기 12.7%에서 54.3%로 대폭 상승한 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전분기 119.8%에서 23.5% 수준으로 대폭 하락.

실질 경제성장률(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1/4	2/4
GDP 성장률	8.8	12.6	9.7	3.7	2.7
최종소비지출	6.2	9.5	7.8	0.4	2.4
(민 간)	(7.1)	(10.8)	(8.9)	(0.9)	(2.9)
총고정자본형성	11.0	21.9	13.2	△3.7	△4.7
(건 설)	(△4.1)	(△6.8)	(△4.2)	(1.4)	(0.9)
(설 비)	(34.3)	(62.6)	(41.6)	(△7.9)	(△10.8)
총 수 출[1)]	21.6	27.1	21.4	8.4	1.2
총 수 입[1)]	20.0	31.6	20.6	△0.7	△7.2
총소득(GDI)	1.5	4.6	2.4	0.6	0.5

주 1)수출입은 재화와 서비스의 물량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서진교 부연구위원(jksuh@krei.re.kr),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2/4분기 민간소비는 1/4분기와는 달리 내구재 및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고 외식, 교육, 오락 등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전분기에 이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적으로 2.9% 증가

- 고정투자는 건설투자가 0.9% 증가에 그친 반면 설비투자가 10.8% 감소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감소하였음.

- 수출은 컴퓨터, 산업용기계, 섬유, 의복 등의 수출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반도체, 철강, 산업용기계 등의 수입이 크게 줄어 전년동기 대비 7.2% 감소.

○ 한편, 경제활동별 실질 국내 총생산은 농림어업부문이 생산량 증가와 광우병 파동에 따른 양돈, 양계의 사육두수 증가로 전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8% 성장.

○ 제조업부문은 컴퓨터 및 반도체 생산이 부진했으나 자동차 및 선박 등의 생산이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했으며, 건설업은 토목건설이 부진하였으나 건물건설이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3% 성장. 특히 정보통신산업은 전분기 17.7% 성장에서 3.4% 성장에 그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 추이 (95불변가격)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년	2000년			2001년	
		연간	3/4	4/4	1/4	2/4
전 산 업	11.0	9.2	9.0	4.8	4.5	3.4
농 림 어 업	4.7	0.1	△2.4	2.0	△3.4	3.8
제 조 업	21.8	15.4	18.1	6.5	4.4	2.2
서 비 스 업	11.7	9.0	8.3	5.5	3.9	3.6

자료: 재정경제부

○ 2001년 2/4분기 산업생산은 수출 및 내수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침. 8월 산업생산은 7월에 이어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침체를 반영하고 있음. 8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4.7% 감소.

○ 2001년 2/4분기 출하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수출이 부진하여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에 그침. 8월중 내수출하는 7월 마이너스 증가에서 1.9% 증가로 반전했으나, 수출출하는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감소하면서 감소 폭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4분기 재고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전년동기 대비 14.9%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8월 재고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14.6% 증가하였음. 그러나 재고율(재고/출하)은 전월의 89.3%를 정점으로 8월에는 85.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산업생산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년	2001년			
	연간	1/4	2/4	7월	8월
GDP	8.8	3.7	2.7	-	-
생 산	16.8	5.0	1.6	△5.7	△4.7
출 하	16.6	2.2	1.1	△5.8	△5.8
(수 출)	21.7	9.1	△1.0	△11.2	△14.6
(내 수)	12.7	△3.0	2.6	△1.1	1.9
재 고	16.2	15.2	14.9	15.7	14.6
평균가동율	78.3	74.7	74.5	71.0	73.4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 2/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내수 및 수출부진에 따른 생산둔화로 74.5%를 기록, 1/4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며, 7월에는 71.0%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8월 평균가동율은 생산둔화 지속으로 73.4%를 기록했으나 전월에 비해 2.4%p 증가한 수준임.

○ 2001년 2/4분기 본원통화는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9월에는 7.2% 증가에 그쳤음. 한편 9월 총통화(M2) 증가율은 평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2.2% 증가했는데, 이는 추경예산 집행 등에 따른 증가요인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감소요인이 상쇄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통화지표 (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0년 연간	2001년				
		1/4	2/4	7월	8월	9월
M1	16.4	11.6	12.5	11.4	14.3	13.7
M2	30.2	21.4	15.4	13.2	12.2	12.2
MCT	14.4	10.9	8.9	8.7	8.8	9.3
본원통화*	20.0	11.7	12.1	8.9	10.5	7.2

주: 증감율, MCT = M_2 + CD + 금전신탁
자료: 한국은행.

○ 미연준의 연이은 금리하락과 한은의 콜금리 목표 인하 등으로 국고채 유통수익률과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으로 인해 콜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시중자금사정

단위: 가중평균,%

	2000년	2001년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콜 금 리	5.05	4.95	4.96	4.96	4.76	4.56	4.27
CD유통수익률	7.08	5.84	5.86	5.65	5.32	4.92	4.67
회사채유통수익률	9.25	7.91	7.70	7.24	7.00	6.51	6.32

자료: 재정경제부

○ 원/달러 환율은 2001년 1/4분기에는 엔화환율과 밀접히 연동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9월 미국 테러사태 파급효과로 엔화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 나갔음. 향후 주식시장의 회복과 함께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소폭 하락세를 보일 전망

분기별 달러 환율

단위: 원(평균환율), %(전년동월대비)

	2000년 연간	200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9월
대미환율	1130.61	1271.23	1305.95	1293.90	1302.60	1285.39	1293.70
증감율(%)	△4.9	12.9	17.0	16.0	16.8	15.3	15.9

자료: 재정경제부

○ 향후 우리 경제는 미국 테러사태의 진행상황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6개월후의 경기상황을 보여 주는 선행지수가 꾸준히 상승

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테러사태의 충격이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기회복의 시점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만 예상됨.

○ 최근 주요 경제예측기관은 2001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하향 조정해 2%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소비자물가는 연중 4%대로 예측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는 100억 달러 내외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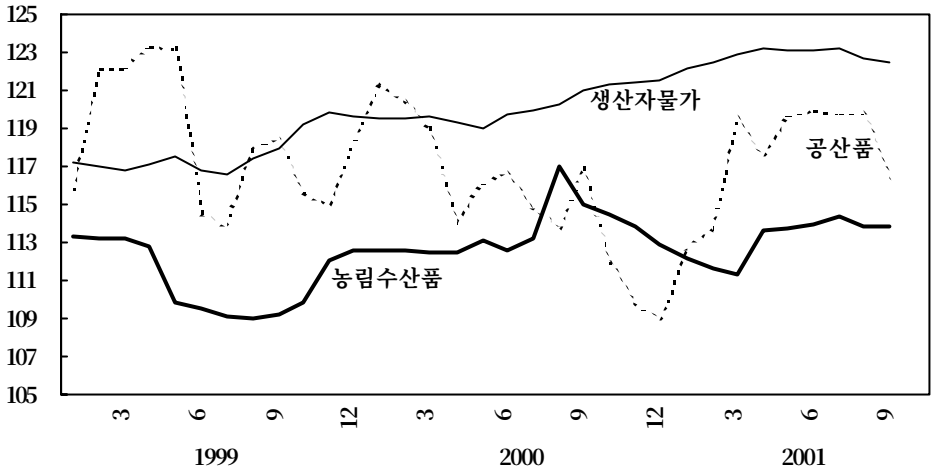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발표시기(월)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흑자(억달러)	
			2000	2001	2000	2001	2001	2000	2001
국내기관	KDI	7	8.8	2.2	2.3	2.2	-	110	137
	한국은행	6	8.8	3.8	2.3	4.4	-	110	130
	LG경제연구원	8	8.8	3.6	2.3	4.2	3.9	110	132
	현대경제연구원	8	8.8	3.8	2.3	4.1	3.8	110	102
	삼성경제연구소	10	8.8	2.1	2.3	4.4	4.0	110	75.3
	산업은행	5	8.8	4.4	2.3	4.1	4.4	110	119
국외기관	IMF	10	8.8	2.5	2.3	4.4	4.0	-	-
	WEFA	7	7.5	5.7	2.7	4.9	-	110	99

2. 물가

○ 2001년 3/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2.0%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3% 하락함. 9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2%가 하락한 122.5를 기록하여 전월(△0.4%)에 이어 하락세가 계속되었음.

품목별 생산자물가 지수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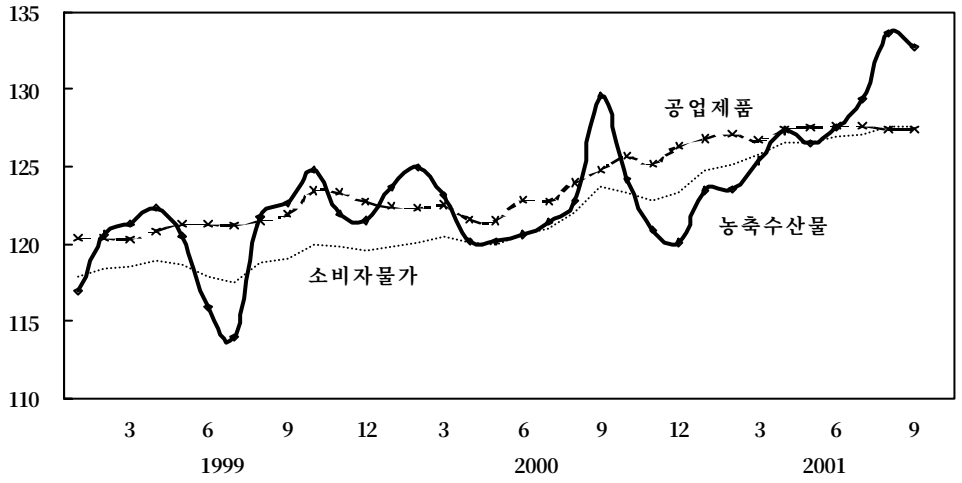
	2000년	2001년					
	연간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9월
농림수산품	115.3	115.3	119.1	118.6	119.8	119.8	116.3
	-	(△4.1)	(3.0)	(3.0)	(4.4)	(5.4)	(△0.5)
광 산 품	113.5	111.7	113.8	114.1	114.4	113.9	113.9
	-	(△0.7)	(0.9)	(△0.9)	(1.1)	(△2.6)	(△1.0)
공 산 품	119.8	121.9	122.4	121.9	122.3	121.8	121.5
	-	(2.6)	(3.1)	(1.6)	(2.4)	(1.7)	(0.8)
전력수도가스	133.4	142.1	143.5	143.7	143.7	143.7	143.7
	-	(8.5)	(8.4)	(8.0)	(8.0)	(8.0)	(8.0)
서비스	121.0	123.6	123.7	123.9	123.8	123.6	124.2
	-	(3.2)	(2.9)	(1.7)	(1.7)	(1.4)	(1.9)
원 재 료	162.8	167.4	176.1	173.4	179.0	169.2	171.9
	-	(7.6)	(13.0)	(6.3)	(8.6)	(4.8)	(5.3)
중 간 재	124.9	130.1	130.9	129.0	129.8	128.7	128.6
	-	(5.5)	(6.0)	(2.3)	(4.5)	(3.2)	(2.3)
최 종 재	119.0	121.8	122.3	122.0	122.3	122.1	121.6
	-	(2.0)	(3.4)	(1.6)	(3.2)	(3.0)	(1.6)
총지수	120.2	122.5	123.1	122.8	123.2	122.7	122.5
	-	(2.5)	(3.2)	(2.0)	(2.7)	(2.0)	(1.2)

자료: 한국은행, 주: ( )는 전년동기대비

- 9월 생산자물가가 내림세를 보인 것은 농림수산품이 추석수요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이 크게 늘어 채소, 과일 및 선어개류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고, 공산품도 업계의 경쟁강화와 수요부진으로 가격하락세를 보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3/4분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으나, 전분기 대비로는 0.9%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월대비로는 3.2% 상승하였음.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



- 9월 소비자물가가 채소류 가격의 대폭 하락에 따른 식료품 가격하락과 광열 및 수도요금이 하락한 반면 주거비, 가구집기, 가사용품, 기타잡비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보합세를 보였음.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

	2000년	2001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9월
상 품	123.3	126.1	127.5	128.7	128.1	129.2	128.9
	-	(2.7)	(4.9)	(3.8)	(4.7)	(4.5)	(2.1)
농림수산품	122.7	124.2	127.1	132.0	129.4	133.7	132.8
	-	(0.2)	(5.7)	(5.9)	(6.6)	(8.9)	(2.5)
공 업 제 품	123.5	126.9	127.6	127.5	127.7	127.4	127.4
	-	(3.6)	(4.6)	(2.9)	(4.0)	(2.7)	(2.1)
서 비 스	119.6	124.3	125.8	126.1	125.9	126.1	126.4
	-	(6.0)	(5.8)	(4.8)	(5.4)	(4.9)	(4.2)
집 세	102.6	104.5	106.2	107.7	107.3	107.7	108.0
	-	(2.7)	(3.8)	(4.6)	(4.5)	(4.7)	(4.8)
공공서비스	134.4	146.2	147.1	146.6	146.3	146.5	146.9
	-	(13.4)	(11.7)	(7.5)	(9.6)	(7.7)	(5.2)
개인서비스	120.5	122.7	124.4	124.7	124.5	124.7	124.9
	-	(2.8)	(3.0)	(3.1)	(3.1)	(3.1)	(3.2)
총 지 수	121.5	125.2	126.6	127.5	127.1	127.7	127.7
	-	(4.2)	(5.3)	(4.3)	(5.0)	(4.7)	(3.2)

자료: 통계청, 주: ()는 전년동기대비

○ 2001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원화환율이 주요국 통화에 대해 상승하여 원화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113.7을 기록하였음. 9월중 수출물가는 113.6을 기록,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최근 4개월 연속 하락후 오름세로 반전하였음.

-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과 정밀기계 등의 수출물가는 하락한 반면, 원화환율 상승에 따라 금속 1차제품, 운송장비제품등의 수출가격이 상승한데다 농림수산품의 수출가격도 대엔화 환율상승으로 오른 것이 수출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임.

품목별 수출물가 지수

	2000년	2001년					
		1/4	2/4	3/4	7월	8월	9월
농림수산품	109.6	113.1	118.9	118.0	116.6	116.6	120.7
	-	(△2.9)	(6.7)	(13.7)	(11.4)	(11.6)	(18.1)
공 산 품	107.7	116.5	117.1	113.7	114.5	113.0	113.5
	-	(8.0)	(9.9)	(6.3)	(7.5)	(5.7)	(5.5)
원 자 재	97.6	103.0	103.6	99.3	100.3	98.6	99.1
	-	(5.7)	(7.3)	(1.5)	(3.6)	(0.9)	(0.1)
자 본 재	107.2	116.8	115.9	113.5	114.3	113.0	113.3
	-	(8.2)	(8.6)	(7.8)	(8.1)	(7.5)	(7.8)
소 비 재	128.3	143.3	145.1	142.9	143.5	142.2	143.1
	-	(11.1)	(14.2)	(13.3)	(13.5)	(12.7)	(13.8)
총 지 수	107.7	116.4	117.2	113.7	114.5	113.1	113.6
	-	(7.9)	(9.8)	(6.3)	(7.5)	(5.8)	(5.7)

자료: 한국은행
주: ( )는 전년동기대비

○ 한편 2001년 3/4분기 수입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12.0% 하락한 116.4를 기록하였으며, 9월중 수입물가지수도 전월대비 0.3% 하락하여 5개월째 하락세를 지속하였음.

- 석유제품등 중간원자재가 원화환율 상승 및 미국 테러사태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원유 등 연료광물을 비롯하여 천영고무, 섬유소재, 농산물 등 대부분의 기초원자재가 세계경기의 둔화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수입물가 하락의 주요 원인.

품목별 수입물가 지수

	2000년	2001년					
		1/4	2/4	3/4	7월	8월	9월
농림수산품	106.3	118.9	121.1	116.4	117.0	116.8	115.4
	-	(12.3)	(15.2)	(12.0)	(13.0)	(13.2)	(9.9)
공 산 품	123.7	133.8	133.8	129.9	130.8	129.1	129.8
	-	(8.7)	(9.5)	(5.4)	(6.8)	(5.2)	(4.4)
원 자 재	138.2	148.2	151.3	144.8	146.2	144.6	143.5
	-	(9.6)	(11.9)	(4.2)	(6.9)	(4.9)	(0.8)
자 본 재	117.6	125.3	125.9	125.7	125.3	125.2	126.5
	-	(5.5)	(7.5)	(8.4)	(7.5)	(8.2)	(9.3)
소 비 재	125.8	135.1	138.2	136.3	135.7	134.5	138.8
	-	(9.2)	(13.6)	(7.7)	(9.3)	(6.7)	(6.9)
총지수	133.8	143.3	146.0	140.8	141.8	140.5	140.1
	-	(8.9)	(11.3)	(4.9)	(7.1)	(5.5)	(2.3)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주: ( )는 전년동기대비

3. 소비

○ 2/4분기 도소매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4% 감소하였음. 8월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 및 차량용연료 판매호조로 전월보다 1.0% 증가했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3.5% 증가하였음.

○ 2/4분기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분기 마이너스 증가율(△8.1%)에서 5.0% 돌아섰으며, 월별로도 8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휴대용 전화기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년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음.

- 휴대용전화기, 정수기, 승용차 등 내구용소비재는 7월 23.9% 증가

에 이어 8월에도 42.5%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의 경우는 담배, 등유, 메리야스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보다 4.1% 감소하였음.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

	2000년	2001년			
		1/4	2/4	7월	8월
도소매 판매	9.8	2.5(1.8)	4.4(0.1)	2.9(△0.8)	3.5(1.0)
내수용 소비재출하	6.4	△8.1	5.0	6.9	10.4
(내구재)	5.1	△19.4	8.3	23.9	42.5
(비내구재)	7.2	△0.8	2.9	△1.8	△4.1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주:()는 전기(월)대비

○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한 247만 6천원 이었으며, 소비지출은 8.2% 늘어난 166만 8천원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기 대비 소비지출은 기타소비지출(17.0%), 주거(15.3%), 가구가사(14.0%), 교통통신(11.7%)가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피복.신발(0.4%), 보건.의료(1.2%), 식료품(2.3%), 교양.오락(4.2%) 등의 증가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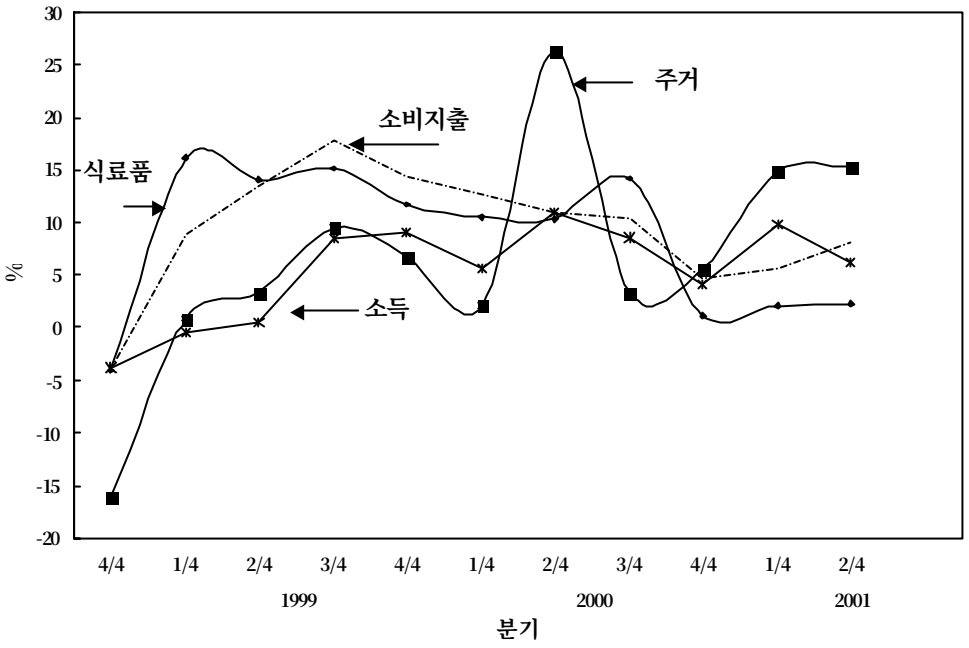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1999년	2000년	2001년	
			1/4	2/4
소 득	4.3	7.3	9.8	6.2
소비지출	13.5	9.6	5.5	8.2
식료품	14.1	8.7	2.1	2.3
주 거	5.1	9.3	14.9	15.3

자료: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4. 고용

○ 2001년 9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248만 1천명으로 전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여율은 61.5%로 전월보다 0.5%p로 상승하였음.

○ 9월 취업자는 2,179만 7천명으로 전월보다 27만 3천명(1.3%)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0%), 광공업(2.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 전산업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하였음. 그러나 전년동월비로는 농림어업(△3.9%)과 제조업(△1.6%) 등에서 감소한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8%)은 크게 증가함.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0년	2001년			전월대비
		7월	8월	9월	증감
경 제 활 동 인구	21,634	22,520	22,276	22,481	0.9
(경제활동참가율)	60.5	61.7	61.0	61.5	
취 업 자	20,281	21,760	21,524	21,797	1.3
· 농 임 어 업	2,349	2,427	2,419	2,443	1.0
· 광 공 업	4,026	4,193	4,113	4,230	2.8
(제 조 업)	4,006	4,172	4,093	4,210	2.9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906	15,141	14,992	15,123	0.9
(건 설 업)	1,476	1,625	1,606	1,663	3.5
실 업 자	1,353	760	752	684	△9.0
실업률(계절조정)	6.3	3.7	3.6	3.3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2001년 9월 실업자는 68만 4천명으로 전월대비 6만 8천명(9.0%)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률(계절조정)도 전월 3.6%에서 3.3%로 0.3%p 하락했음.

Ⅳ. 농촌경제 동향[4)]

1. 농촌물가

○ 금년 9월 기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1.4%, 전월대비로는 3.6% 하락하였음.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하락폭이 큰 품목은 과실(△27.6%), 두류(△13.6%)이고 전월대비 하락폭이 큰 품목은 채소(△15.3%), 특용작물(△3.9%) 순임.

○ 축산물은 가축판매가격이 9월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유란은 올해 6월 상승세가 주춤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음. 가축은 전년동월 대비 31.9% 상승하였고, 유란은 0.5% 상승하였음.

○ 기타 농산물의 판매가격은 전월보다 3.6% 하락하였음. 화훼류는 전년동월 대비로는 0.8% 상승했으나, 전월대비로는 2.8% 하락. 특용작물은 전년동월 대비로는 1.3% 하락하였고, 전월대비로도 3.9% 하락.

○ 농업용품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16.0% 상승, 전월대비로는 0.9% 하락하였음. 이중 가축과 사료의 구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전년동월 대비 각각 44.0%, 15.2% 의 상승세를 보였음. 영농광열비는 전년동월 대비 4.2% 하락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3% 상승하였음.

○ 농촌임료금은 전년동월대비 4.8% 상승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9% 하락하였음. 이중 기타임금이 전년동월대비 7.3% 상승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음.

---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경덕 부연구위원(kdkim@krei.re.kr), 서진교 부연구위원(jksuh@krei.re.kr),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 송우진 연구원(gnos@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농가판매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2000. 9	2001. 7	2001. 8	2001. 9	등락률(%)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17.8	125.9	123.9	119.5	1.4	△3.6
곡 물	323.3	137.1	139.6	137.8	133.4	△2.7	△3.2
미 곡	288.7	141.0	143.0	141.1	136.4	△3.3	△3.3
맥 류	13.6	115.2	119.8	119.8	119.8	4.0	0.0
잡 곡	3.7	125.4	125.5	130.4	130.4	4.0	0.0
두 류	7.8	139.4	123.7	123.8	120.5	△13.6	△2.7
서 류	9.5	53.4	81.7	76.1	74.6	39.7	△2.0
청 과 물	296.6	118.9	116.6	108.9	97.8	△17.7	△10.2
채 소	208.5	122.8	127.6	124.7	105.6	△14.0	△15.3
과 실	88.1	109.7	90.7	71.4	79.4	△27.6	11.2
축 산 물	322.3	99.6	124.1	126.4	128.0	28.5	1.3
가 축	294.7	97.1	124.4	126.8	128.1	31.9	1.0
유 란	27.6	125.9	120.5	122.5	126.9	0.5	3.6
기타농산물	57.8	106.1	107.2	108.9	105.0	△1.0	△3.6
특용작물	48.8	109.7	110.4	112.7	108.3	△1.3	△3.9
화 훼	6.7	63.0	67.2	64.8	63.5	0.8	△2.0
부 산 물	2.3	155.8	155.8	155.8	155.8	0.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동월 대비 9.7% 상승함. 가계용품의 구입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5.6% 상승하였고, 이중 보건의료와 교통통신이 전년동월 대비 각각 11.6%, 10.1% 상승하여 큰 상승폭을 보임.

농가구입가격지수의 변화

	가중치	2000. 9	2001. 7	2001. 8	2001. 9	등락률(%)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지수	1000	129.4	141.7	141.5	142.0	9.7	0.4
가계용품	524.9	128.7	135.9	136.1	135.9	5.6	△0.1
식료품	97.6	126.4	129.0	130.8	130.1	2.9	△0.5
피복비	39.1	116.0	118.6	119.0	119.1	2.7	0.1
주거비	48.7	93.6	94.5	95.2	95.1	1.6	△0.1
가계광열	35.6	183.3	189.3	185.4	184.7	0.8	△0.4
보건의료	69.8	147.8	164.8	164.9	164.9	11.6	0.0
교육교양	121.5	131.0	137.4	137.4	137.3	4.8	△0.1
교통통신	76.5	119.2	130.8	131.2	131.2	10.1	0.0
잡 비	36.1	118.1	125.7	125.9	126.1	6.8	0.2
농업용품	403.7	128.2	147.7	147.4	148.7	16.0	0.9
종자	17.4	100.7	100.7	100.7	99.5	△1.2	△1.2
비료	24.3	149.6	150.0	150.0	150.0	0.3	0.0
농약	24.6	129.4	132.9	132.9	132.9	2.7	0.0
농기구류	83.6	154.12	154.2	154.2	154.2	0.1	0.0
영농광열	13.9	173.0	171.5	163.5	165.7	△4.2	1.3
가축	129.9	123.4	173.7	173.7	177.7	44.0	2.3
사료	77.7	104.9	120.8	120.8	120.8	15.2	0.0
영농자재	32.3	115.5	115.2	115.2	115.2	△0.3	0.0
농촌임료금	71.4	142.0	149.9	147.5	148.8	4.8	0.9
농업노동임금	31.7	142.4	154.8	148.8	152.2	6.9	2.3
기타임금	2.8	110.9	117.5	118.0	119.0	7.3	0.8
도 정 료	8.2	178.6	189.5	189.5	189.5	6.1	0.0
농기계 임차	28.7	134.1	136.3	136.9	136.4	1.7	△0.4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 금년 9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5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였음. 이는 축산물(28.5%)의 상승 때문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42.0로 전년동월대비 9.7% 상승하였음. 이중 농업용품이 전년동월대비 16.0% 상

승하여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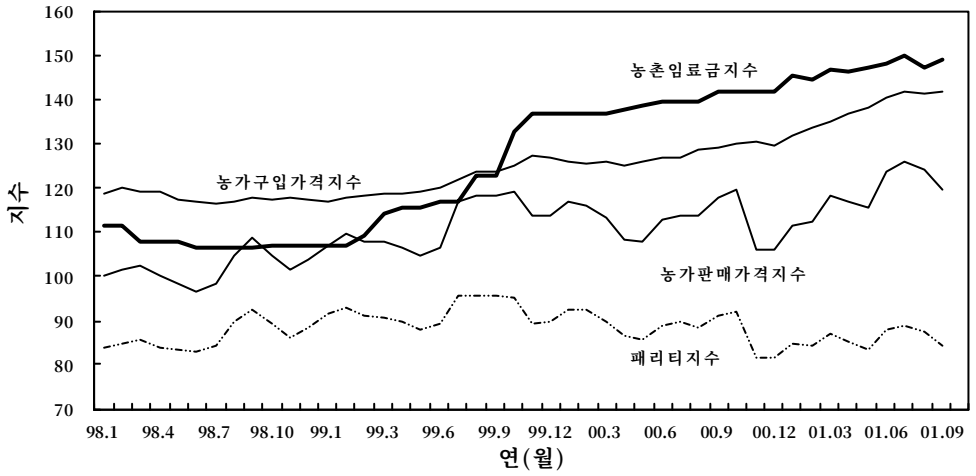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2000.9	2001.7	2001.8	2001.9	등락률(%)	
					전년동월비	전 월 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7.8	125.9	123.9	119.5	1.4	△3.6
농가구입가격지수(B)	129.4	141.7	141.5	142.0	9.7	0.4
패리티지수(A/B*100)	91.0	88.5	87.6	84.2	△7.6	△3.9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올해 9월 84.2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7.6% 하락, 전월대비로는 3.9% 하락을 기록.

농촌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주요 품목의 농업소득

○ 금년 9월까지의 농업소득은 고랭지감자,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사과,

노지고초의 소득이 증가하였고, 배, 노지포도, 시설감귤, 대파의 소득은 감소하였음.

○ 고랭지배추는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대비 농업소득이 55.1% 증가를 기록해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음. 고랭지감자, 고랭지무, 사과, 노지고추는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소득도 증가하였음.

○ 배는 가격하락의 폭이 커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51.1% 감소하였음. 노지포도, 시설감귤, 대파는 생산량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전년대비 각각 29.8%, 18.9%, 29.5% 하락하였음.

< 2001년 1월~9월중 주요 농산물의 소득 변화: 전년 동기 증감율 >

단위: %

품목	생산량	가격	조수입	경영비	농업소득 (1~9월)
고랭지감자	△9.1	27.9	16.2	△0.1	31.6
고랭지무	△12.3	40.9	23.5	△2.2	37.2
고랭지배추	0.7	36.7	37.6	7.3	55.1
사과	△11.2	26.7	12.5	△6.8	28.3
배	0.5	△27.7	△27.3	0.4	△51.1
노지포도	△0.8	△19.1	△19.7	0.0	△29.8
시설감귤	△0.9	△3.0	△3.9	△0.9	△18.9
노지고추	△6.4	22.1	14.3	△1.5	19.1
대파	△12.4	△8.2	△19.6	△2.1	△29.5

4. 농업인력

○ 금년 9월 농가 농림업 취업자와 비농가 농림업취업자는 농번기를 지나 6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농림업 취업자는 2,345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6% 감소, 전월대비 0.8% 증가를 기록함.

○ 농가 농림업취업자는 감소세가 완화되고, 농가 농외취업자는 상승세를 이어감. 9월 농가 농림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8%감소, 농가 농외취업자는 6.4% 증가하였음.

농림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0년	2000.9	2001년			증감률(%)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경제활동인구	21,950	22,236	22,520	22,276	22,481	1.1	0.9
전산업취업자	21,061	21,432	21,760	21,524	21,797	1.7	1.3
농림업취업자	2,203	2,458	2,335	2,327	2,345	△4.6	0.8
농가	1,998	2,223	2,100	2,094	2,095	△5.8	0.0
비농가	205	235	235	233	250	6.4	7.3

자료: 통계청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

	2000년	2000년 9월	2001년			
			6월	7월	8월	9월
농림업 취업자	1,998	2,223	2,130	2,100	2,094	2,095
(전년동월대비)			(△3.6)	(△4.7)	(△6.4)	(△5.8)
농외 취업자	480	464	483	486	489	505
(전년동월대비)			(4.5)	(2.3)	(5.8)	(8.8)

자료: 통계청

5. 농산물 수출입

5.1. 수출동향

○ 2001년 9월까지 수출규모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은 누계금액(백만달러) 기준으로 일본(431.5), 미국(118.7), 홍콩(93.7), 러시아연방(96.4), 중국(82.6) 순임. 9월까지 농림축수산물 수출금액은 누계기준 2,035.8백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하였음. 이는 일본과 중국의 수출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2.5%, 4.0%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1년 1월~9월 농림축수산물 수출량은 전년동기 대비 6.6% 감소한 2,035.8백만 달러를 기록함. 농산물만 전년동기대비 10.4% 상승했고,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25.4%, 13.6%, 16.2% 감소하였음.

농림수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0년	2000.1~9	2001.1~9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3,062.5	2,180.4	2,035.8	△6.6
농림축산물	1,558.9	1,087.2	1,120.1	3.0
농축산물	1,277.3	929.5	983.9	5.9
농산물	1,133.5	811.9	896.2	10.4
축산물	143.8	117.6	87.7	△25.4
임산물	281.6	157.7	136.2	△13.6
수산물	1,503.6	1,093.2	915.7	△16.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9월까지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홍삼, 토마토의 수출은 감소하고 백삼, 사과, 배, 감귤, 딸기, 오이, 고추, 백합, 장미, 버섯류의 수출은 증가함.

○ 돼지고기는 9월까지 누계액이 전년동기 대비 49.2% 감소한 35,2백만 달러임. 이는 필리핀과 홍콩등에 대한 수출증가로 수출감소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닭고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한 2.0백만달러임.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

품 목	수출액(천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0. 1~9	2001. 1~9	증감율(%)
돼지고기	311,777	340,451	74,957	69,327	35,222	△49.2
닭고기	1,605	2,116	3,025	2,046	1,961	△4.2
김 치	43,931	79,245	78,847	59,847	53,275	△11.0
홍 삼	31,801	41,419	40,899	16,589	11,407	△31.2
백 삼	7,804	6,091	4,172	2,410	3,141	30.3
사 과	3,538	1,674	2,339	948	2,062	117.5
배	7,731	11,763	17,104	5,546	8,552	54.2
감 귤	5,045	6,593	4,493	3,150	3,516	11.6
딸 기	4,096	7,857	9,531	8,656	9,510	9.9
토마토	7,592	17,504	22,949	14,895	9,882	△33.7
오 이	5,489	9,293	9,886	4,130	6,214	50.5
고 추	6,890	15,153	29,673	21,057	30,003	42.5
백 합	3,358	3,058	4,395	2,999	4,615	53.9
장 미	3,420	6,471	10,324	6,772	7,273	7.4
버섯류	1,771	4,423	5,562	3,897	4,122	5.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김치는 일본산 김치와의 경쟁, 엔화약세로 수출물량이 늘었으나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1.0% 감소한 53.3백만 달러임.

○ 올 9월까지 인삼류 수출은 홍삼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31.2% 감소한 11,4백만달러이고, 백삼은 30.3% 증가한 3.1백만 달러를 기록함.

○ 채소류는 파프리카, 오이등의 수출호조로 토마토 수출부진, 수출단가 하락 및 원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를 유지함. 전년동기대비 오이는 50.5%, 고추는 42.5%, 딸기는 9.9% 증가하였고, 토마토는 33.7% 감소함.

○ 과일류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시장 개척노력과 과실조제품의 수출호조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함. 전년동기대비 사과는 117.5%, 배는 54.2%, 감귤은 11.6% 증가함.

○ 화훼류의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장미의 수출증가세 전환에 힘입어 주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화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증가세를 유지함. 장미는 전년동기대비 7.4%, 백합은 18.3% 증가함.

○ 올 8월까지 버섯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4.1백만달러를 기록함.

5.2. 수입동향

○ 2001년 9월까지 수입규모별 주요 농산물 수입국은 누계금액(백만달러) 기준으로 미국(1,856.6), 중국(1,363.3), 호주(451.9)의 순임.

○ 9월 현재 농림축수산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한 7,425.4백만 달러이며 이중 농산물은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937.2백만 달러로 전체 수입을 주도함. 축산물은 전년동기대비 18.8% 감소한 1,030.4백만 달러 수준이며 임산물도 2.3% 감소한 1,279.7백만 달러 수준임.

수산물은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한 1,178.1백만 달러임.

○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요감소는 대체품목인 닭고기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됨.

○ 쇠고기는 전년동기대비 38.4% 감소한 369.0백만 달러, 돼지고기는 전년동기대비 35.8% 감소한 135.9백만 달러를 수입함. 닭고기의 수입금액은 71.9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0.7% 증가함.

○ 곡물류중 옥수수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705.5백만달러로 미국으로부터 44%, 호주로부터 31%를 수입함. 밀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381.7백만 달러이고, 대두는 12.1% 감소한 213.8백만 달러임.

농림수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2000	2000.1 ~9월	2001.1 ~9월	증감율(%)
농림축수산물	9,930.1	7,322.8	7,425.4	1.4
농림축산물	8,527.4	6,298.7	6,247.3	△0.8
농축산물	6,783.3	4,989.4	4,967.6	△0.4
농산물	5,104.5	3,720.9	3,937.2	5.8
축산물	1,678.8	1,268.5	1,030.4	△18.8
임산물	1,744.1	1,309.3	1,279.7	△2.3
수산물	1,402.7	1,024.1	1,178.1	15.0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입금액

품 목	수 입 액(천달러)					증감율(%)
	1998년	1999년	2000년	2000.1-9	2001.1-9	
쇠 고 기	268,402	505,247	795,016	599,308	368,966	△38.4
돼지고기	142,623	226,425	259,151	211,845	135,905	△35.8
닭 고 기	19,735	45,940	64,717	44,758	71,912	△60.7
옥 수 수	913,829	887,467	937,747	685,697	705,494	2.9
밀	663,534	533,892	470,809	352,226	381,732	8.4
대 두	379,351	312,015	329,963	243,114	213,788	△12.1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올 9월까지 열대과일은 포도, 바나나의 수입이 감소하고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 레몬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로는 수입금액이 1.4% 증가하였음. 전년동기대비 포도는 20.3%, 바나나는 5.6% 감소하였고, 오렌지는 10.1%, 키위는 7.9% 증가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품 목	수 입 액(천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0.9	2001.9	증감율(%)
오 렌 지	68,605	82,785	116,013	100,970	111,172	10.1
키 위	5,192	7,521	8,647	6,408	6,912	7.9
포 도	13,172	16,059	31,104	26,699	21,291	△20.3
파인애플	11,116	19,574	19,382	14,650	15,815	8.0
바 나 나	37,801	71,856	75,250	62,284	58,770	△5.6
레 몬	3,367	4,449	4,960	3,719	3,746	0.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5.3. 중국농산물 수입동향

○ 2001년 상반기 중국농산물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0.6% 감소한 647.9백만 달러, 축산물 수입은 56.5% 증가한 24.0백만 달러, 임산물 수입은 12.9% 증가한 233.4백만 달러 수준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곡물 등 일부 품목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중국산 농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달러, %

	1997	1998	1999	2000	2000.9	2001.9	전년대비 증 감 율
농산물	933.5	621.6	551.6	1,152.0	816,562	647,949	△20.6
축산물	47.8	13.8	15.1	23.4	15,314	23,965	56.5
임산물	298.3	138.9	214.7	282.6	206,665	233,390	12.9
수산물	272.1	197.3	413.8	486.8	363,208	457,988	26.1
계	1,551.7	971.6	1,195.1	1,944.8	1,401,749	1,363,291	△2.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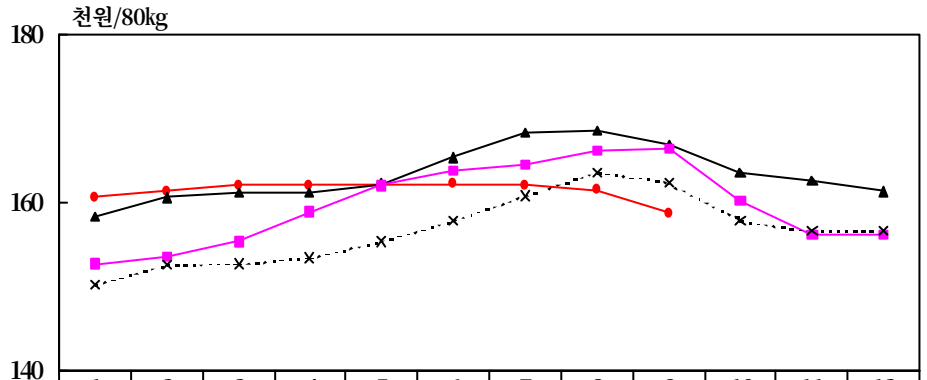
Ⅴ.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1)]

1.1. 쌀

○ 농림부의 올 수확기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결과를 보면 2002 양곡년도의 총 공급량은 690~700만톤으로 전망됨. 특히 쌀 생산증가, 및 소비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02 양곡년도 쌀 재고량은 160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쌀 과잉재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쌀 도매가격 동향 (호남미,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161	161	162	162	162	162	162	161	159			
2000	158	161	161	161	162	165	168	169	167	164	163	161
1999	153	154	155	159	162	164	164	166	166	160	156	156
평년	150	153	153	153	155	158	161	163	162	158	157	157

주) 평년은 1998~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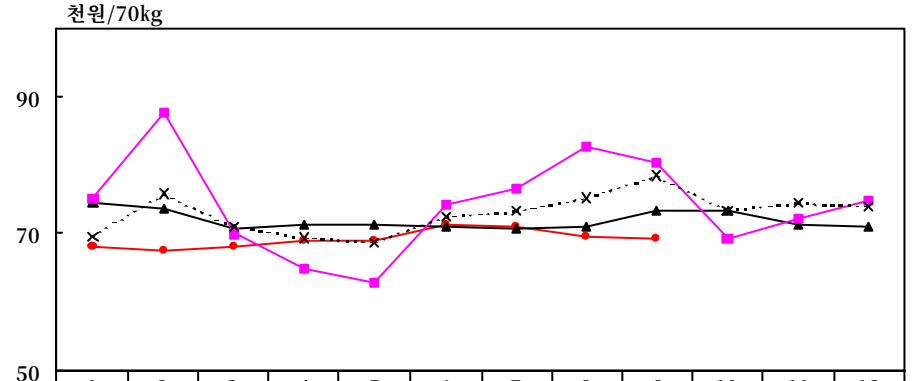
○ 쌀 도매가격(호남미, 상품 기준)은 지난해 11월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감. 8월 들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며 9월 현재 쌀 도매가격은 158,577원/80kg으로 평년 대비 2.2%, 전년동월 대비 5.0% 낮은 가격을 형성함.

1.2. 보 리

○ 2001년 보리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각각 34.5%, 25.6% 증가하여 전년 대비 69.0% 대폭 증가한 38.3만톤임. 이는 전년 보다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호남지역의 작황이 좋아진데 기인.

○ 금년 3월 이후 약상승세를 유지하던 보리가격은 7월부터 소폭 하락하기 시작하여 9월 현재 6만 8천원/70kg(쌀보리, 상품 기준)까지 하락함. 이는 평년동기 대비 11.7%, 전년동기 대비로는 5.4% 하락.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68	68	68	69	69	71	71	70	69			
2000	75	74	71	71	71	71	71	71	73	74	71	71
1999	75	88	70	65	63	74	77	83	81	69	72	75
평년	70	76	71	70	69	73	73	75	78	74	75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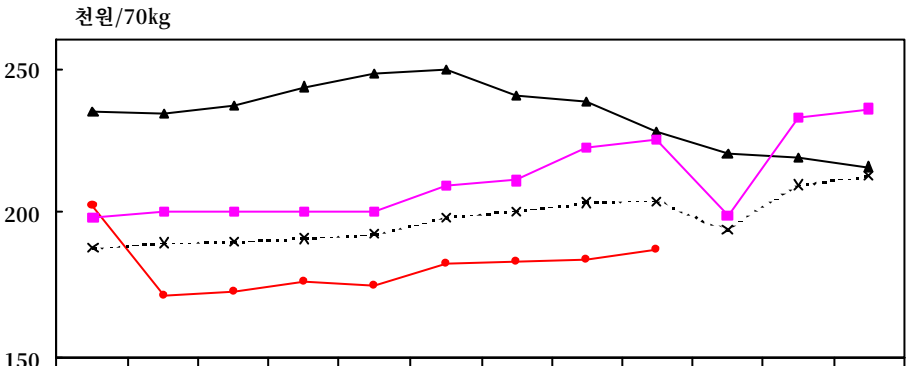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8~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곡종별 생산량은 쌀보리 22.2만톤, 맥주보리 11.1만톤, 겉보리 5.0만톤으로 전년대비 115.4%, 28.5%, 34.5% 증가함.

1.3. 대 두

○ 2000년 대두의 재배면적은 86.2천ha으로 전년대비 1.0%, 작황은 전년대비 1.5% 감소하여 대두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1만 3천톤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01년 대두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203	171	172	176	175	182	183	184	187			
2000	235	234	237	244	248	249	241	238	228	220	219	216
1999	198	200	200	200	200	209	211	223	226	199	233	236
평년	188	190	190	191	193	198	201	204	204	194	210	212

주) 평년은 1998~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대두의 도매가격은 수확기에 양질의 중국산 수입콩이 저가로 시중에 공급되면서 2001년 2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9월 현재 도매가격은 70kg당 18만 7천원(상품)까지 상승하였음. 그러나 전년대비 18%, 평년대비로는 8.3%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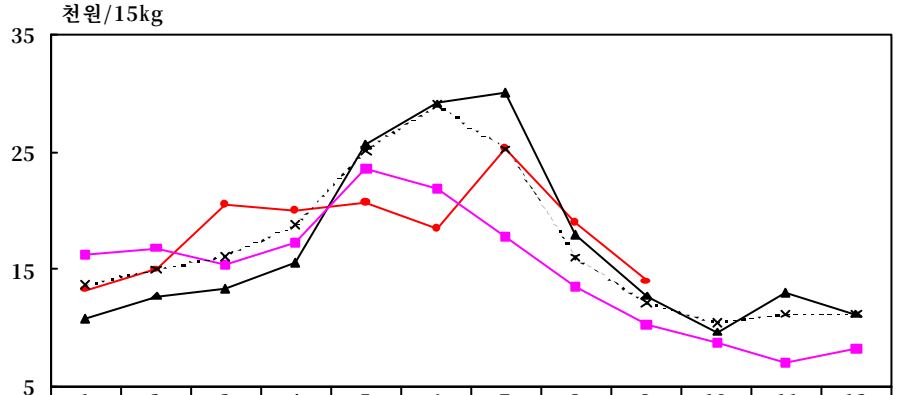
1.4. 고구마

○ 지난해 고구마 재배면적은 16.1천ha로 전년대비 19.7%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344.9천톤을 기록함.

○ 2001년 재배면적은 작년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주출하지역은 경남 진주, 경기 여주, 전남 해남, 전북 김제, 고창 지역임.

○ 경기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위축과 성출하기 출하량 증가로 고구마 도매가격은 급락세를 보임. 9월 현재 15kg 상품기준 고구마 도매가격은 1만 3,917원으로 전년대비 10.1%, 평년대비 15.5% 높은 수준임.

고구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1	13	15	20	20	21	18	25	19	14			
2000	11	13	13	16	26	29	30	18	13	10	13	11
1999	16	17	15	17	24	22	18	14	10	9	7	8
평년	14	15	16	19	25	29	25	16	12	10	11	11

주) 평년은 1998~00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5. 사료곡물

○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옥수수 수입량은 563만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하였으며, 밀의 수입량은 22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3.1% 감소한 수준임.

○ 2000년 11월 이후 회복세에 들어선 국제 옥수수가격은 9월 현재 약 95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음. 한편, 생산량은 소폭 감소하고 소비량은 대폭 증가하여 세계 기말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연말에는 옥수수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2001년 8월까지의 옥수수 수입액은 622백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였고, 동기간 밀의 수입액은 335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하였음.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0.1~8	2001.1~8
옥수수	수입량	천톤	6,524	5,335	6,122	6,683	5,696.6	5,634.5
	단 가	US$/톤	148	125	108	105	106.8	110.4
	수입액	백만US$	965	667	661	703	608.6	622.0
밀	수입량	천톤	1,096	2,349	1,902	809	2,329.6	2,257.7
	단 가	US$/톤	141	115	98	109	139.8	148.6
	수입액	백만US$	154	271	186	88	325.6	335.4
계	수입량	천톤	7,620	7,684	8,024	7,492	8,026.2	7,892.2
	단 가	US$/톤	147	122	106	106	246.6	259.0
	수입액	백만US$	1,119	938	847	791	934.3	957.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2)]

2.1. 배 추

○ 배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 트럭당 353만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50% 높은 수준이었고, 평년 동기보다는 41% 높은 수준이었음.

- 7월 도매가격은 337만원, 8월에는 447만원으로 작년이나 평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높았으나, 9월에는 276만원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작년 동기보다는 25% 낮았 수준이었음.

○ 8월까지 가격이 높았던 것은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져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중에 가격이 하락한 것은 준고랭지 2기작 정식기 가격이 높아 정식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상여건도 좋아 작황이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 10월의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10% 많으나, 가뭄과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빠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7%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약 14,80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4,450ha 보다는 3% 많은 것임.

○ 가을배추의 초기 생육이 정식기 가뭄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 금년 예상단수를 평년보다 4% 적었던 작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는 2% 적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

---

2) 이 자료는 홍승지 초청연구원(seungj@krei.re.kr), 서대석 연구원(dssuh@krei.re.kr), 김성우 연구원(swookim@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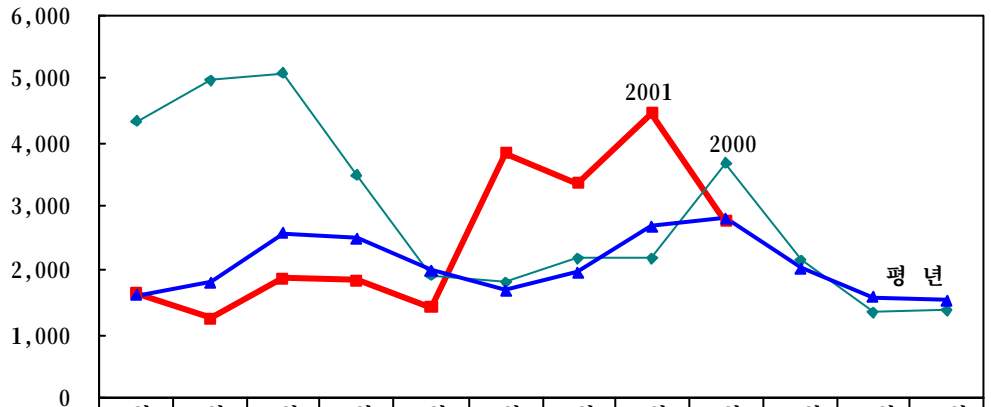
서 11~12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약 15% 높은 150~170만원(중품 100~120만원)의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월동배추 정식(의향)면적 조사결과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던 작년에 비해 금년 정식면적은 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해남과 제주는 감소하는 반면, 진도와 무안은 마늘과 대파 면적이 월동배추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특히 비주산지였던 신안의 경우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약 5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겨울배추 예상단수를 평년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 1~4월의 도매가격은 가격이 낮았던 금년 동기 가격(5톤 트럭당 상품 166만원, 중품 125만원)과 비슷하거나 평년 가격(상품 214만원, 중품 175만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1,647	1,252	1,879	1,847	1,445	3,843	3,365	4,473	2,763			
2000	4,335	4,990	5,081	3,502	1,936	1,819	2,180	2,196	3,674	2,173	1,362	1,370
평년	1,624	1,827	2,584	2,515	2,010	1,697	1,984	2,689	2,824	2,036	1,589	1,540

주: 평년가격은 1996.1~2000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2. 무

○ 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412만원(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84% 높은 수준이었고, 평년 동기보다는 80% 높은 수준이었음.

- 7월 도매가격은 555만원, 8월에는 427만원으로 작년이나 평년 같은 시기보다 크게 높았으나, 9월에는 253만원으로 평년 동기보다는 8%, 작년 동기보다는 27% 낮은 수준이었음.

○ 8월까지 가격이 높았던 것은 파종기 가뭄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 계속된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져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중에 가격이 하락한 것은 준고랭지 2기작의 파종기 가격이 높아 파종면적이 증가하였고, 기상여건도 좋아 작황이 회복되면서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 10월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15%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나쁠 것으로 전망되어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4% 많을 것으로 전망됨.

○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약 14,00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4,400ha보다 3% 적은 것임.

○ 가을무 초기 생육이 파종기 가뭄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나, 금년 가을무 예상단수를 작년보다 5% 적은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10%, 평년보다는 6% 적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11~12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약 15% 높은 200~230만원(중품 150~170만원)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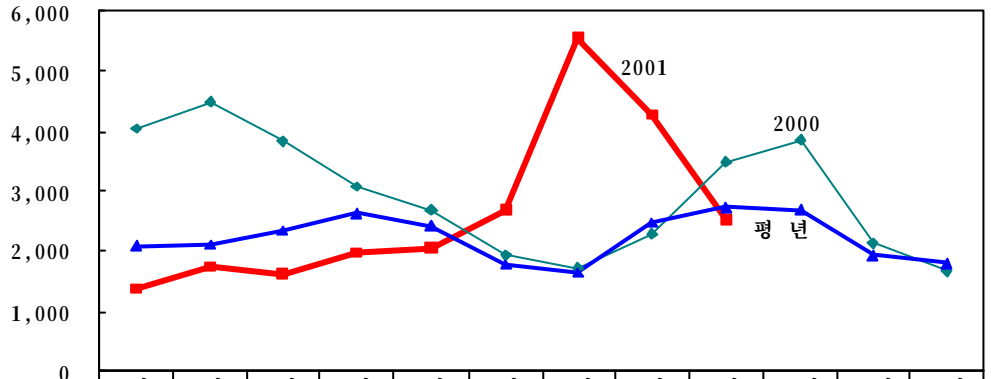
○ 저장무 주 출하지인 고창, 영암, 나주 등지의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과 비슷한 3,200ha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제주도청의 8월 가을무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금년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21% 감소한 418ha가 될 것으로 조사되어 평년보다 52%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년 1~4월의 출하량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약간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가격은 작년 동기 수준(상품 170만원, 중품 130만원)보다 약간 높은 180~200만원(중품 140~16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우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1,371	1,752	1,613	1,983	2,059	2,684	5,547	4,267	2,532			
2000	4,052	4,487	3,837	3,089	2,677	1,931	1,713	2,295	3,483	3,873	2,129	1,658
평 년	2,096	2,113	2,347	2,630	2,434	1,766	1,632	2,491	2,740	2,693	1,931	1,807

주: 평년가격은 1995.1 ~1999년 12월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3. 고 추

○ 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600g당 5,290원(화건 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 2% 높고, 평년동기보다 31%, 작년동기보다는 21% 높은 수준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9월 생산 예상량 조사결과, 금년 예상단수는

256kg으로 평년에 비해 1% 높고 작년보다는 2% 낮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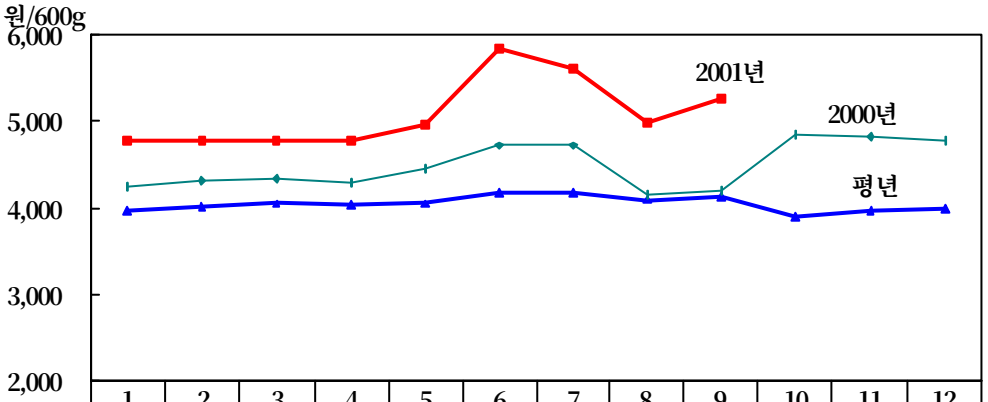
○ 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곱한 금년 예상생산량은 약 18만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6%, 평년 생산량보다는 11% 적은 수준임.

○ 10월에는 끝물 고추 수확량이 늘어날 것이나, 추석 이후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은 약간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년산 연평균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작년산보다 8% 높은 5,2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8월의 중국 익도산 고추 수입량은 650톤으로 작년 동기의 177톤보다 약 4배 많은 수준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년	3,965	4,021	4,047	4,033	4,060	4,177	4,194	4,092	4,151	3,910	3,977	3,979
2000	4,244	4,309	4,340	4,300	4,475	4,732	4,715	4,169	4,215	4,850	4,826	4,800
2001	4,800	4,800	4,800	4,800	4,954	5,858	5,612	4,994	5,260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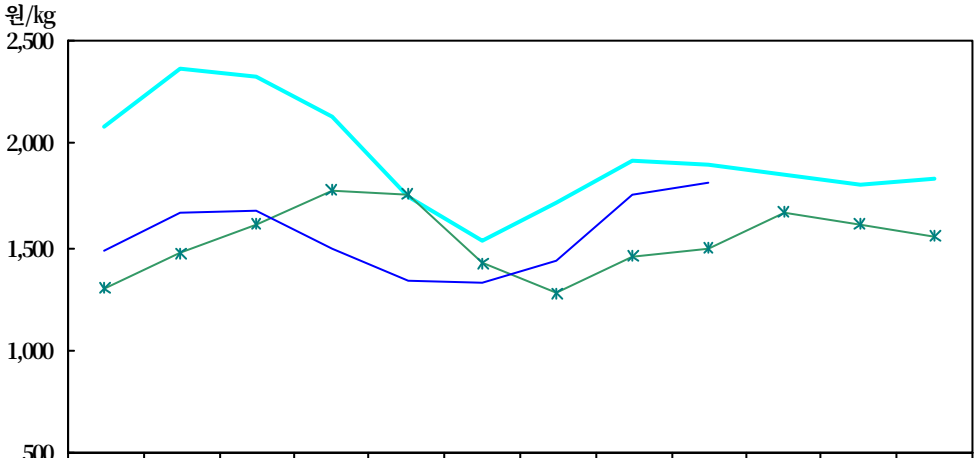
○ 9월 말 현재 중국 산동성의 익도산 고추 상품의 재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25% 정도 적은 1,500톤으로 추정되며, 9월 산지 가격은 중국 현지의 작년산 고추 재고량 부족으로 8월보다 약 9% 상승한 톤당 12,000~12,500元(1,570달러)임. 민간수입원가는600g당 6,700~6,800원, 도매원가는 6,900~7,000원으로 8월보다 3% 상승함.

○ 중국의 건고추 재고량이 적고 가격도 높아 10월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2.4. 마늘

○ 마늘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663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올해 2/4분기보다 20% 높은 수준이며, 작년 동기보다 18% 높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10% 낮은 수준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년	2,086	2,371	2,331	2,133	1,744	1,532	1,718	1,922	1,900	1,852	1,798	1,829
2000	1,300	1,472	1,612	1,774	1,754	1,422	1,276	1,453	1,500	1,668	1,608	1,550
2001	1,480	1,666	1,679	1,500	1,342	1,328	1,432	1,745	1,812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3/4분기의 마늘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상품 kg당 7월 1,430원, 8월 1,750원, 9월 1,810원), 이는 올해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17% 감소하여 마늘 생산량과 저온저장량이 작년보다 14%, 12% 각각 감소하였고, 작년 미도입분의 중국산 저율관세 수입물량도 정부가 제3국으로 전량 수출하였기 때문임.

○ 금년산 마늘 생산량 40만 6천톤에다 이월량 1만 5천톤, MMA 물량 1만 2,538톤, 중국산 저율관세물량 2만 1,190톤을 고려한 금년산 유통년도(5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총공급량은 45만 4천톤 수준으로 작년보다 약 10% 적은 수준임. 따라서 올해산 난지형 상품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약 15% 높은 kg당 1,700~1,8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비축량 9천톤을 계속 시장 격리시킬 경우 kg당 1,800~1,9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마늘 재배의향면적은 35,000ha로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 15~18일 조사치). 지역별로는 충북과 전북이 12%, 충남 10%, 전남 8%, 경남 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북은 작년과 비슷하고, 제주는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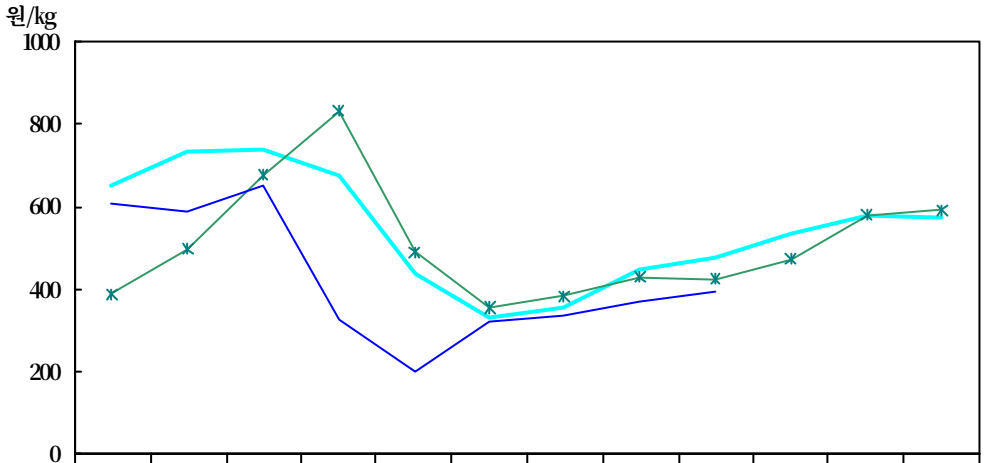
○ 재배의향면적에 평년단수를 적용할 경우, 내년산 마늘 생산량은 37만 8천톤으로 추정됨. 여기에 이월량 4천톤, 예상 수입량 3만 5천톤(MMA 물량 1만 3천톤, 관세할당물량 2만 2천톤)을 더한 총공급량은 41만 7천톤으로 금년산 총공급량보다 약 9%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내년산 마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평년 가격 수준인 난지형 상품 kg당 1,90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2.5. 양파

○ 양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366원(상품 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11%, 평년 동기보다 14% 낮은 수준임. 이처럼 양파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낮았던 것은 금년산 양파의 과잉 생산으로 저장량이 많은데다 내년산 조생종 양파의 재배의향면적도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가 및 저온저장량의 출하가 예년보다 많았기 때문임.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년	649	735	737	678	436	330	353	448	478	535	580	576
2000	386	496	679	831	490	356	384	427	424	473	580	590
2001	608	589	648	326	202	321	334	373	390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107만 4천톤으로, 이는 평년보다 20%, 작년보다는 22% 많은 수준임. 조생종은 작년 보다 80% 증가한 16만 7천톤, 중만생종은 16% 증가한 90만 7천톤이었음.

○ 저장업체의 저온저장량은 작년보다 약 15% 많은 45만톤으로 조사

되어, 저온저장량이 출하 될 10월 이후 내년 3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약 20% 낮은 400~5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3% 감소한 18,442ha로 조사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 15~18일 조사치). 도별로는 전남 5%, 경북 4%, 경남 3%, 제주가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금년의 조생종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하였던 작년에 비하여 16% 감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금년산 양파의 저온저장량도 많아 내년 조생종 수확기인 4~5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300원 이하로 전망됨.

○ 중만생종 양파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내년산 중만생종 수확기인 6~7월의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금년 동기와 비슷한 330원으로 전망됨.

2.6 대 파

○ 대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080원으로 지난 2/4분기보다 50%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29%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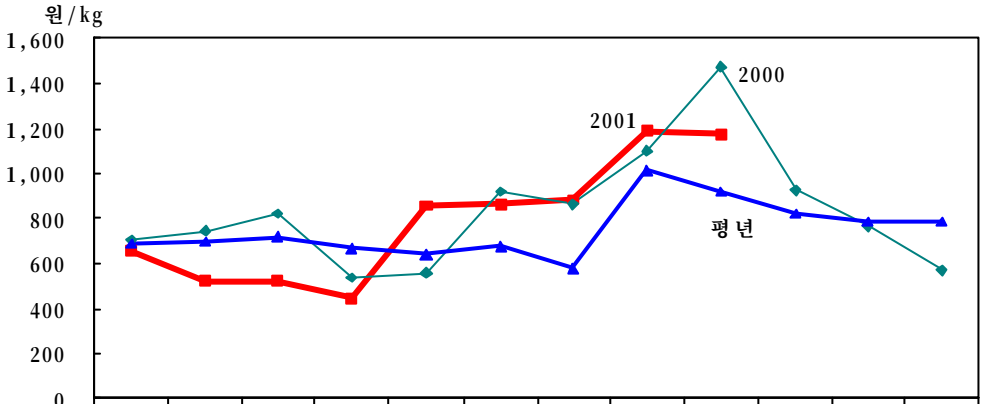
○ 7~8월 주 출하지역인 경기 지방에 국지성 집중호우와 고온이 반복되어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10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4% 많으나 예상단수가 6% 감소할 것으로 보여 10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상품 930원/kg)보다 약간 높은 1,000원 내외의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김장철인 11월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와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생육상황이 나쁜 편이어서 가격은 작년 11월보다 약간 높은 평년 가격(상품 780원/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남부지방의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하여 8% 증가하였으나, 금년에는 작년보다 13% 감소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가격보다 높은 평년 수준(상품 700원/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657	519	519	447	858	865	881	1,188	1,175			
2000	700	741	821	539	554	920	860	1,099	1,473	927	768	569
평년	690	693	717	671	643	675	574	1,018	915	820	784	786

주: 평년가격은 1996.1~2000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7 쪽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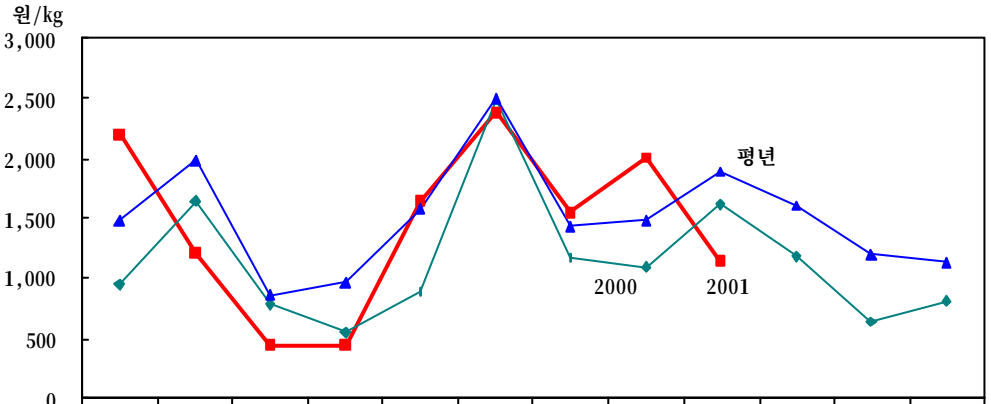
○ 쪽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1,570원으로 지난 2/4분기보다는 5% 높았으나, 평년 동기보다는 2% 낮은 수준이었음.

○ 10월에 출하되는 가을쪽파 출하량은,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보다 2%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예상단수가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10월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상품 1,200원/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김장철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어, 11~12월의 도매가격은 작년 수준(상품 700원/kg)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겨울철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겨울철 주출하지인 전남과 제주의 재배면적이 작년에는 재작년에 비해 각각 41%, 24% 증가하였으나, 금년은 작년보다 7%, 14% 감소에 그칠 것으로 조사되어 내년 1~4월에 출하될 쪽파 가격은 작년보다 높겠으나 평년 가격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됨.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2,202	1,208	442	443	1,647	2,393	1,548	2,011	1,146			
2000	950	1,650	781	554	882	2,492	1,172	1,096	1,617	1,187	641	805
평년	1,492	1,985	860	965	1,572	2,508	1,432	1,489	1,886	1,604	1,206	1,137

주: 평년가격은 1996.1~2000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8 감 자

○ 감자 수미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kg상자당 11,200원으로 2/4분기보다는 42% 낮고, 평년 동기보다 15%, 작년동기보다 33% 높은 수준임.

○ 감자 가격이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이 작년보다 감소하였고, 생육기 가뭄으로 작황도 부진하였기 때문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7월 재배면적 조사결과, 금년 고랭지감자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감소한 4,890ha 내외인 것으로 추정됨.

○ 농업관측센터 조사결과, 10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하고, 11~12월에는 4%, 내년에는 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8~9월 고랭지감자 가격이 높아 농가들이 예년보다 저장량을 줄이고 출하를 앞당기고 있음.

○ 9~10월에 출하될 고랭지감자(수미)의 예상단수는 작년보다 약 7% 감소한 3,470kg/10a 내외임.

○ 10월의 고랭지감자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6% 적을 것으로 추정되어, 10월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 가격(수미 상품 7,850원/20kg)보다 높은 평년 수준(10,700원/20kg)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가을감자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3%, 평년보다는 5% 감소한 5,270ha 내외로 조사됨. 9월의 감자 가격이 높아 8월에 비해 파종면적이 더 늘어났는데, 특히 경남 지방이 장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어지면서 대폭 증가함.

○ 금년산 가을감자(대지)의 예상단수는 파종 및 생육기인 8~9월에 태풍이나 장마피해가 없어서 작년보다 17%, 평년보다는 6% 증가한 1,690kg 내외가 될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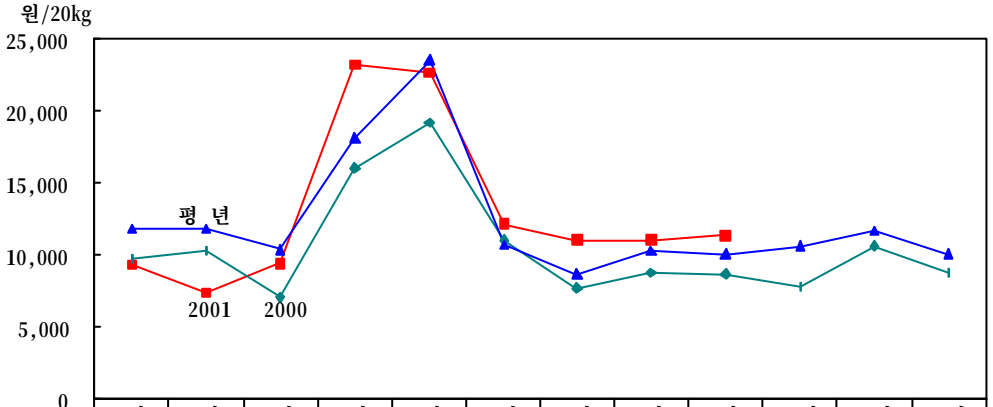
○ 추정재배면적에 예상단수를 곱한 금년 가을감자 생산량은 작년보다 14%, 평년보다는 4% 많은 8만 8천톤~8만 9천톤 내외로 전망됨.

○ 가을감자의 11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29% 많고, 12월 이후에는 10%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11~12월 가격은 작년 동기 수준(대지 상품 19,100원/20kg)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내년산 제주도 겨울감자 재배의향면적은, 최근 2~3년간 가격이 낮아서 경영이 어려워진 대규모 농가들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줄임에 따라, 작년보다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겨울감자의 대체 작목으로 보리, 마늘 등이 재배될 것으로 나타남.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1	9,307	7,348	9,490	23,313	22,731	12,120	11,080	11,130	11,385			
2000	9,780	10,364	7,094	16,114	19,208	11,120	7,740	8,856	8,739	7,850	10,615	8,788
평년	11,817	11,895	10,448	18,180	23,549	10,805	8,663	10,358	10,107	10,679	11,780	10,126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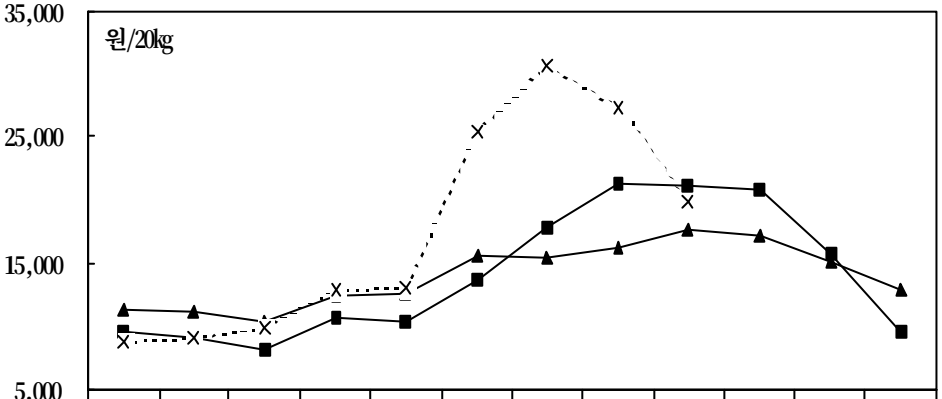
2.9. 당근

○ 3/4분기의 당근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26,000원(상품기준)으로 작년 동기보다 30% 높고, 평년 동기보다는 58% 높은 수준임.

○ 7~8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주출하지역인 경남, 충남지방의 발아기인 5월에 가뭄으로 발아율이 낮아 출하량이 적었고, 고랭지의 가뭄과 고온으로 작황이 나빠지면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9중순이후 가격이 낮았던 이유는 고랭지 지역의 가뭄이 해소되면서 작황이 좋아졌고, 출하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 10월에는 출하가 지연되었던 고랭지당근 출하가 몰려 출하예상면적이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11월에는 출하예상면적이 작년동기보다 적어 11월 도매가격은 작년시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년가격	11,317	11,192	10,402	12,385	12,623	15,563	15,429	16,188	17,691	17,083	15,158	12,880
2000년	9,580	9,045	8,135	10,645	10,333	13,700	17,769	21,185	21,063	20,788	15,692	9,556
2001년	8,783	9,063	9,963	12,840	13,000	25,360	30,800	27,352	19,846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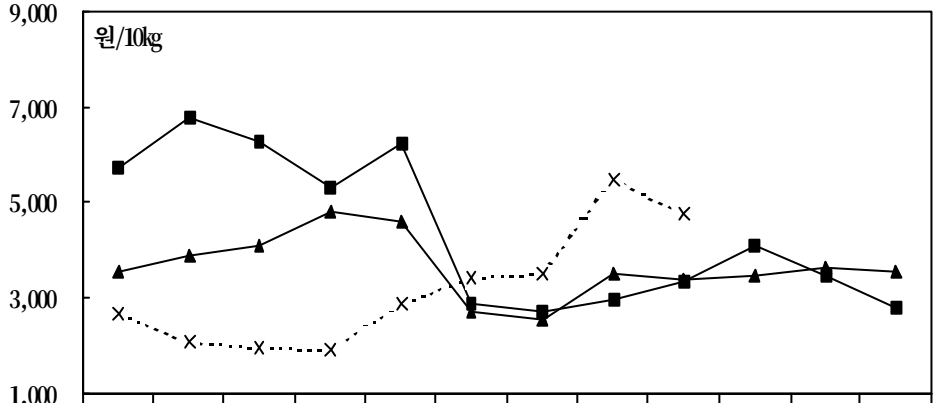
○ 7~8월에 파종된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주산지인 제주가 5% 감소하고, 충청은 6%, 영남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2.10. 양배추

○ 3/4분기 양배추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4,57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2% 높고, 평년동기보다는 45% 높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이 높았던 것은 예년에는 7월 상순부터 출하되던 충남과 강원 등 중부지방의 가뭄으로 정식이 지연되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평년가격	3,561	3,880	4,087	4,778	4,603	2,700	2,552	3,511	3,382	3,458	3,616	3,543
■ 2000년	5,698	6,791	6,246	5,289	6,225	2,895	2,713	2,970	3,329	4,096	3,442	2,793
× 2001년	2,652	2,100	1,943	1,914	2,872	3,416	3,488	5,470	4,744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금년 10월 예상출하량은 작년동기보다 많아 10월 도매가격은 작년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11월 출하예상면적은 작년동기보다 적어 11

월 가격은 작년동기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

○ 12월 이후 내년 초까지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적으나 작황이 좋아 겨울철 출하예상량은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12월 이후 내년 초까지의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8~9월 정식된 겨울 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지역별로는 충청이 9% 감소하고, 호남은 11% 감소, 제주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의 경우 정식시기가 8월에서 9월로 지연되었음.

3. 과일류 동향[3)]

3.1. 사과

○ 금년산 쓰가루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출하되어 8월 가격은 상품 15kg당 23,410원, 9월 가격은 25,950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10~20% 높은 수준임. 홍로 8~9월 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3~6천원으로 쓰가루보다 40% 높은 수준임. 가격이 지난해 및 평년보다 높은 것은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한데다 과실의 크기가 지난해보다 크고 균일하며 당도도 높아졌기 때문임.

○ 성목면적이 10% 감소하고, 단수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2% 적은 43만톤 수준이 될 전망. 8~10월까지의 공급량은 지난해 보다 9% 적은 17만톤 수준으로 추정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부연구위원(yslee@krei.re.kr), 김윤형(yonhk2), 박재홍(jhpark), 이은숙(lee523)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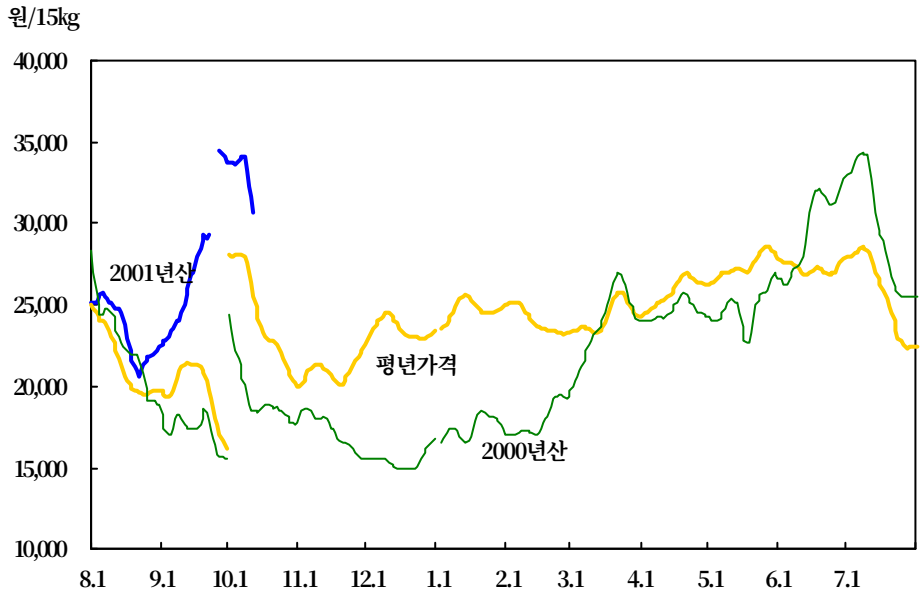
되며, 11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3% 적은 26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사과 공급량 추정

(단위 : 천톤, %)

		생 산 량 (A)	8~10월 공급량(B)	수출량 (C)	11월이후 공급량 (A-B-C)
공급량	'00년산	489	185	4.3	300
	'01년산	433	168	3.0	262
'01/'00 감소율		-11.5	-9.2	-30.2	-12.6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 8~9월은 쓰가루, 10~익년 7월은 후지 기준이며,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8~01.7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9% 감소한 2만 6,3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는 후지와 쓰가루가 각각 11%, 12% 줄고, 중생종인 홍로가 1%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올해 사과 성목면적은 지난해 보다 10% 적은 1만 9,2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는 후지와 쓰가루가 각각 14%, 16% 줄어든 반면 홍로와 기타 품종은 각각 7%,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3.2. 배

○ 배 공급량은 지난해 보다 늘어 9월 신고 가격은 상품 15kg당 23,846원으로 지난해 및 평년에 비해 30% 낮은 수준임.

○ 성목면적은 11% 늘었고 단수도 3% 높아,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4% 많은 37만톤 수준. 9~10월까지 출하량은 추석 공급이 크게 늘어 지난해 보다 33%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11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 보다 4% 정도 많은 22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배 공급량 추정

(단위 : 천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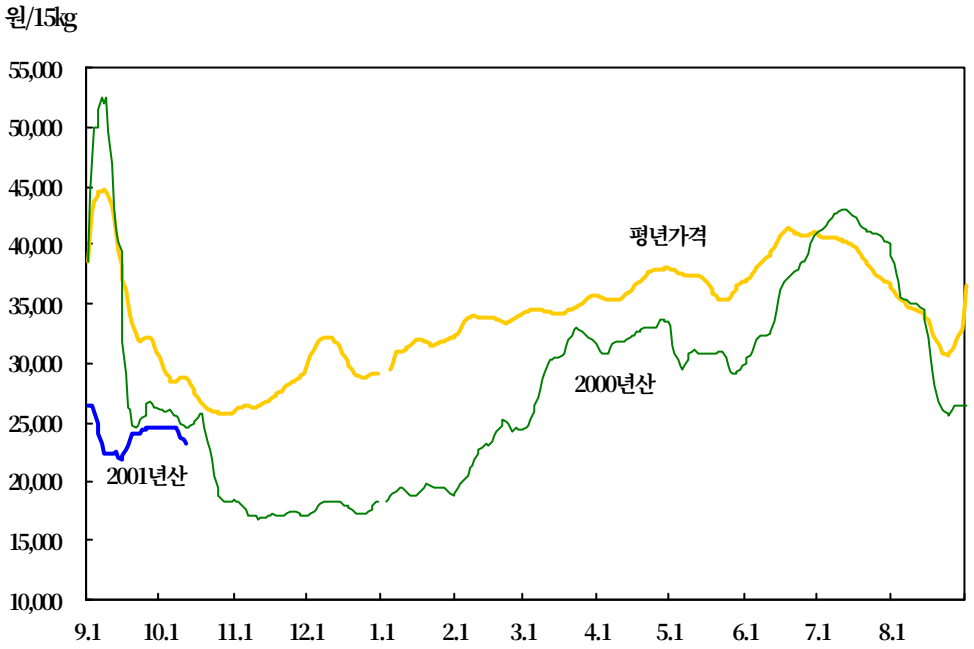
		생 산 량 (A)	9~10월 공급량(B)	수출량 (C)	11월 이후 공급량 (A-B-C)
공급량	'00년산	324	100	10.2	214
	'01년산	370	133	14.4	223
'01/'00 증가율		14.2	33.2	41.4	4.1

○ 올해 재배면적은 지난해(2만 6,206ha)보다 3% 감소한 2만 5,5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는 신고와 장십랑은 지난해보다 각각 3%, 6% 정

도 감소하고 조·중생종인 원황과 황금배는 각각 1%, 2%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성목면적은 지난해 보다 11% 늘어난 1만 4,800ha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신고와 황금배, 원황 면적은 각각 14%, 13%, 8% 늘었고, 장십랑은 7%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6.9~'01.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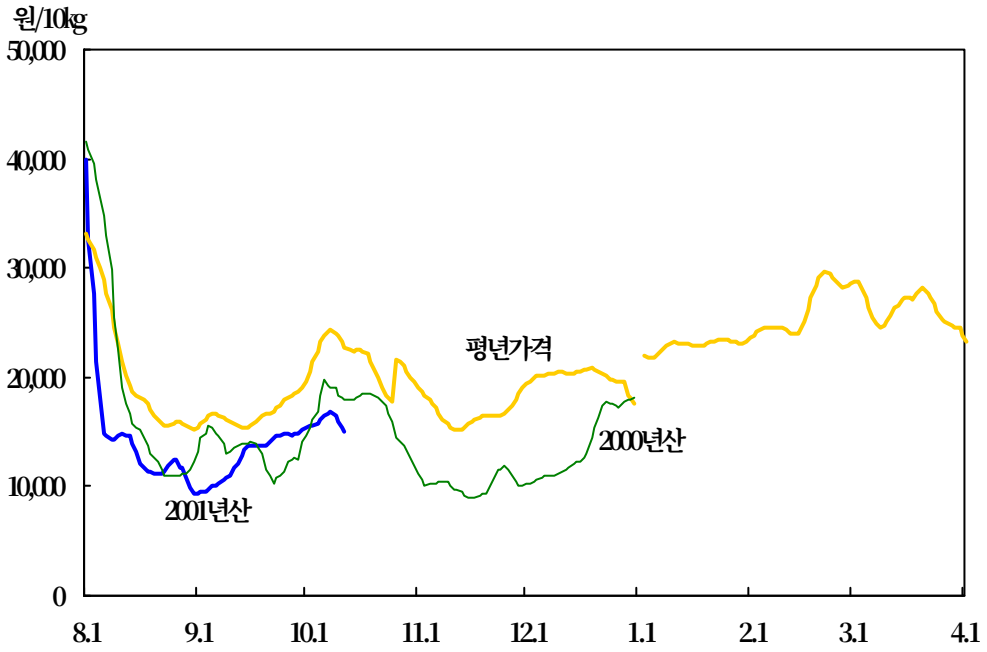
3.3. 포도

○ 3/4분기 상품 5kg당 캠벨가격은 8월 11,320원에서 9월 7,560원으로

하락함. 추석에는 9천원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지난해보다는 2% 정도 낮은 가격임. 반면 거봉가격은 8월 중순까지 상품 4kg당 1만 7천~8천원에서 하순이후 1만원대 안팎으로 낮아졌지만 지난해보다는 50~60% 높은 수준임.

○ 캠벨가격이 낮은 것은, 8월에는 일조량이 많아 지난해 보다 수확시기가 빨라져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이며, 9월 이후에는 지난해보다 공급량은 적었지만 배, 복숭아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 수요가 대체되었기 때문임. 거봉가격이 높은 것은 동해피해로 수확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해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95.9~'00.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올해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5% 감소했으나 기상조건이 좋아 단수는 4%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47만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전체 생산량 중 생과 출하량은 약 92%, 가공량은 2%, 저장량은 6%일 것으로 추정. 이는 올해 포도의 품질이 좋아 가공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고 생과 출하량이 약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저장량은 지난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캠벨은 10월까지 대부분 출하될 것으로 보이고, 재배면적 감소로 세단 저장량은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보임.

포도의 이용형태별 물량 추정

(단위 : 천톤, %)

		전체	생과출하	가공	저장
생산량	'00	475(100.0)	429(90.2)	23(4.8)	24(5.0)
	'01	470(100.0)	432(92.1)	8(1.7)	29(6.2)
증감율(%)		-1.3	0.9	-65.0	21.2

주 : ( )는 전체생산량 중 이용형태에 따른 비율임.

○ 올해 비가림 재배면적은 전체재배면적의 약 45%로 지난해보다 4%p 늘어난 수준이며, 봉지포도는 약 38% 수준으로 늘어났고, 접목묘 재배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 8% 정도가 도입된 것으로 나타남.

포도 재배방법의 채택 비율

(단위 : %)

	비가림	봉지	접목
'00(a)	40.3	35.1	6.0
'01(b)	44.5	38.2	8.1
b-a(%p)	4.2	3.1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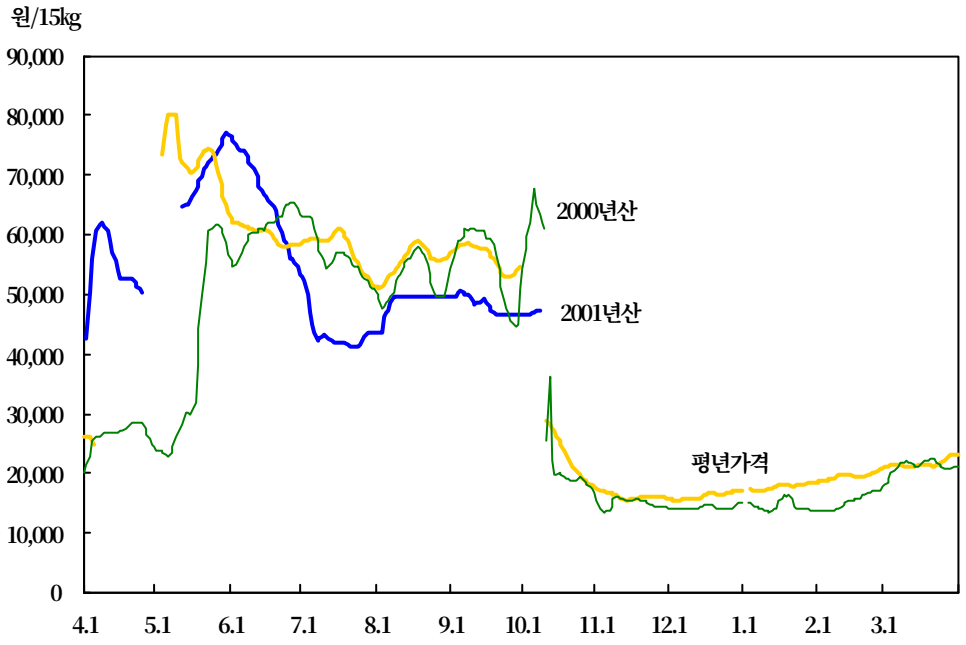
주 : 재배방법별 재배면적에 대한 채택 비율임

○ 이들 재배기술은 포도의 품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농약 사용을 줄여 내년 이후에도 도입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3.4. 감귤

○ 감귤 도매가격은 상품 5kg당 7월 4만 3,400원, 8~9월 4만 8,100~4만 8,700원 수준이었음. 이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7월은 23%, 8~9월은 7~12%씩 각각 낮은 수준이고, 평년 같은 시기보다는 7월은 25%, 8~9월은 12~15%정도씩 낮은 수준이었음.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95~'01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치임.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월동재배 및 하우스감귤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감귤가격이 작년과 평년보다 낮았던 것은, 후기가온 및 무가온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산지 출하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증가했고, 복숭아, 포도, 배 등 대체 과일의 공급량이 증가와 함께 품질도 좋아 감귤수요가 상당부분 다른 과일로 대체되었기 때문임.

○ 6~9월 오렌지 수입량은 6,700톤 수준으로 작년과 평년(1997~2000년)동기보다 크게 적었음. 오렌지 수입량이 작년과 평년 보다 크게 적었던 것은 현지가격과 환율이 높아 수입원가가 높았기 때문임. 7~9월 오렌지의 국내시장가격은 발렌시아 상품 18k당 3만 3,700~4만 1,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33~54%정도 높은 수준이었음. 따라서 감귤에 대한 오렌지의 상대가격은 지난해 보다 높았음. 올해 감귤의 당도는 지난해 보다 높고 산도는 낮아, 감귤 맛은 지난해 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됨.

○ 금년 노지감귤의 수확가능면적은 '휴식년제'의 도입, 품종갱신, 폐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9% 적은 2만 600ha수준으로 추정되고, 단수는 4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결실량은 지난해 보다 31% 늘어난 69~71만톤 수준이 될 전망. 제주도가 추진하는 열매따기가 80~100%정도 달성된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노지감귤의 최종적인 수확량은 62~64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노지감귤 생산 전망

(단위 : 천ha, 톤, %)

	수확가능면적	단 수	생 산 량
'00년산	22.7	2,361	536
'01년산	20.6	3,398	700
'01/'00 증감율	-9.2	43.9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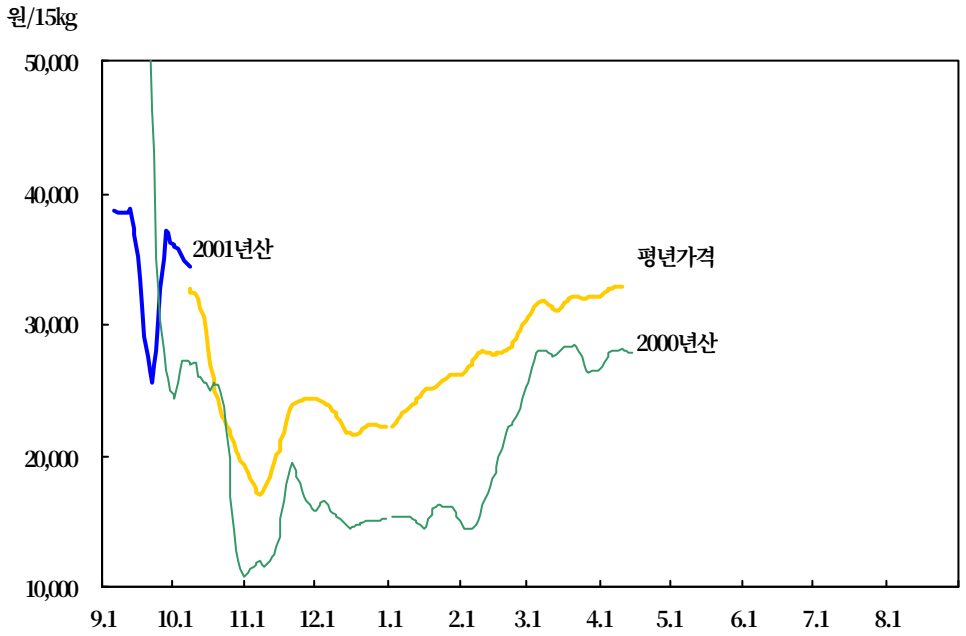
○ 올해는 풍작해로 공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1월 이후 사과, 단감 등 대체과일의 공급량과 올해산 오렌지 수입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

됨. 또한 품질이 좋을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감귤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지 않을 전망. 2001년산 캘리포니아 네이블 오렌지 생산량은 지난해 보다 11%정도 적은 109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3.5. 단감

○ 서촌, 상서 등 조생종단감의 9월~10월 상순 도매가격은 상품 15kg당 3만 4천원~3만 4,300원 수준으로 9월에는 지난해 보다 9% 낮은 수준이었으나 10월 상순에는 지난해 보다 19% 높은 수준임. 10월 상순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것은 출하량이 적고 품질도 좋기 때문임.

단감 도매가격동향(상품)



주 :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이동평균임. 평년가격은 '96.9~'01.4월 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농진청의 7월 하순 ~ 8월 중순 착과상황 조사결과, 단감 착과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10a당 착과량은 평균 11,558개로 전년(12,878개)보다 10%, 평년(12,878개)보다 5%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경남 사천·진주, 전남 광양·순천지역에서 착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단감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4%정도 감소한 2만 2,800ha정도가 되고, 성목면적은 2%정도 증가한 1만 6,800ha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됨. 품종별로는 지난해보다 부유, 차랑, 서촌조생이 4~6%정도씩 감소하고 기타품종은 4%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로는 영남, 호남, 제주에서 줄었으나, 경기·강원, 충청지역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올해 단감의 예상단수는 저온피해와 가뭄 등으로 지난해보다 10%정도 감소하여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 정도 적을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 생산량은 서촌조생과 만생종인 부유, 차랑이 각각 7~8% 감소하고, 중생종의 비율이 높은 기타품종이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역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경남, 경북, 전남이 각각 8, 13, 7%정도 감소하고, 제주, 충남이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감 생산전망

(단위:ha, kg/10a, 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0년산	16,463	1,381	227,394
'01년산	16,791	1,250	209,888
'01/'00 증감율(%)	2.0	-9.5	-7.7

○ 올해는 성숙기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충분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지난해와 평년수준보다 높고, 색택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고온·건조

한 날씨로 인하여 전남과 경북, 경남일부지역에서 과일크기가 지난해보다 작고 균일성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4. 과채류[4)]

4.1. 오 이(취 청)

○ 취청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7월 26,500원, 8월 27,900원, 9월 17,200원이었으며 3/4분기 가격은 7월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 낮았고, 8월이 32% 높았고, 9월은 35% 낮았음. 7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취청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늘었기 때문이며, 8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줄었기 때문임. 9월 상·중순가격이 지난해와 평년 보다 낮았던 것은 올해 기상조건이 좋아 출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하순가격이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은 일교차가 커지면서 생육이 부진하여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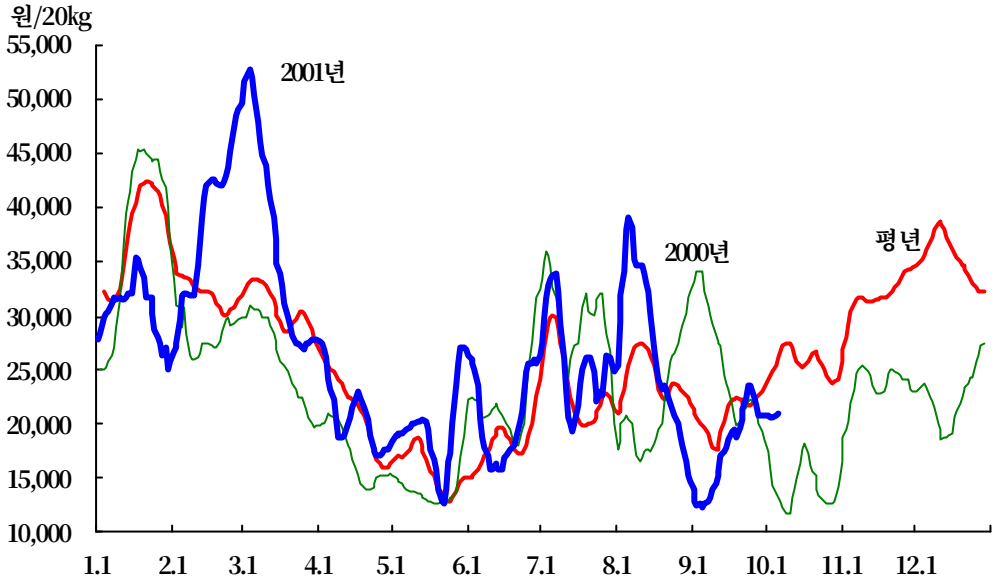
○ 10월 취청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 보다 5~6% 줄고, 취청의 예상단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여, 10월에 출하될 취청 물량이 지난해 보다 5~7% 적을 것으로 보여 10월 취청 가격은 지난해 보다 높고 평년보다는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11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4% 적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지난해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10월 취청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보다 5% 내외 줄어들고, 11월은 3% 내외 줄어들 것으로 조사되었음. 10~11월의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은 겨울철 유가상승 우려로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가 늘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연중 부연구위원(yjkim@krie.re.kr), 한석호 연구원(shoha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오이(취청)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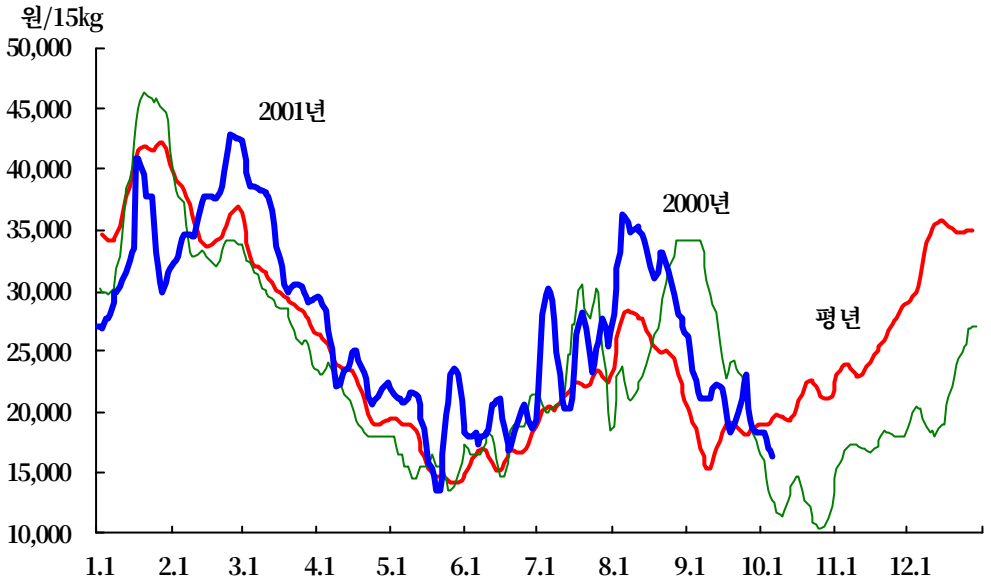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2 오 이(백다다기)

○ 백다다기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25,200원, 8월 32,100원, 9월 21,700원으로 7, 8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았고, 9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 낮았음. 7월 상순가격이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적었기 때문이고, 중·하순 가격에는 출하량이 적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요가 줄어 내림세로 거래되었음. 8월 가격이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은 장마가 끝나고 고온 다습한 날씨로 오이의 생육이 저하되어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9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올해 기상이 좋아 정식된 면적 모두 출하되어 출하량이 지난해 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임.

오이(백다다기)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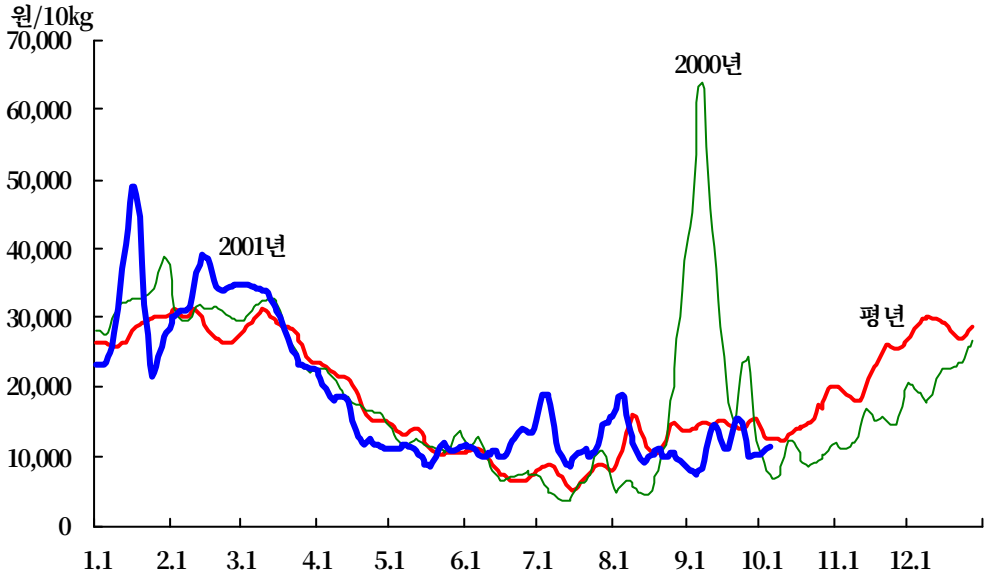
○ 10월 백다다기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 보다 2~5% 줄어들고, 예상단수도 지난해 보다 3% 정도 낮아, 10월에 출하될 물량은 지난해 보다 4~10%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백다다기 가격은 지난해 수준보다 높고 평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 11월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5% 정도 적을 것으로 보여 11월 가격은 지난해 보다 높을 전망.

○ 10월의 백다다기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3~4% 줄어들고, 11월에는 지난해보다 1~3%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음. 10~11월의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됨.

4.3. 호 박(애호박)

○ 애호박의 3/4분기 도매가격은 8kg 상품기준으로 7월 10,280원, 8월 10,200원, 9월 9,000원이었으며 3/4분기 가격은 7, 8월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았고, 9월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았음. 7, 8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출하면적이 지난해보다 줄었고, 단수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이고, 9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지난해에 태풍피해로 출하예정면적이 크게 줄어 출하량이 적었으나, 올해에는 태풍피해가 없어 정식된 면적이 모두 출하되어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고, 2000년 7~10월 가격과 2001년 7~9월 가격은 상품 8kg상자가격을 10kg단위로 환산한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애호박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 보다 5% 정도 줄고, 예상단수도 가뭄

으로 충해발생이 많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 낮아, 출하물량은 지난해 보다 10% 정도 적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7,700원/8kg)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1월에 출하될 애호박의 물량은 지난해 보다 1% 정도 적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지난해(11,000원/8kg)수준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10월 애호박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4~5% 줄고, 11월은 2~3% 줄어들 전망임. 애호박의 10~11월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지난해 11~12월 애호박 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았기 때문임.

4.4 호 박(쥬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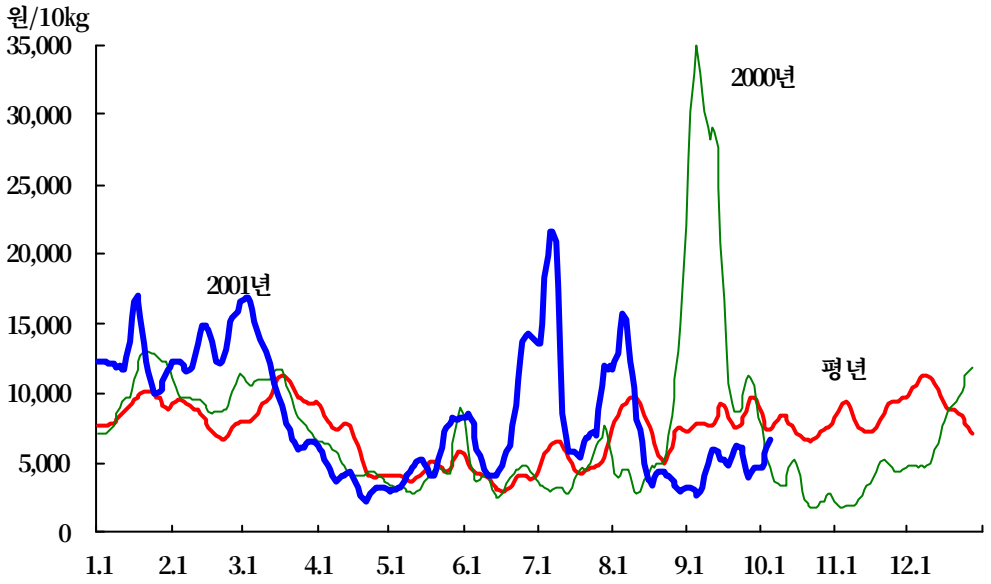
○ 쥬키니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7월 11,300원, 8월 8,200원, 9월 4,500원이었으며 7, 8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시기 보다 높았고, 9월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았음. 7월 가격이 지난해 보다 높았던 것은 출하면적이 지난해 보다 줄어들었고, 단수도 지난해 수준 이하로 떨어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8월 상순 가격이 높았던 것은 지난해 보다 출하량이 7% 정도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8월 중·하순의 가격이 상순에 비해 낮았던 것은 지난해보다 출하량이 증가하였고,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임. 9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지난해에 태풍피해로 출하예정면적이 크게 줄어 출하량이 적었으나, 올해에는 태풍피해가 없어 출하량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났기 때문임.

○ 10월의 쥬키니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보다 15% 정도 줄어들고, 예상단수도 가뭄으로 충해발생이 많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 낮아, 10월 출하될 쥬키니 물량은 지난해 보다 17% 적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격은 지난해(4,000원) 수준보다 높은 평년수준(7,4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11월에 출하될 쥬키니 물량도 9% 정도 적을 것으로 보여 지난해

(3,300원)수준 보다 높은 평년 수준(8,600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10월의 쥬키니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4~8% 줄어들고, 11월에는 지난해보다 2~9%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음. 10월의 쥬키니 정식의향면적이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11~12월 가격이 예년보다 매우 낮았기 때문임.

호박(쥬키니)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5.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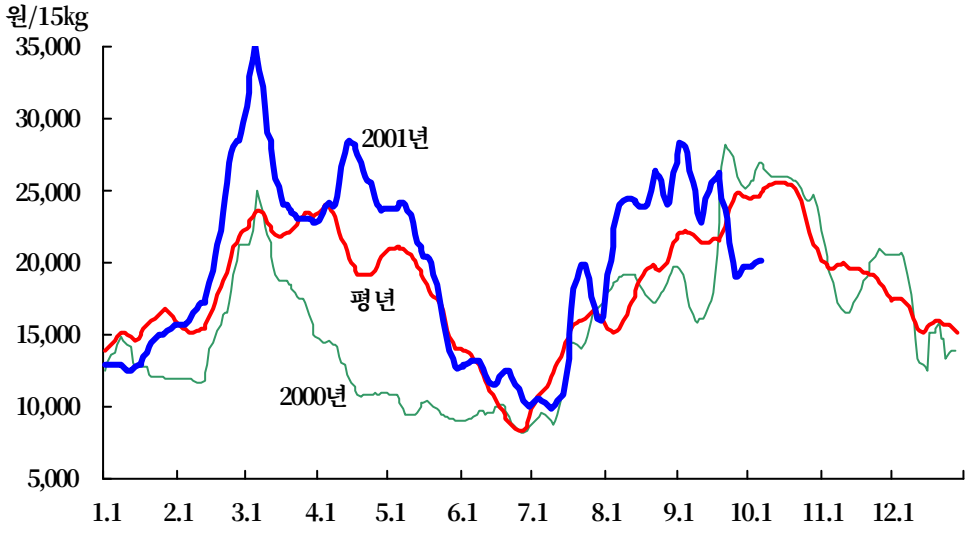
○ 토마토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13,800원, 8월 23,200원, 9월 24,300원으로 3/4분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았음. 7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적었고 품질이 매우 좋았기 때문이며 8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은 비슷하지만 더운 날씨로 인해 소비가 증가

했기 때문임. 9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은 많았지만 품질이 좋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토마토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 한편 11월 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나 토마토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을 전망.

○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보다 1%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고, 11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 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남. 11월 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드는 이유는 겨울재배를 준비하는 농가들이 유류비와 가격 불안으로 인해 무가온작물로 전환하거나 정식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임.

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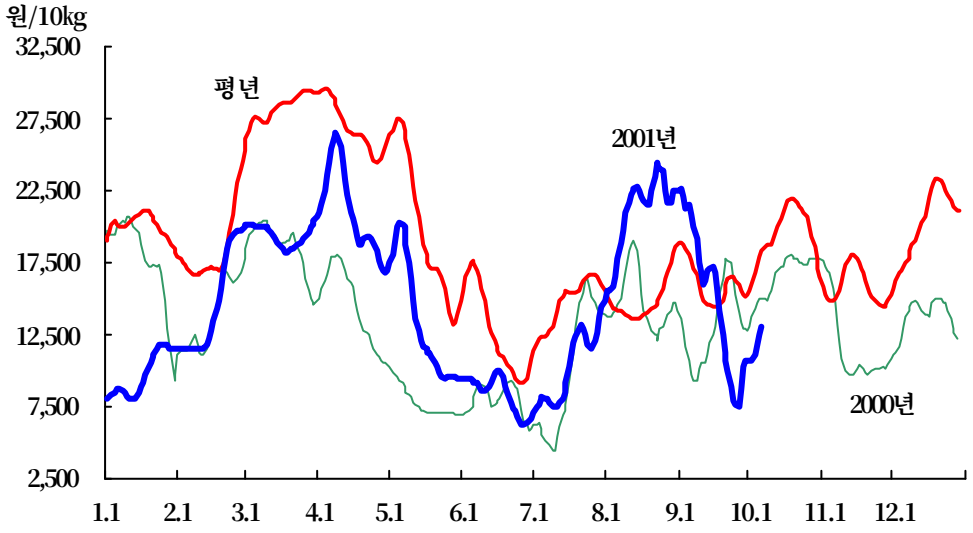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6. 방울토마토

○ 방울토마토의 3/4분기 도매가격은 10kg 상품기준으로 7월 9,800원, 8월 20,600원, 9월 15,500원으로 3/4분기 가격은 7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았고, 8월, 9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았음. 7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많았고 품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며 8월, 9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은 다소 많았지만 품질이 좋았고 수요가 많았기 때문임.

○ 10월에 출하될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방울토마토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질 전망. 11월 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을 것으로 나타나 11월 방울토마토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을 전망.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1월에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 줄어들 것으로 조사됨. 11월 정식의향면적이 감소하는 이유는 유류비 부담으로 인해 농가들이 정식시기를 8월이나 이듬해 1월로 변동했기 때문임.

4.7. 참외

○ 참외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올해 참외 재배면적은 지난해(10,203ha)보다 3% 정도 줄어든 9,920ha가 될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정식의향면적이 줄어든 것은 참외소비가 둔화되어 지난해 참외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임.

○ 3/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15kg 상품기준으로 7월 18,140원, 8월 17,463원, 9월13,000원으로 3/4분기 가격은 7, 8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았고, 9월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낮았음. 7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참외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줄었기 때문이며, 8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아 소비가 증가했고 대체과일물량이 지난해보다 적었기 때문임. 9월 참외가격이 낮았던 것은 지난해 참외가격이 좋지 않아 연장재배를 포기하거나 타작목으로 전환했던 농가가 올해는 가격이 좋아 작물관리를 잘해서 재배기간을 연장시켰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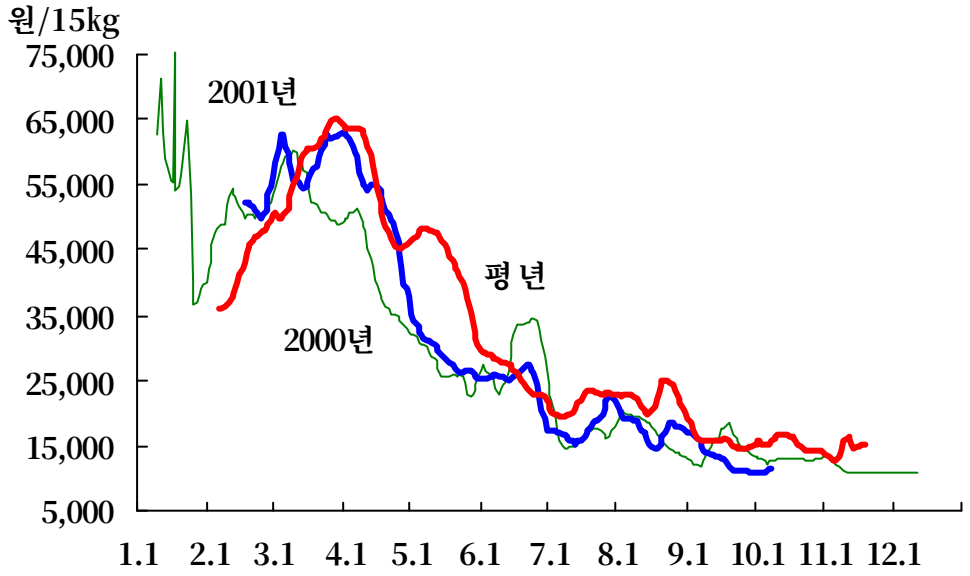
○ 참외 11월 정식의향면적은 올해 참외가격이 좋아 지난해보다 7% 늘고, 12월은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임. 또한 정식시기가 보름이상 앞당겨 비용을 절감하여 소득을 높이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올해 10월에 출하될 참외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 많아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공급전망>

	단위	2000	2001	전년대비
재배(의향)면적	ha	10,203	9,920	-2.8%

참외 도매가격 동향(상품기준)



주: 평년가격은 '96~'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 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 평균치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8. 수박

○ 금년 수박의 재배면적은 지난해(30,451ha)보다 4% 정도 감소한 29,100ha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작형별로는 시설면적이 지난해

(20,952ha)보다 2% 줄어든 20,500ha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노지면적은 지난해(9,499ha)보다 9% 정도 줄어든 8,600ha일 것으로 추정.

○ 3/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6kg 상품기준으로 7월 3,488원, 8월 3,354원, 9월 4,552원 이었으며 2/4분기 가격은 7, 9월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았고, 8월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았음. 7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마로 소비가 감소 한데다가 대체과일인 자두, 복숭아 등 햇과일이 조기 출하됨에 따라 대체과일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았기 때문임. 8월 가격이 높았던 것은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을 뿐만 아니라 대체과일물량도 지난해보다 적었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임. 9월 가격이 낮았던 것은 기온상승으로 출하가 일주일이상 앞당겨지면서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많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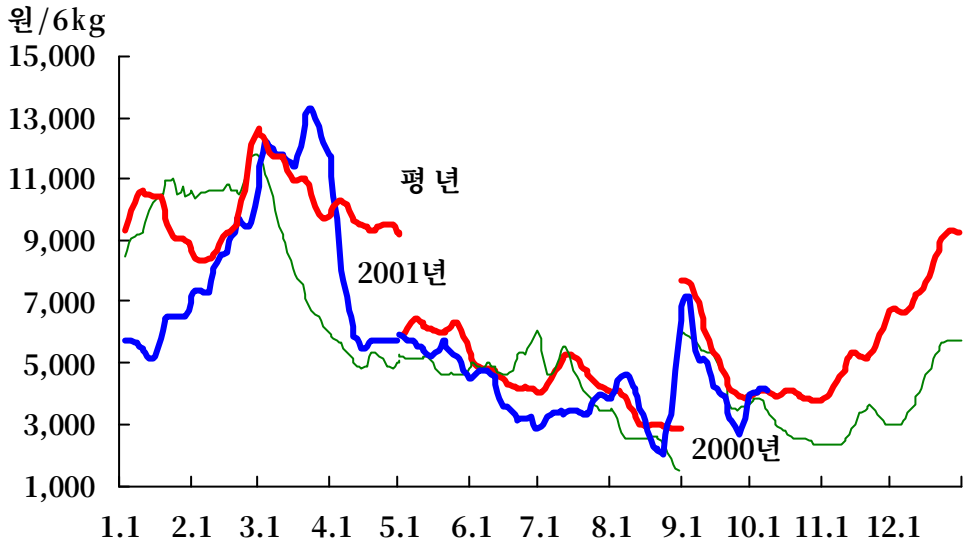
○ 수박 10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8%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11월 정식의향면적은 9%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1월 수박 정식의향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1월 가격이 낮고, 2월 하순부터 3월까지의 수박가격이 높아 지난해 1월에 정식했던 농가가 올해는 11월로 정식시기를 약 한달 이상 앞당기려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임.

<공급전망>

	단위	2000	2001	전년대비
재배(의향)면적	ha	30,451	29,100	-3.8%
하우스 재배면적	ha	20,952	20,500	-2.2%
노지 재배의향면적	ha	9,499	8,600	-9.4%

○ 2001년 10월 수박 출하량은 출하예정면적이 줄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품질도 좋아 지난해 같은 시기(상품 10kg당 4,900원)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수박 도매가격 동향 (상품기준)



주: 일별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가격은 1996~2000년의 일별가격 중 최대 와 최소를 뺀 평균임. 일별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 평균치임. 9월~익년4월까지는 상품 10kg 상자가격을 6kg 단위로 환산한 수치임.

자료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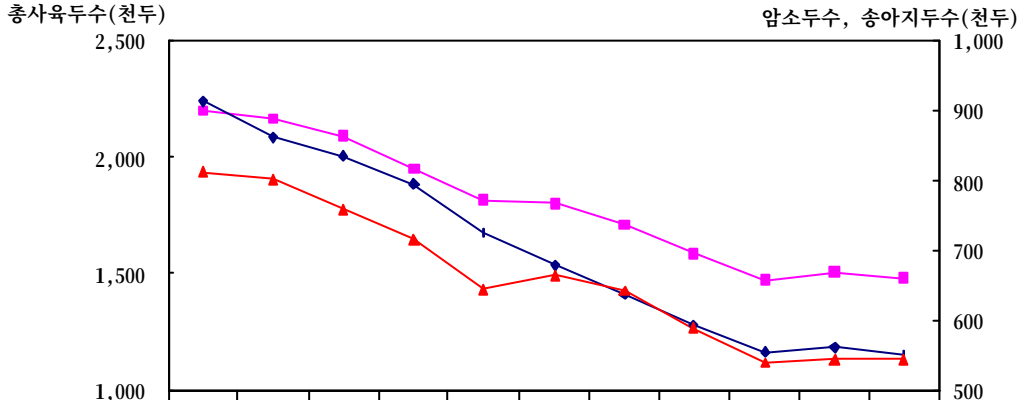
5. 축산[5]

5.1. 한육우

○ 2001년 9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48만 5천두로 6월보다 2만2천두(△1.5%) 감소되었고, 전년동기에 비해 22만 8천두(△13.3%)가 감소되었음. 2001년 9월 중·소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조금 증가하였음.

○ 사육가구수는 9월 24만 7천호로 3개월전보다 1만 3천호(△5.0%) 감소하였고, 전년동기보다는 5만 8천호(△19.0%) 감소하였음. 사육가구수가 사육마리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호당사육마리수는 9월에 6.0두로 6월에 비해 0.2두(3.4%) 증가하였음.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99.3	6	9	12	00.3	6	9	12	01.3	6	9
총사육두수	2,198	2,167	2,094	1,952	1,819	1,801	1,713	1,590	1,476	1,507	1,485
2세이상암소	913	862	834	794	726	678	639	593	556	562	552
송아지두수	812	801	758	717	646	665	642	590	540	544	544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신승열 부연구위원(syshin@krei.re.kr), 최윤상 초청연구원(yschoi@krei.re.kr), 전상곤 연구원(sangjun@krei.re.kr), 성동현 연구원(dhsu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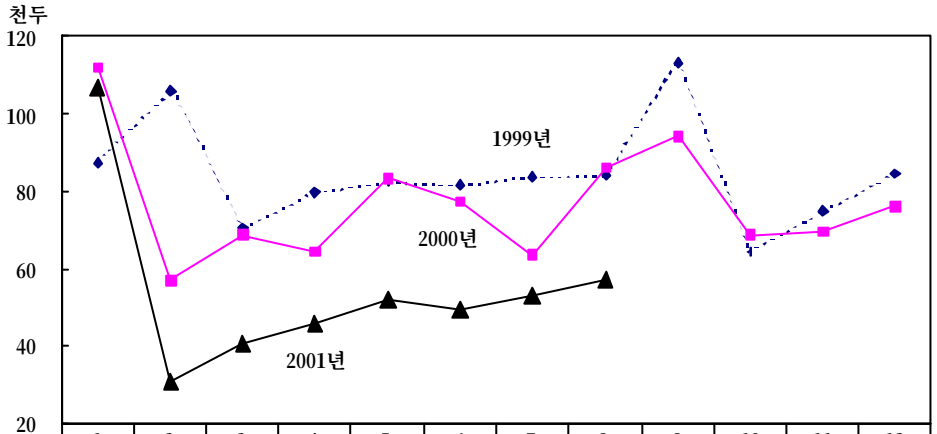
○ 2001년 9월 사육규모별 사육호수를 살펴보면,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수가 많이 감소하였음.

- 50두미만 : ('01.3) 263천호 → ('01.6) 256 → ('01.9) 243
- 50두이상 : ('01.3) 4.0천호 → ('01.6) 3.9 → ('01.9) 3.9

○ 2001년 9월 가임암소두수는 63만 8천두로 전분기에 비해 1만 3천두(△2.0%) 감소하였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0만두(△13.6%) 감소하였음.

○ 9월 한육우 사육두수가 다소 감소한 것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여 도축두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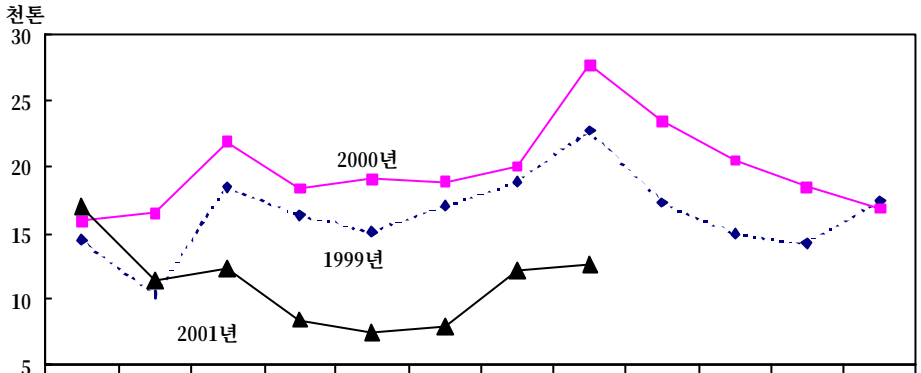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99년	87	106	71	80	82	82	84	84	113	64	75	84
2000년	112	57	69	65	83	77	63	86	94	69	70	76
2001년	107	31	41	46	52	50	53	57				

자료: 농림부.

○ 연초의 BSE(일명 광우병) 파동과 사육두수 감소로, 금년 1~8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29% 감소하였고, 쇠고기 수입은 작년 동기에 비해 44% 감소, 소비회복으로 한육우 도축두수

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수입육의 소비기피현상은 8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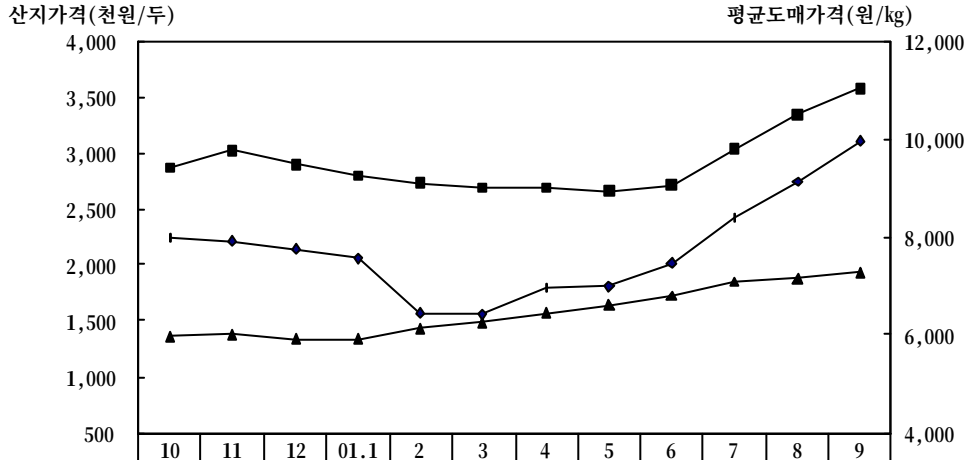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99년	14	10	19	16	15	17	19	23	17	15	14	17
2000년	16	17	22	18	19	19	20	28	24	21	19	17
2001년	17	11	12	8	8	8	12	13				

자료: 육류수출입협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10	11	12	01.1	2	3	4	5	6	7	8	9
큰소가격	2870	3029	2900	2807	2730	2693	2690	2665	2714	3034	3344	3585
송아지가격	1364	1372	1339	1335	1428	1497	1580	1640	1732	1855	1875	1931
평균도매가격	7995	7927	7748	7584	6452	6412	6970	6989	7483	8388	9119	9972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 금년 상반기 광우병 파동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산지수소가격은 5월에 260만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점차 소비가 회복되면서 9월에 360만원대, 10월 중순에는 390만원대까지 상승함.

- 도매시장 평균경락가격은 소비 위축으로 3월에 6,4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소비회복으로 9월에는 9,900원대, 10월 중순에는 10,900원대까지 상승함.

- 큰수소값(천원/500kg) : ('01. 3) 2,692 → ('01. 6) 2,714 → ('01. 9) 3,585
- 큰암소값(천원/500kg) : ('01. 3) 2,974 → ('01. 6) 3,120 → ('01. 9) 3,857
- 수송아지가격(천원/두) : ('01. 3) 1,498 → ('01. 6) 1,732 → ('01. 9) 1,931
- 쇠고기평균경락가격(원/kg) : ('01. 3) 6,412 → ('01. 6) 7,483 → ('01. 9) 9,972

5.2 젖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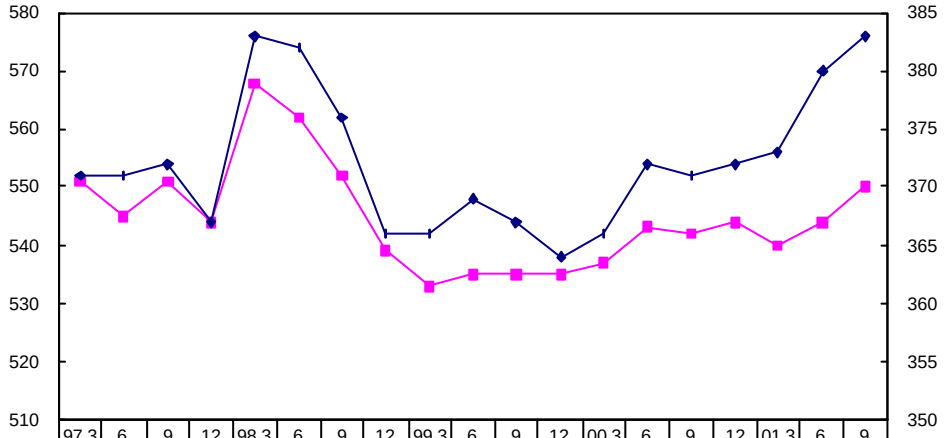
○ 2001년 9월 총 사육두수는 1세 미만 송아지 사육두수 증가로 3개월 전보다 6천두(1.1%), 지난해 9월 보다 8천두(1.5%) 증가한 55만두였음. 가임암소 두수는 38만 3천두로 3개월 전보다 3천두(0.8%), 지난해 9월 보다 1만2천두(3.2%) 증가하였음.

○ 2000년 9~10월 사이 인공수정두수가 7~8월보다 11% 증가하여 2001년 2/4분기보다 3/4분기에 송아지 생산두수가 증가하였고, 광

우병으로 인한 소비불안으로 1~8월까지의 도축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감소하여 9월 젖소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함.

○ 2001년 9월 연령별 마리수 변화를 살펴보면, 1세미만 두수는 3천두(2.9%) 증가하였고, 2세이상 두수는 도축두수의 감소로 3개월 전보다 2천두(0.6%) 증가한 32만 1천두, 이중 경산우 두수는 31만 6천두로 3개월 전보다 2천두(0.6%) 증가하였으나, 착유우 두수는 26만 1천두로 3개월 전보다 2천두(△0.8%) 감소하였음.

젖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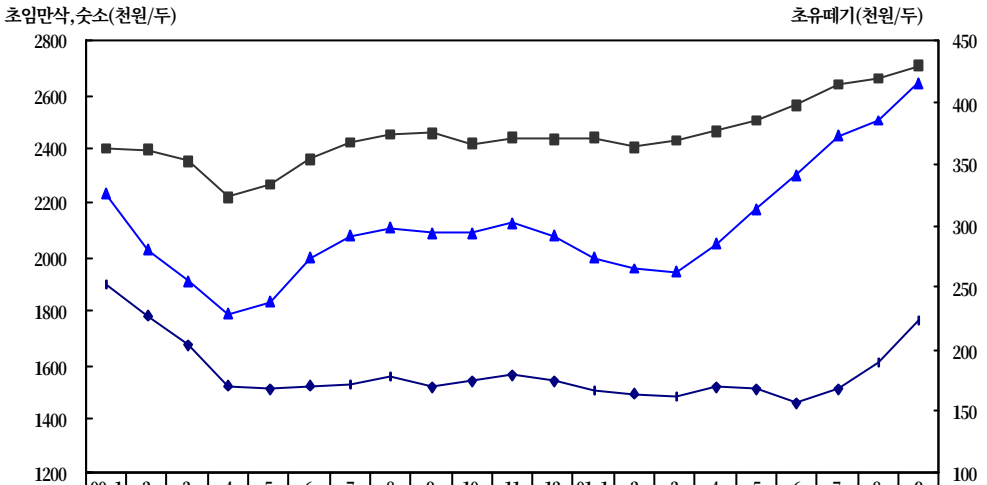
	97.3	6	9	12	98.3	6	9	12	99.3	6	9	12	00.3	6	9	12	01.3	6	9
총두수	551	545	551	544	568	562	552	539	533	535	535	535	537	543	542	544	540	544	550
가임암소	371	371	372	367	383	382	376	366	366	369	367	364	366	372	371	372	373	380	383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젖소 사육가구수는 2001년 9월 1만 3,100호로 3개월전과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5백호(△3.7%) 감소하였음.

○ 50두미만 규모의 사육농가는 3개월 전보다 2.2%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농가는 5.0% 증가하여, 9월 호당사육마리수는 42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젖소 산지가격 변동



	00.1	2	3	4	5	6	7	8	9	10	11	12	01.1	2	3	4	5	6	7	8	9
초임만삭	2400	2395	2353	2222	2267	2363	2424	2451	2457	2419	2439	2439	2440	2409	2433	2466	2507	2564	2641	2661	2705
젖소숫소	1898	1784	1672	1525	1510	1526	1529	1560	1520	1539	1565	1542	1504	1494	1485	1517	1514	1462	1514	1612	1764
초유떼기	326	281	256	229	239	274	292	298	295	294	302	291	275	266	263	285	313	341	373	386	416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젖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2/4분기 아까바네병으로 송아지 공급이 감소하였으나, 낙농여건이 안정되면서 사육의향이 높아져 초유떼기(암) 가격은 9월에 41만 6천원으로 급격히 상승함. 10월 10일 현재 45만 5천원에 거래됨.

- 초임만삭우: 지난해 구제역으로 일시하락한 초임만삭우 가격은 낙농여건이 안정되어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상승함. 2000년 7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40만원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던 초임만삭우 가격은 5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9월에는 270만 5천원, 10월 10일 현재 277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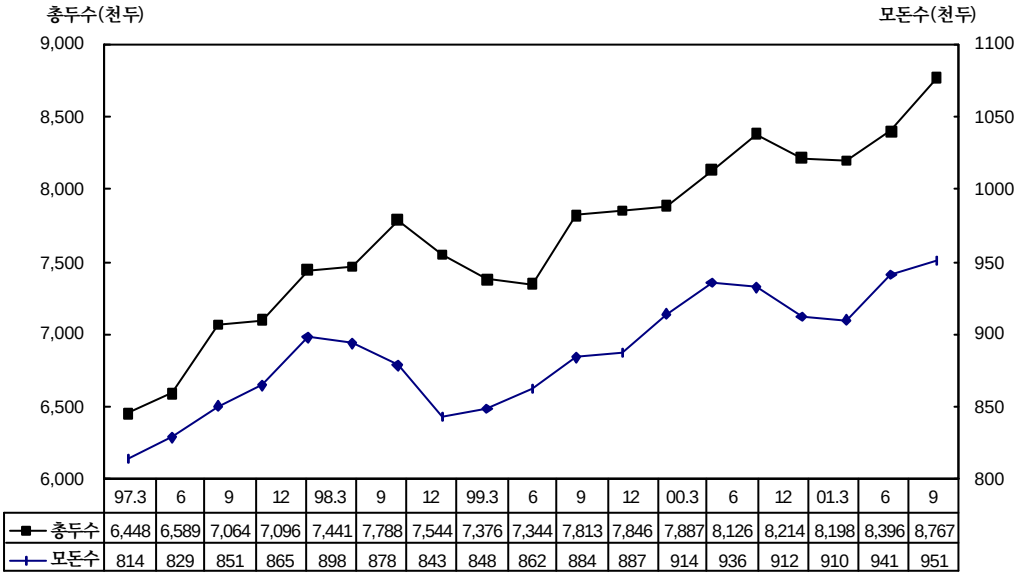
- 젖소수소: 2000년 4월부터 150만원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던 젖

소수소 가격은 2001년 초에 생우수입 자유화로 인한 사육불안 심리로 140만원대로 하락하였으나, 한우가격이 상승하면서 젖소 수소 가격도 동반 상승하여 9월 176만 4천원, 10월 10일 현재 185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음.

○ 올해 1~8월까지 전체 유제품 수입은 지난해 1~8월보다 4.4% 감소하였음. 탈지분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전지분유는 133%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중 40% 비중을 차지하는 혼합분유가 44% 감소하였음.

5.3. 돼 지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97.3	6	9	12	98.3	9	12	99.3	6	9	12	00.3	6	12	01.3	6	9
총두수	6,448	6,589	7,064	7,096	7,441	7,788	7,544	7,376	7,344	7,813	7,846	7,887	8,126	8,214	8,198	8,396	8,767
모돈수	814	829	851	865	898	878	843	848	862	884	887	914	936	912	910	941	951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4월부터 산지가격 상승과 돼지고기 조기수출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규모 농가에서 사육규모를 확대하여 2001년 9월 돼지 총 사

육두수는 876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37만 1천두(4.4%), 지난해 9월보다는 39만두 6천두(4.7%) 증가하였음.

○ 모돈수는 올해 3월 이후 산지가격이 상승하여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6월에 94만 1천두이던 것이 9월에는 95만 1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두(1.1%), 지난해 9월보다 1만 9천두(2.0%) 증가하였음.

○ 돼지 사육가구수는 분기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있음. 2001년 9월에는 2만 1백호로 3개월 전보다 1,200호(△5.6%), 지난해 9월보다 3,400호(△14.5%) 감소하였음.

○ 돼지 산지가격 변동

- 성돈(100kg) : 2001년 2월 유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3월 EU에 대한 수입검역중단조치가 내려지면서 수입이 감소하여 돼지 산지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하였음. 그리고 광우병 여파로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상승하여 6월에는 20만 8천원까지 상승함.

- 수입 감소가 공급량 감소로 이어져 올 7~8월에는 성돈 산지가격이 평년보다 3%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9월에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은 평년보다 4.5%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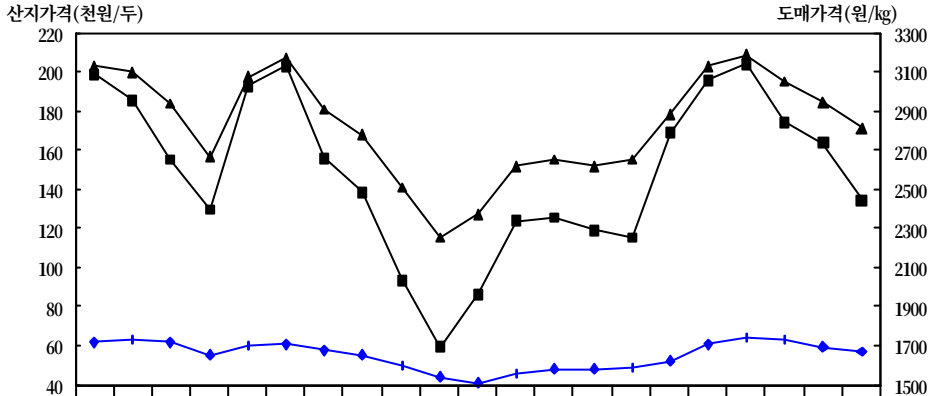
- 추석연휴를 앞두고 더위로 출하가 지연되었던 물량과 함께 출하두수가 증가하면서 성돈 산지가격은 14만원으로 하락하였음. 이후 출하조절로 10월 10일 현재 14만 5천원에 거래되고 있음.

- 자돈 : 2001년 4월 이후 성돈 산지가격이 높아지면서 사육의향도 높아져 6월에는 6만 4천원까지 상승함. 그러나 성돈 산지가격이

하락하면서 자돈가격도 하락하여 10월 10일 현재 5만 1천원에 거래되고 있음.

- 평균경락가격(비육돈) : 3월 EU에 대한 수입검역중단조치로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였으며 5월과 6월에는 3,000원대로 높게 유지되었음. 그러나 7월부터 출하두수가 증가하면서 경락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0월 10일 현재 2,140원임.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00.1	2	3	4	5	6	7	8	9	10	11	12	01.1	2	3	4	5	6	7	8	9
성돈	203	200	184	157	198	207	181	168	141	115	127	152	155	152	156	178	203	208	195	185	171
자돈	62	63	62	55	60	61	58	55	50	44	41	46	48	48	49	52	61	64	63	59	57
평균경락가격	3089	2959	2655	2395	3029	3135	2661	2484	2034	1691	1963	2344	2359	2290	2250	2788	3063	3140	2842	2739	2442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4 닭

○ 2001년 9월 닭 총 사육수수는 1억 541만수로 6월의 1억 2,526만수보다 1,985만수(△15.8%) 감소, 2000년 9월의 9,580만수보다는 961만수(10.0%) 증가함.

○ 2001년 9월 산란계 사육마리수가 감소한 것은 올해 하반기 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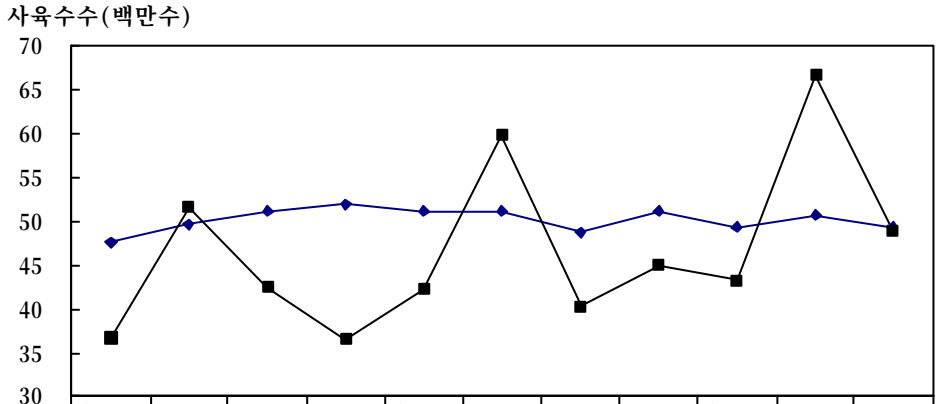
산지가격 하락을 우려한 신규입식의 자제와 노계도태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됨.

- 2001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933만수로 3개월 전보다 136만수(△2.7%) 감소, 2000년 9월보다는 56만수(1.1%) 증가함. 2001년 9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마리수는 3,600만수로 2000년 9월보다 0.7% 증가함. 2001년 9월 산란계 사육가구수는 2,476호로 3개월 전보다 5.7%, 전년동월 대비 8.1% 감소.

○ 2001년 9월 육계 사육마리수가 감소한 것은 여름철 무더위로 종계 피해가 컸으며 말복이후 소비감소를 대비한 농가들의 병아리입식의 감소 때문으로 추정됨.

- 2001년 9월 육계 사육수수는 4,888만수로 3개월 전보다 1,787만수(△26.8%) 감소, 2000년 9월보다는 857만수(21.2%) 증가하였음. 2001년 9월 육계 사육가구수는 2,358호로 3개월 전보다 21.8% 감소, 전년동월 보다 11.3% 증가.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99.3	6	9	12	'00.3	6	9	12	'01.3	6	9
산란계	47.5	49.7	51.2	51.9	51.1	51.2	48.8	51.1	49.3	50.7	49.3
육계	36.7	51.5	42.4	36.6	42.4	59.9	40.3	45.0	43.4	66.7	48.9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계란의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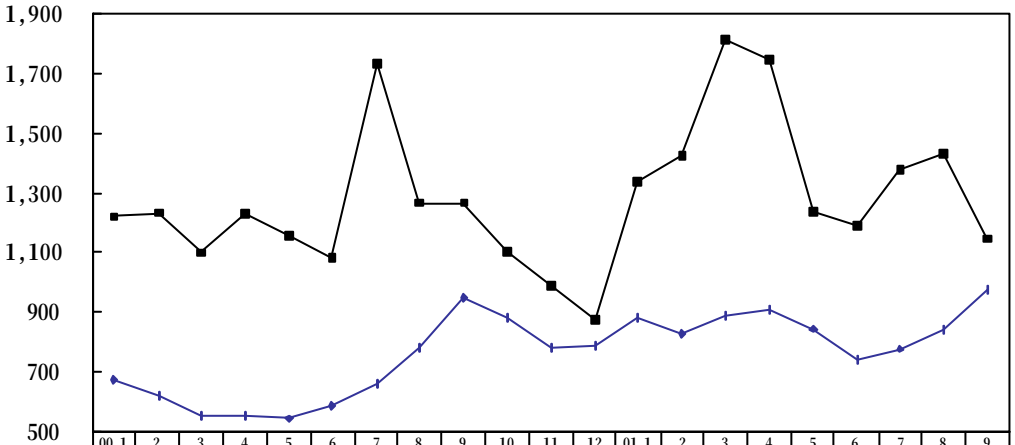
- 2001년 계란 산지가격은 5월까지 연초 대설피해, 질병발생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으나, 6~7월 생산성이 호전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약세로 반전, 8월부터 추석특수로 소비가 늘어나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계란가격은 9월에 1,000원대까지 상승한 후 추석 이후 소비감소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육계의 산지가격 변동

- 2001년 육계 산지가격은 4월까지 연초 대설피해, 질병발생 등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광우병과 구제역 발생우려로 소비가 늘어나 계속 높게 형성되었으나, 5~6월에는 생산성이 회복되며 공급이 늘어나 크게 하락, 7~8월의 육계가격은 무더위로 인한 공급부족과 복 소비로 1,400원대까지 상승한 후 9월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공급증가와 소비감소로 인해 1,100원으로 하락,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추석이후 소비감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산지가격(원/10개,원/생체kg)



	00.1	2	3	4	5	6	7	8	9	10	11	12	01.1	2	3	4	5	6	7	8	9
육계	1,218	1,231	1,097	1,228	1,156	1,080	1,732	1,263	1,266	1,103	990	874	1,337	1,423	1,813	1,745	1,236	1,191	1,378	1,426	1,144
계란	670	616	550	550	541	584	660	780	947	879	779	785	882	828	885	905	844	736	778	839	972

주 : 계란 산지가격은 2000년 이전은 대란기준이며, 그 이후는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2001년 상반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26만 1천수로 2000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3/4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병아리수는 18만 5천수로 2000년 3/4분기보다 63.4% 증가.

- 2001년 상반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병아리수는 194만 8천수로 2000년 상반기보다 3.2% 증가하였고, 3/4분기에 입식된 육용종계 병아리수는 117만 8천수로 2000년 3/4분기보다 14.1% 증가.

○ 닭고기 수입

- 금년 수입닭고기의 국내수요가 증가하여 2001년 8월까지 닭고기 총수입량은 2000년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한 5만 8천톤이 수입되었음.

- 2001년 9월 닭고기 수입량은 5,959톤으로 올해 1~8월 평균수입량(7,273톤)보다는 적으나 2000년 9월보다는 14.8% 증가하였음.

간지
특별주제
최근 WTO 농업협상 의제별 논의동향
중고농기계의 유통 현황과 전망
2000년 농가구, 농가인구현황

최근 WTO 농업협상 의제별 논의 동향[6)]

1. WTO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

○ 새로운 WTO농업협상은 UR 협상에 따라 도출된 농업협정문 제20조에 근거하여 포괄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뉴라운드의 출범과 상관없이 2000년 3월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제1차 특별회의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001년 3월까지 제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중순 개최된 WTO 농업협상을 위한 특별회의 제1차 비공식회의를 통해 다시 제2단계 협상을 시작하였음.

○ 2001년 3월까지 진행된 1단계 농업협상은 협상의 목표 및 방법에 대한 각국 제안서를 검토하는 작업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제 2단계 협상에서는 지난 1단계협상에서 도출된 19개 주요 협상 의제별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회의에서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5개 의제가 논의됨으로써 현재 제 2단계협상에서 논의가 예정된 19개 협상의제 중 14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음.

○ 환경, 개도국에 대한 무역특혜조치, 식량원조, 소비자 정보와 표시, 부문별자유화 등 나머지 5개 협상의제는 12월 초순경에 개최되는 회의를 통해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계획된 협상의제에 대한 검토를 마칠 계획임. 제 2단계 협상진전에 대한 평가 및 검토는 2002년 3월에 개최되는

---

6) 이 자료는 국제농업연구실 임정빈 부연구위원(jeongbin@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공식회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 2001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논의된 협상의제와 향후 논의될 협상의제로 확정된 것은 다음과 같음.

- 5월 회의의제
  (1) 관세할당제와 수입관리방식, (2) 관세, (3) 감축대상보조,

- 7월 회의의제
  (4) 수출보조, (5) 수출신용, (6) 국영무역, (7) 수출제한,
  (8) 식량안보, (9) 식품안전

- 9월 회의의제
  (10) 농촌개발, (11) 지리적 표시제, (12) 허용보조,
  (13)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14) 특별긴급관세제도,

- 12월 회의 의제(예정)
  (15) 환경, (16)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특혜조치, (17) 식량원조,
  (18) 소비자 정보와 농산물 표시, (19) 부문별자유화

○ 한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제 2단계협상에서는 당초 의제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구체적 논의를 위한 시간부족, 공산품 등 포괄적 의제를 함께 다루는 뉴 라운드 출범과 연계시도 등으로 인해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입장을 반복하거나 명확히 하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소극적이고 별진전 없는 협상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2. 주요 협상 의제별 논의 동향

○ WTO 농업협상 7월 및 9월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협상의제별 논의 동향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수출보조와 관련하여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출보조가 개도국의 빈곤을 심화시켜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음.
- 비슷한 취지로 베네수엘라, 페루, 파나마 등 개도국들은 수출보조가 개도국의 수출 및 국내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철폐하되, 수출보조 철폐가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여 식량원조와 재정지원 등의 강화를 요구하였음.
- 반면에 EU는 모든 우회적인 수출보조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함. 또한 1992년 이후 수출보조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개도국의 빈곤문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수출보조가 개도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하였음. 수출보조는 시장 왜곡 효과가 가장 크고 직접적이라는 측면에서 수출보조의 완전 혹은 대폭 철폐문제가 협상쟁점임.

○ 수출신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신용에 대한 규범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일부 개도국들은 수출신용이 외환부족 개도국에 대한 식량공급과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한편 수출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은 수출신용은 직접적인 수출보조보다 무역왜곡이 심하지 않고 외환부족 개도국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한 반면, EU는 수출신용의 정의, 신용조건 등 수출신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제정하자고 제안함. 수출신용은 수출신용에

대한 규율제정 문제가 가장 큰 협상 쟁점임.

○ 국영무역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모리셔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개도국의 경우 국영무역기업이 식량안보, 빈곤경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규범 제정시 보다 많은 신축성이 부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케언즈그룹 국가는 국영무역기업의 존재자체가 아니라 운영상에 무역왜곡효과가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국영무역기업은 GATT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합법적 제도이므로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상업적 기초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가가 문제라고 지적함. 국영무역의 핵심 협상 쟁점은 국영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율 강화방안의 필요성 여부임.

○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케언즈그룹 및 개도국들은 수출세 등 수출제한조치는 농산물 수입국의 고율관세나 누진관세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반면에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들은 교역의 안정성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제한과 수출세에 대한 규범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국내생산, 수입, 재고비축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거의 동의하였으나 식량안보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인도네시아 등은 국내생산의 중요성을, 미국, 케언즈그룹, 태국, 이집트, 모로코, 말레이시아 등은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일본, 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 식품의 생산 및 교역 증가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OECD, CODEX 등 관련 기구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WTO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에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식품안전문제가 WTO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농업협정 제20조에 따라 진행되는 농산물협상의 범위 밖이며, SPS나 TBT협정 등 다른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예방적 조치가 위장된 무역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우리나라는 UR협상 타결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WTO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 농업협정은 식품안전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 호주 등 케언즈 그룹 국가들과 개도국들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농촌개발의 의미와 성격이 다르며, 선진국의 무역왜곡적 조치가 개도국의 빈곤경감과 농촌고용 증진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도국 농촌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선진국들이 이를 근거로 무역 및 생산왜곡적 조치 사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스위스 등 NTC 주장 국가들은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농촌개발의 우선 순위가 각기 다를 뿐이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에 맞게 적용 가능한 규범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특히 우리나라는 각국의 농촌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허용보조만으로 불충분함으로 각국 사정에 맞는 적용가능한 다양한 조치를 농촌개발 측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허용보조와 관련하여 비보조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즈 그룹과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무역왜곡이 없도록 현행 허용보조의 각 정책특정적

요건들을 강화하고 허용보조 총액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현행 요건이 7년 전에 만들어져서 각국이 새롭게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기본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변화 및 정책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한편 EU는 현행 허용보조의 골격을 유지하되 경기변동이나 생산, 가격, 투입요소과 연계되는 보조는 허용보조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동물후생을 위한 정책은 감축약속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여타 NTC국가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농업이 갖는 다원적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허용보조 규범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함.

○ 생산제한하에서의 직접지불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및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이 정책이 무역왜곡 측면에서 감축대상 보조와 별 차이가 없으므로 감축하여 궁극적으로 철폐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EU, 스위스, 노르웨이와 헝가리, 체코 등 동구권시장경제 이행국가들은 생산제한하 직접지불정책을 계속해서 감축에서 면제할 것을 주장함.

○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 정책이 UR 농업협정 이후 무역왜곡적 정책을 무역왜곡이 없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업개혁과정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 특별긴급관세(SSG)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이 제도가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특히 지금까지 소수 선진국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를 근거로 한 추가적인 보호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개도국들은 현행 SSG는 철폐하는 대신 개도국에게만 적용가능한 SSG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음.

○ 한편 일본은 현행 특별긴급관세제도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절성과 부패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새로운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을 제안하였음. 우리나라는 SSG가 지난 UR 협상의 주요 합의 사항인 비관세장벽의 예외 외는 관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중요 요소로서 향후 농업 개혁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특히 일본이 제안한 계절성 및 부패성이 있는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새로운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하여 EU와 스위스 등 유럽국가들은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 강화와 농업협상에서 이 의제를 심도 있게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에 미국, 케언즈 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는 지리적표시제와 관련된 논의는 WTO 농업협상 범위를 넘는 의제로서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음.

3. 향후 전망 및 평가

○ 7월과 9월에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비공식회의는 수출보조, 국영무역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 등 전통적인 협상의제와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 NTC관련 의제, 그리고 식품안전, 지리적 표시 등 새로운 협상의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우선 전통적 의제와 NTC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각국이 제1단계협상에서 표명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었으며, 뉴 이슈에 대해서는 농업협상 논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음.

○ 많은 국가들이 협상의제에 대해 단독 혹은 이해 그룹별로 비공식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의제별로 자국의 이익을 적극 주장 및 홍보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 나라도 핵심 협상의제에 대해서 통상이익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 이번 회의에서 발견된 특징은 최근 들어 다자간 협상의 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개도국들이 기존 그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강하면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지난 협상과정에서 단순히 자국 입장만을 주장하던 개도국들이 그들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번 WTO 농업협상은 지난 UR 협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앞으로 WTO 농업협상은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4차 각료회의를 통한 신다자간협상(New Round) 출범 문제가 맞물려 있어 독자적인 협상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중고 농기계의 유통현황과 전망[7)]

1. 중고농기계의 의의

○ 농가단위에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중고 농기계의 재활용을 통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농가와 지역에 알맞은 농기계의 선택과 효율적인 이용, 적절한 수리·정비, 무리하지 않은 이용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 가운데 중고 농기계의 활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왔음.

- 관심저위의 원인 : 정부의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기계 구입농민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임작업(賃作業) 수요 농민들의 성능이 우수한 신기종 선호, 잦은 모델과 단종에 따른 중고 농기계 부품의 구입애로, 적절한 중고 농기계 시장의 부재 등

○ 반면, 일본은 중고 농기계 활용을 통한 저비용 농기계 이용을 농업기계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농기계시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고 농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수도작의 주력기종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의 경우 전체 농기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의 30% 이상이 중고 농기계인 것으로 나타남.

○ 중고 농기계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사용기간의 장단

---

7) 이 자료는 농산업경제연구부 강창용 연구위원 (cyk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에 관계 없이 현장에서의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당장 사용이 어려운 농기계라 할지라도 경미한 수리를 통해 현장사용이 가능한 농기계를 말하며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음.

<표 1> 중고농기계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② 동종 · 동규격내 가격의 다양성 ③ 필요 내용년수에 따라 선발 가능 ④ 기계사용상태 등의 평가가 이미 완료 ⑤ 실제의 성능파악이 용이	① 알 수 없는 결함부품 가능성 상존 ② 확실한 내용연수 인지불가 ③ 상대적 고액의 유지비 ④ 외부 모양이 좋지 않음 ⑤ 현물확인후 구입가능

○ 정부 농기계구입지원의 약화, 농가경제의 열악화, 특히 쌀농업의 불안정 등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농가 개별적으로는 저렴한 중고농기계구입과 이용으로 인한 경영비 절감,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은 우리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가 될 것으로 판단됨.

2. 중고농기계 유통현황

가. 시장규모와 유통체널

○ 중고농기계 시장규모 : 농기계대리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고농기계 시장규모를 산정해 보면, 중고 농기계거래액 기준으로 1,100억원~1,400억원 일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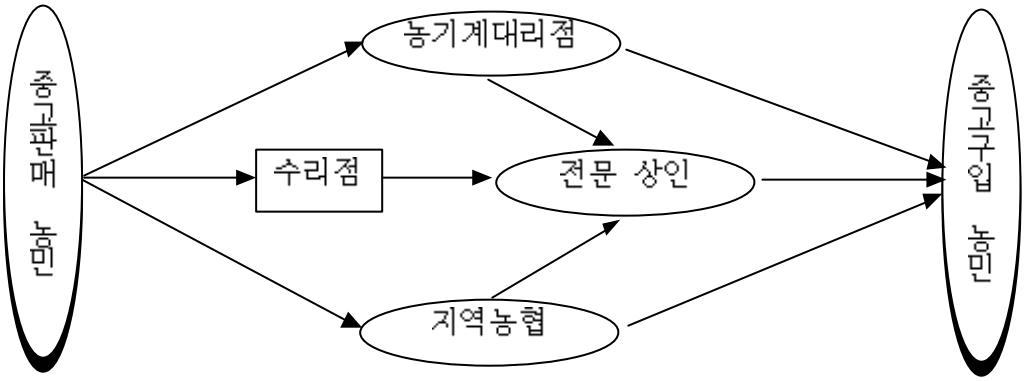
- 중고농기계상인, 농협 등의 취급을 고려한다면 시장규모는 이보

다 클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대수를 기준할 경우 중고농기계 거래 비율은 10% 내외로 추정됨.

○ 중고농기계 유통채널 : 중고 농기계유통체널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는 데, 이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① "농민→ 농기계 대리점→농민"과
② "농민→ 농기계 대리점→전문상인→농민"으로 전체 유통물량의 8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림 1> 중고농기계의 유통체널



자료: 현지조사결과.

나. 중고농기계 가격

○ 중고 농기계의 거래가격은 동일회사, 동일규격, 동일연식이라 하더라도 사용상태, 거래시기 등에 따라, 또한 취급주체, 거래단계, 지역 등에 따라 거래가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 1995년식, 43Hp 트랙터의 경우 최저 판매가는 500만원이나 최고 판매가는 900만원으로 400만원의 가격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콤바인의 경우에도 최저와 최고가격의 차이가 5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

<표 2> 주요 중고농기계의 거래가격

단위 : 만원

기종	규격	1990 년식	1991 년식	1992 년식	1993 년식	1994 년식	1995 년식	1996 년식	1997 년식	1998 년식	1999 년식	2000 년식	2001 년식
트랙터	25Hp(G사)	100	143	187	230	270	310	350	412	475	538	600	905
	35Hp(G사)	100	166	240	300	325	350	438	525	613	700	780	1,330
	43Hp(D사)	-	-	450	513	576	639	700	733	766	800	840	1,437
	55Hp(S사)	450	520	590	660	730	900	966	1,032	1,098	1,164	1,230	2,320
	105Hp(G사)	-	-	-	1,300	1,657	2,050	2,425	2,800	2,866	2,932	3,000	4,267
콤바인	3조(G사)	-	-	-	-	250	325	400	475	550	700	850	1,993
	4조(D사)	-	-	-	300	400	500	600	700	800	1,050	1,352	2,600
승용 이앙기	4조(D사)	-	-	-	-	-	200	213	226	250	275	300	641
	6조(G사)	-	-	-	200	250	283	316	350	367	384	400	993

자료 : 현지대리점, 전문 취급상인, 인터넷 조사결과.

<표 3> 동일규격, 연식 중고농기계 판매가격 편차

(농기계 대리점 기준)

단위: 만원

기 종	규 격	연 식	최저 판매가(A)	최고 판매가(B)	가격차이 (A - B)
트랙터	43Hp	1995	500	900	400
콤바인	4조식	1996	400	900	500
승용 이앙기	6조식	1996	200	500	300

자료: 대리점 현지조사결과.

다. 유통주체의 중고농기계 취급

1) 농기계대리점

○ 중고농기계 구입 : 농기계 대리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고농기계 구입은 신규 농기계 판매를 위해 농민들이 지불해야 하는 자부담의 대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기계대리점 1개소당 중고농기계의 인수비율은 트랙터가 52%로 가장 높고, 콤바인 49%, 승용 이앙기 18.2%이며, 위 3기종의 평균은 42.2%임.

<표 4> 농기계대리점의 자부담금 대납 중고농기계 인수비율(개소당)

단위: %

구 분	트 랙 터	콤 바 인	승용 이앙기	합 계
신규 판매대수	30.0	23.5	24.2	74.6
중고 구입대수	15.6	11.5	4.4	31.5
인 수 비 율	52.0	49.0	18.2	42.2

주: 인수비율=기종별 인수 중고농기계 대수/신규판매 농기계×100

※ "인수"라는 용어는 비자발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의미의 "구입" 대신 사용하였으며, 이는 농기계대리점의 현실상황에 근접하려는 과정에서 취한 결과이며, 특별한 의미는 없음.

자료: 대리점 현지조사결과.

○ 한편 중고농기계구입과정에서 농기계대리점은 신규농기계 판매확대를 위해 자사제품뿐만 아니라 타사제품까지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음.

- 농기계 대리점 자사외 중고농기계의 구입비율은 46%이며, 농기계 대리점의 76.5%는 자사와 타사 중고농기계간 가격차이를 준다고 응답하고 있음(가격의 차이는 10~15%).

<표 5> 농기계 대리점 구입 중고농기계 중 타사제품 비율

단위: %

구 분	자사제품	타사제품	계
트 랙 터	50.6	49.4	100.0
콤 바 인	60.7	39.3	100.0
승용 이앙기	55.6	44.4	100.0
계	54.3	45.7	100.0

자료: 대리점 현지조사결과.

○ 중고농기계의 구입과 판매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제시하는 가격(40.6%, 44.6%)이며, 다음으로 연식(26.1%, 23.1%)과 외양(18.8%, 24.6%) 등임.

- 농기계대리점은 신규 농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인수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민의 제시가격이 주요한 가격결정 요인으로 작용함.

- 아울러 중고농기계 판매시 약자는 역시 농기계대리점이기 때문에 고객(대부분은 전문 취급상인 등)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음.

<표 6> 농기계대리점의 중고농기계 구입·판매시 가격결정 요인

단위: %

구분	구 입 시						판 매 시					
	운행시간	외양	연식	판매자 제시가격	기타	계	운행시간	외양	연식	구매자 제시가격	기타	계
구성비	13.0	18.8	26.1	40.6	1.4	100.0	6.2	24.6	23.1	44.6	1.5	100.0

자료: 대리점 설문조사결과.

○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한 중고농기계의 당해연도 판매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트랙터가 67.3%, 승용이앙기는 65.9%, 콤바인은 49.6%를 나타내어 3기종 평균 60%에 불과함.

- 나머지는 연말 재고로 쌓여 농기계 대리점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폐기처분되거나 장기수리시 수리의뢰자에 편의 제공용으로 활용되기도 함.

<표 7> 농기계 대리점의 중고농기계 판매비율(2000년 기준)

단위: 대

구 분	구 입 대 수	판 매 대 수	판매비율 (%)
트 랙 터	15.6	10.5	67.3
콤 바 인	11.5	5.7	49.6
승용 이앙기	4.4	2.9	65.9
합 계	31.5	19.1	60.1

자료: 대리점 설문조사결과.

○ 농기계 대리점의 중고농기계 판매선별 비중은 실수요자인 농민이 48%, 중고농기계 취급 상인이 37% 수준임.

- 농가에 판매되는 경우, 직접 매매되는 경우보다는 중간상의 중개(수리점, 상인, 기타)에 의해 알선판매되는 경우가 많음(직접 20%, 중간 알선 30%).

- 농기계 대리점의 경우,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농민들에게 판매하려하나 여의치 않음.

<표 8> 농기계 대리점의 판매처별 중고농기계 판매 비율

단위: %

구 분	농 가	중고상인	기 타	계
트 랙 터	49.6	40.4	9.9	100.0
콤 바 인	48.2	36.4	15.5	100.0
승용 이앙기	45.0	30.0	25.0	100.0
평 균	48.2	37.0	14.8	100.0

자료: 대리점 설문조사결과.

○ 대부분의 농기계 대리점은 농가 직접 판매시 1년 정도 부분 A/S를 해주고 있으나, 전문상인에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A/S를 해주지 않고 있음.

- 농가 판매시 A/S조건(부품비 정도 징수)은 1년간 보증이 85.7%, 보증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4.8%로 대부분 판매 후 1년 정도는 A/S를 해주고 있음.

○ 한편 중고농기계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기계 대리점간에 비정상적인 신규 농기계 판촉경쟁의 결과 판매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임.

<표 9> 중고농기계 기종별 매매가격(농기계대리점)

단위: 만원

구 분	구입가격 (A)	판매가격 (B)	B / A (%)
트 랙 터	737	524	71.1
콤 바 인	660	469	71.1
승용 이앙기	343	237	69.1

자료: 대리점 현지조사결과.

- 트랙터의 경우 중고농기계 구입가격은 대당 평균 737만원인데 비해 판매가격은 524원으로 판매가가 구입가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음.

2) 중고농기계 상인

○ 중고농기계상인의 연간 중고농기계 판매대수는 트랙터 55대, 콤바인 20대, 승용 이앙기 8대, 경운기 포함 기타 10대이며, 판매액은 4.3억원임.

- 재고대수는 트랙터 14대, 콤바인 5대, 승용 이앙기 1로 농기계대리점에 비해 재고부담은 낮은 편임.

<표 10> 중고농기계상인의 중고농기계 판매 및 재고대수

단위: 대

구 분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앙기	기 타	판매액(억원)
판매대수	55	20	8	10	4.3
재고대수	14	5	1	-	-

자료: 중고상인 현지조사결과.

○ 중고농기계상인의 인수 중고농기계의 판매비율은 트랙터 79.7%, 콤바인 80%, 승용 이앙기 88.9%로써 농기계 대리점(트랙터 67.3%, 콤바인 49.6%, 승용 이앙기 65.9%)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

- 판매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기계대리점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중고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고, 자금회전을 위해 다소 낮은 마진에도 판매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양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임.

○ 중고농기계상인의 경우 중고농기계를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5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농가(22.1%), 중고상인(15%)임.

- 농기계 대리점 구입비중이 높은 것은 농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중고농기계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임.

○ 판매선별 중고농기계 판매의 비율을 보면, 농가가 51.4%이며, 다음으로는 수리센터(35.7%), 중고상인(10.7%)의 순임.

- 중고농기계상인들의 경우 전국적인 자신의 판매망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역 내 농민들에게는 직접 판매하지만 거리가 먼 지역의 수요자들에게는 소규모 수리센터를 거쳐 공급하고 있음.

<표 11> 중고농기계상인의 중고농기계 구입·판매처 비율

단위: %

구 분	농 가	대리점	중고상인	수리센터	기 타	계
구입처	22.1	58.6	15.0	4.3	-	100.0
판매처	51.4	-	10.7	35.7	2.1	100.0

자료: 중고상인 현지조사결과.

○ 중고농기계의 구입처와 판매처별 구입지역 비중을 보면,

- 중고농기계 상인들은 대부분 필요한 중고농기계의 구입·판매를 관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관외 의존도가 높음.

- 외부구입 의존 원인 : 필요로 하는 제조회사별·연식별·규격별 중고농기계를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임.

- 외부판매 의존 원인 : 보유 농기계를 관내에서 소화해 내기가 어렵고, 중고농기계 판매후 발생될 A/S문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임..

<표 12> 중고농기계상인의 중고농기계 구입·판매지역별 비중

단위: %

구 분		농 가	대리점	중고상인	수리센터	기 타
구입처	지역내	40.0	26.0	5.0	6.7	-
	타지역	60.0	74.0	95.0	93.3	-
	계	100.0	100.0	100.0	100.0	-
판매처	지역내	46.7	-	17.0	20.2	10.0
	타지역	53.3	-	83.0	79.8	90.0
	계	100.0	-	100.0	100.0	100.0

자료: 중고상인 현지조사결과.

○ 중고농기계상인들은 중고농기계의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요인으로 외양(35.7%)이며, 다음으로 연식(32.9%)과 성능(15.7%)이었음.

- 농기계 대리점의 경우, 농민의 제시가격이 주요한 가격결정 요인인 것과는 다른 정상적인 기준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음.

<표 13> 중고농기계상인의 중고농기계 구입시 가격결정 요인

단위: %

구 분	연 식	운행시간	외 양	성 능	기 타	계
구성비	32.9	12.9	35.7	15.7	2.9	100.0

자료: 중고상인 현지조사결과.

○ 중고농기계상인의 유통마진은 구입처별·시장선호도별·기계 성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지조사결과 평균 약 10%~20%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상인들의 특성상 정확한 마진을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유통마진이 20~30%인 중고농기계상인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중고농기계상인들의 유통마진은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 적지 않은 중고농기계상인들은 중고농기계를 인수하고 나서, 부분적인 수리 후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A/S는 하고 있지 않으나, 지역내 농가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A/S를 해주는 경우도 있음.

- 농가 판매시 A/S조건은 1년간 보증과 보증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똑 같은 42.9%로 농기계 대리점에 비해 A/S에 대한 보증없이 판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중고농기계 유통의 문제와 전망

가. 문제

○ 중고농기계 매매의 비활성화 요인 내재

- 다양한 수요자가 중고농기계에 접근할 수 있는 시·공이 부족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쉽게 중고농기계 구입하기가 어려움.

- 품질에 따른 적정 가격형성에 신뢰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되어

있고, 중고농기계 구입 후 이용과정에서 사후봉사(유·무상 A/S)의 불확실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특히 내용년수가 경과된 중고농기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 비정상적인 중고농기계가격 형성 메커니즘

- 농기계대리점에서 신규 농기계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농기계를 매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최종시장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농기계를 매입하는 것이 문제임.

- 농기계 대리점에 의한 " 중고농기계 구입가격> 중고농기계 판매가격"으로 부(負)의 유통마진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농기계대리점의 경영압박, 도산, 나아가 농기계회사의 경영악화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 제도적인 지원미흡

- 중고농기계구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제도와 관련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부족함. 특히 단순정액제에 의한 융자금의 결정, 기 구입자의 융자금 완납증명 요청, 법적내용년수 경과기종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이 문제임.

- 중고농기계 유통업체에 대한 경영지원이 부족한데, 특히 유통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미비하며, 유통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세제지원의 프로그램이 없음.

- 중고농기계 거래의 활성화에 필요한 품질보증과 무상수리, 부품

생산과 확보·공급 등에 관련된 규정도 미비인 상태임.

나. 향후 전망

○ 중고농기계 매매의 증가와 농기계취급점의 경영악화 가속화

- 중고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은, 농기계 취급점간의 과당경쟁에 따른 왜곡된 중고농기계 가격구조 아래에서는 농기계취급점의 경영부실은 자명함.

- 농기계 취급점의 부실에 따른 도산은 한편으로는 농민에 대한 서비스부재, 다른 한편으로는 농기계 제조업체의 자금난과 부실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중고농기계 이용에 따른 민원발생과 재고누증에 따른 자원의 낭비 증가

- 중고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정적인 부품공급체제가 부재하고, 중고농기계를 둘러싼 농기계 취급점간의 이상경쟁 문제가 농업기계화정책의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계속 대정부 지원 요청이 늘 것으로 예견됨.

- 또한 농기계 취급점에 쌓아둔 중고농기계가 자연스럽게 순환되지 않을 경우 국가적인 자원낭비가 초래될 것임.

○ 정부의 관련정책개발 필요성 증대

- 어지러운 중고농기계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아울러 거래를 활

성화하기 위한 기반지원의 정책이 요구될 것임.

- 한 예로 중고농기계 유통기반 강화책으로 중고농기계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며, 제도적인 지원프로그램, 즉 중고농기계 구입농가의 구매력 향상을 위해 구입자금의 우선적 배정과 이자율 인하 등이 필요함.

○ 농기계취급업체의 건전한 경쟁의식 정립 요구증대

- 아무리 좋은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농기계 취급점들의 비정상적 거래행태가 자제되지 않는 한 현재의 어려움은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정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적정 표준화된 중고농기계 가격 설정이 필요하며 자율적인 과잉방지 제재수단도 필요

○ 중고농기계의 수출 촉진방안 요구 증대

- 국내의 중고농기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그만큼 국내시장의 확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취급점들의 수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확산체제 정립과 지역별 수출전략 수립·시행, 농기계 업체가 중심이 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수입 중고농기계의 문제 대두 예상

- 근년에 트랙터와 이앙기를 중심으로 일본 중고농기계가 수입되고 있는바, 외래 식물종 유입, 구제역 문제 등으로 인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수입량조차 집계되지 않음.

- 수입 중고농기계와 국산 농기계와의 갈등, 수입제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확보 등이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음.

이 글은 농림특정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고농기계 유통실태와 이용활성화방안"연구의 추진 과정에서 중간 정리된 내용으로 최종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00년 농가구, 농가인구 동향[8)]

1. 농가수

○ 농가수는 최근 들어 약화되는 경향이나 1960년대 이후 감소추세가 지속됨.

- 2000년도의 총 농가수는 약 138만호로 1995년에 비해 약 12만호가 감소하였으며, 처음으로 총 가구수의 10% 미만으로 떨어짐.

- 연평균감소율은 둔화되면서, 1995~2000년 연평균 감소율(1.6%)이 1990~95년 연평균 감소율(3.2%)의 절반 가량으로 떨어짐.

- 영농후계자가 없는 고령 농업경영주 농가의 탈농·소멸,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탈농, 일부농가의 타산업 전업과 같은 이유로 농가의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전반에는 전업농육성, 농지규모화 등 농업구조개선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농가 및 농가인구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1994년 UR 협상타결 이후 농산물 가격불안정, 농가소득 정체에도 불구하고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도시 등 비농업부문에서의 유입과 직접지불제, 중소농·가족농 지원과 같은 농업지원정책이 감소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8) 이 자료는 통계청이 발행한 「2000년 농업총조사 잠정결과」를 활용하여 농촌발전연구부 허 장 부연구위원(heojang@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 천가구, 천명, %

	농 가	총가구대비	연평균증감율	농가인구	총인구대비	연평균증감율
1960	2,329		-	14,242	56.9	-
1970	2,483	42.4	0.6	14,422	44.7	0.1
1980	2,155	27.0	-1.4	10,827	28.4	-2.8
1990	1,767	15.6	-2.0	6,661	15.5	-4.7
1995	1,501	11.6	-3.2	4,851	10.8	-6.1
2000	1,384	9.7	-1.6 (-2.4)	4,032	8.7	-3.6 (-4.9)

주 : ( )는 1990~2000년간 연평균 증감율임

2. 농가 인구

○ 농가인구도 농가수와 마찬가지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폭이 줄어들었음.

- 농가인구는 지난 5년간 81만 9천명이 감소하여 총 인구의 10% 이하인 8.7%를 기록하였음. 이로써 지난 1970년 이후 30년 사이에 농가인구는 1천만명 이상 줄어들었음.

- 연평균 감소율은 1995~2000년 사이에 3.6%로서, 그 전 5년의 6.1%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음.

- 농가수 감소와 마찬가지로 농가인구의 노령화와 영농승계자의 부재로 인한 자연소멸 및 탈농과 같은 요인이 농가인구 감소의 가

장 큰 요인인 반면,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도시 취업여건의 악화로 도시 전출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감소폭 둔화의 원인이라고 보여짐.

○ 한편, 농촌인구의 감소율과 농가인구의 감소율을 비교하면 1990년대에 들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1980년대 후반부의 경우 농촌인구 감소율은 4.5%, 농가인구 감소율은 4.8%로, 거의 같은 수준임.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농촌인구의 감소율에 비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1990~95년 사이의 농촌인구 감소율은 그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으나(4.5%→ 2.9%), 농가인구 감소율은 오히려 늘어나 4.8%에서 6.1%로 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1995~2000년 사이에 농촌인구 감소율이 줄어드는 추세(2.9%→0.4%)와 마찬가지로 농가인구 감소율도 줄어듦으로써(6.1%→3.6%) 다시 반전되었음.

농촌인구, 농가인구 증감률의 비교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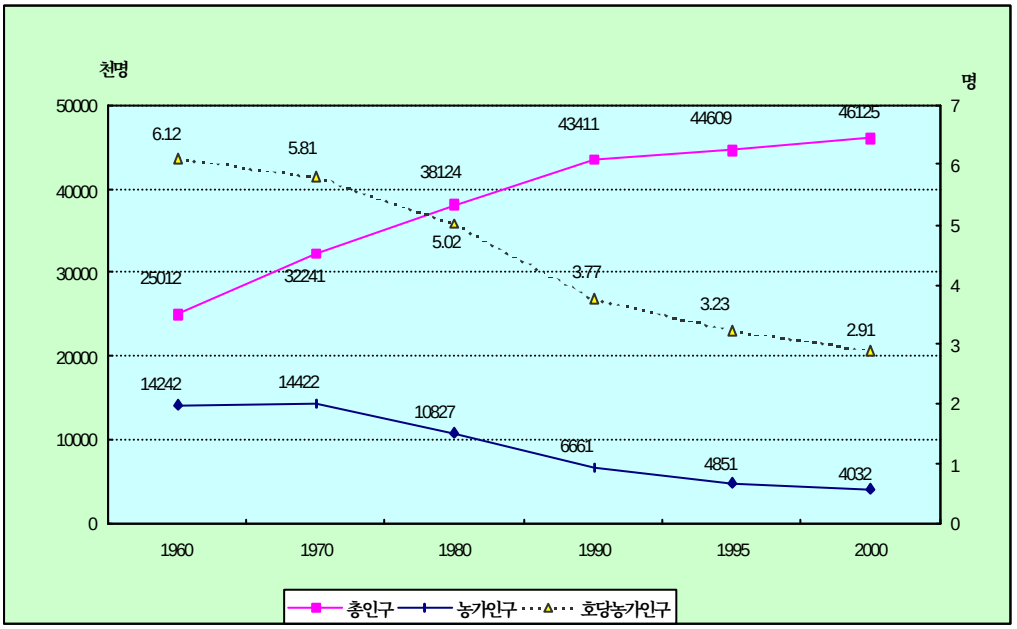
구 분	1985~1990	1990~1995	1995~2000
농촌인구	-4.5	-2.9	-0.4
농가인구	-4.7	-6.1	-3.6

- 따라서 1990년대 이후에는 탈농과 함께 이촌하기 보다는 탈농 후 재촌 비농가로 머물면서 비농업 취업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전반기에는 GNP 5~9%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비농업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탈농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후 저성장과 경제위기에 따라 탈농의 증가율도 줄어들고 농촌인구도 거의 정체함으로써 대체로 농촌 내부에서의 탈농 현상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농가인구의 감소율이 농가구수 감소율을 항상 상회함에 따라 농가의 평균 가구원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3명 이하로 감소하여 최저치를 보이고 있음.

총인구, 농가인구 및 호당 농가인구



- 평균 가구원 2.91명으로, 1970년 5.81명의 절반이며, 1990년에 비해서는 약 0.9명이 감소

  ※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현재 3.22명임.

- 농가의 가구원 감소는 가구내 농업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여 영농

규모의 축소와 중소농의 증가 현상을 낳게 되며, 반면에 기계화가 가능한 중대농층에서는 영농규모화를 추진함으로써 경작규모의 양극화를 나타내게 됨.

3. 농업 경영 구조

3.1. 전·겸업별 농가수

○ 농사만 짓는 전업농의 숫자는 농가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후 오히려 늘어난 반면 겸업농은 크게 줄어들었음.

- 전업농은 1995년보다 8만호가 늘었으나, 1종 겸업농은 7만, 2종 겸업농은 12만호가 감소하는 등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체 농가 가운데 전업농가의 비중은 1990년 59.6%, 1995년 56.6%에서 2000년에 67.1%로 크게 늘어났음. 하지만 겸업농의 비중은 1종 14.6%, 2종 18.3%로 줄어들었음.

○ 전업농 증가, 겸업농 감소의 원인은 젊은 층의 전문 농업인화 경향, 농가인구의 고령화 및 단독농가의 증가, 어업자원 감소에 따른 농어업 겸업가구의 농업 전업화, 농촌지역 농외소득원 감소에 의한 겸업농가의 전업농가로의 전환 또는 탈농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 재촌탈농의 증가경향에 비추어 볼 때, 겸업농 감소는 전업농으로의 전환보다는 탈농에 의한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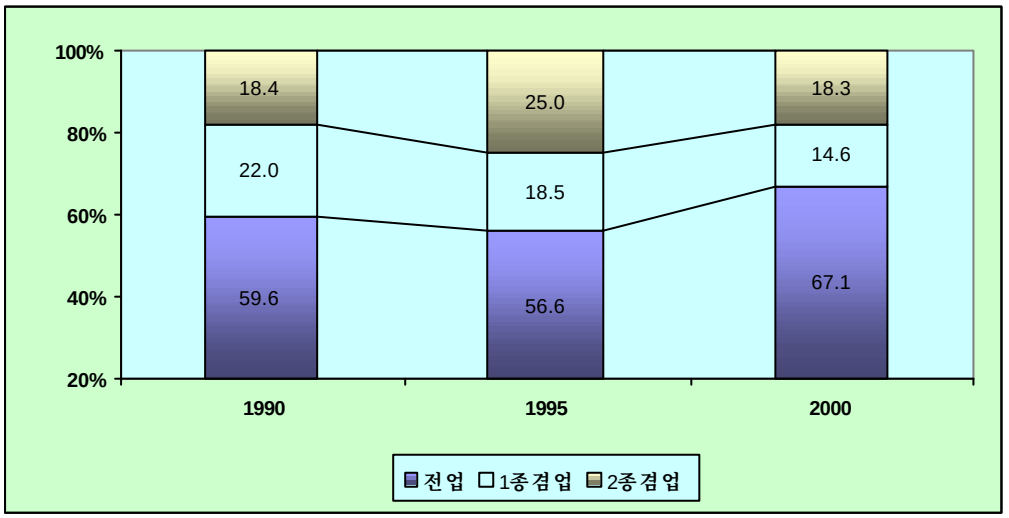
연도별 전·겸업 농가 현황

단위 : 천가구, %

	총농가	전업	겸업		
			계	1종[1]	2종[2]
1990	1,767	1,052	715	389	326
1995	1,501	849	652	277	374
2000	**1,384**	**928**	**456**	**203**	**253**

주 : 1) 1종 겸업농가 : 농가 전체의 수입중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의 수입보다 많은 농가, 2) 2종 겸업농가 : 농가 전체의 수입중 농업이외의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전·겸업별 농가비율



3.2. 경지규모별 농가수

○ 경지규모별로 나누어 보면, 2ha 이상의 대농층과 0.5ha 미만의 소

농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0.5~2ha 경영농가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ha 이상 경지를 경영하는 농가수는 1990년의 9.8%에서 2000년 14.9%로 확대되고, 0.5ha 미만 농가는 27.3%에서 30.6%로 증가. 3ha 이상 경영농가는 4만4천 가구에서 8만7천 가구로 절대수가 약 2배로 증가. 이들 대농층의 절대적, 상대적 비중 증가는 영농활동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0.5~2.0ha의 중간층 농가수의 감소폭보다 적어서 상대적인 비중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은 현상은 농가의 가구원수의 감소로 가족노작적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농업노동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영농규모를 축소시키게 되고, 기계화가 가능한 중대농층은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경지규모별 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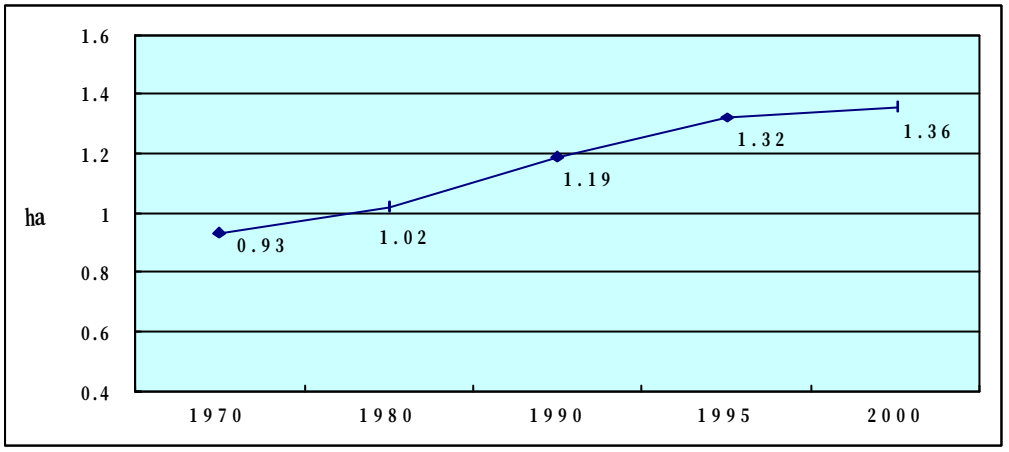
단위 : 천가구, %

	총농가	경지 없는 농가	경지규모별					
			0.5ha 미만	0.5~1.0	1.0~2.0	2.0~3.0	3.0~5.0	5.0ha 이상
1990	1,767 (100.0)	24 (1.3)	483 (27.3)	544 (30.8)	543 (30.7)	130 (7.3)	44 (2.5)	
1995	1,501 (100.0)	24 (1.6)	433 (28.9)	432 (28.8)	418 (27.9)	123 (8.2)	55 (3.7)	16 (1.0)
2000	**1,384 (100.0)**	**15 (1.1)**	**423 (30.6)**	**381 (27.5)**	**359 (25.9)**	**119 (8.6)**	**62 (4.5)**	**25 (1.8)**

- 규모화는 주로 수도작 농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됨(2000년 수도작 농가의 비중이 57.3%, 아래 영농형태별 농가수 참조).

○ 농가구당 경지 경영규모는 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수의 감소속도가 더 빠르고 대규모 경영농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 1.36ha를 기록하였음.

농가구당 경지면적의 변화



3.3. 영농형태별 농가수

○ 1995년 이후 논벼와 일반 밭작물(고구마, 감자, 콩, 팥 등)을 재배하는 농가의 수가 증가하였음. 이들 품목은 1990~95년 사이에는 감소추세를 보였던 것들임.

- 논벼 위주 농가 비중 : ('90) 69.7% → ('95) 54.9%
  → ('00) 57.3%
- 일반 밭작물 위주 농가 비중 : ('90) 6.5% → ('95) 4.7%
  → ('00) 7.3%

○ 축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수는 1995년 이후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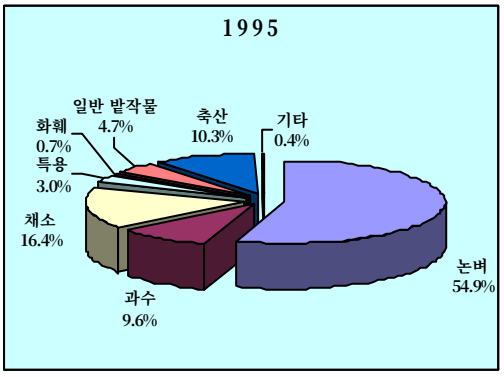
- 2000년에 축산농가는 전체농가의 5.1%로 1995년의 10.4%에서 크게 감소하여 1990년 수준(5.0%)으로 회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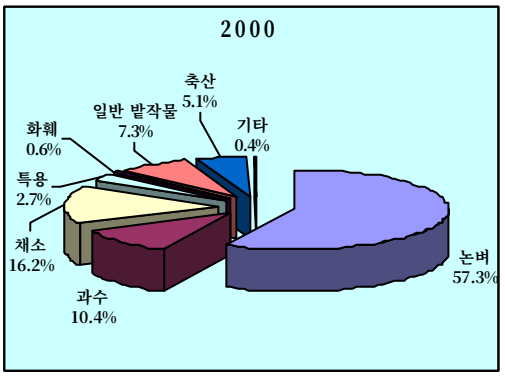
-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경쟁력 제고사업(규모화, 전문화)과 O-157, 광우병,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가축질병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에 따른 육류소비 감소,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와 같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임.

영농형태별 농가수

단위 : 천가구, %

	총농가	영농형태별							
		논벼	과수	채소	특용	화훼	일반 밭작물	축산	기타
1990	1,767 (100.0)	1,232 (69.7)	107 (6.1)	172 (9.8)	39 (2.2)	6 (0.4)	114 (6.5)	89 (5.0)	8 (0.4)
1995	1,501 (100.0)	823 (54.9)	144 (9.6)	247 (16.4)	46 (3.0)	10 (0.7)	70 (4.7)	156 (10.3)	5 (0.4)
2000	1,384 (100.0)	794 (57.3)	143 (10.4)	225 (16.2)	37 (2.7)	8 (0.6)	102 (7.3)	71 (5.1)	5 (0.4)





○ 나머지 작물의 경우 1990~95년 사이에 농가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 이후로 과수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채

소, 특용작물, 화훼류는 1995년 이후 총 농가 가운데의 비중이 감소하였음.

- 과수농가의 비율은 그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1995년 9.6%에서 10.4%로 늘었음.

- 그러나 WTO 체제 출범이후 수입개방에 따른 가격등락, 에너지와 같은 투입재 가격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음.

간지
부록
2001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

2001년 3/4분기 농업관련 주요 보도 동향[1)]

I. 개요

○ 2분기 들어 쌀 소비둔화에 따른 각 지역 RPC들의 경영난이 집중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3분기에 들어서면서 쌀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와 각지역 농협들의 수매기피 움직임 등이 집중적으로 취급됐으며, 이에 정부가 8월29일과 9월4일, 9월25일 잇따라 발표한 '쌀대책'에 대해 언론들은 정부의 쌀대책이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고, 농민들은 9월들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위를 벌이는 등 쌀문제가 핵심 이슈로 취급됐음.

○ 9월25일부터 산물벼 수매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농협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시가 매입을 결정하자 농민들이 이에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수매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 언론들은 잘못된 정부의 쌀 대책으로 농민과 농협이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었다는 논지로 보도 하면서 11월 본격 수매를 앞두고 '추곡수매 대란'까지 우려된다고 전망함.

○ 쌀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함께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경기지역에서 '인삼쌀', '냉각쌀' 등 친환경 기능성 쌀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 등 타시도에서도 브랜드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함.

---

1) 이 자료는 농정분석실 김동원 전문연구원이 각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의 농업관련 이슈를 선정, 보도동향을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지방일간지 농업관련 보도 동향」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 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e-mail: dongweon@krei.re.kr로 연락바람.

○ 9월 들어 쌀값 하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9월하순에는 농협들이 정부 약정수매가 보다 낮은 시가로 산물벼 수매에 나서자 농민들이 영농의욕을 상실, 농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논 매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거래는 없는 상태에서 김제지역에서는 1필지당 가격이 올봄보다 5백만원이나 하락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농지투매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와 진주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획일적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농림부가 갖고 있는 지정과 해제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농업정책자금이 신청절차도 복합한데다 대출 이율도 5~6% 선으로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보도도 다수 취급됐음.

○ 쌀문제와 함께 지역언론에 비중있게 취급된 기사는 한우와 돼지가격 동향이었는데, 5월 이후 돼지값 강세에 따른 입식증가로 하반기 가격파동 우려에 대한 여론은 3분기들어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입식도 자제되는 분위기로 전환되면서 줄었으나, 한우가격은 이상 강세를 지속해 9월하순 대부분지역에서 암소 5kg 마리당 4백만원을 돌파했고, 암송아지도 2백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집중 취급됐음. 이와관련, 소 사육기반 안정화 대책 필요성이 집중 제기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한우산업 중장기 육성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음.

○ 전남과 충남지역에서는 가을 가뭄으로 무와 배추의 생육이 저하돼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7월하순 전남·북지역과 경북, 충북지역에서는 밭작물에 역병이 발생해 수확기 수박과 고추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도됐음. 또 전남과 제주지역에서는 내년산 채소류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대파 등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돼 적정재배를 위한 지도에 나섰다는 보도가 다수 취급됨.

○ 9월 중순 과일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추석을 앞두고 9월 하순부터 사과 등 과일값이 강세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있었음. 하지만 배 가격은 약세를 면치못해 예년보다 20% 정도 하락하면서 사과값에 못미쳐 배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음.

○ 이와 함께, 농촌복지 분야는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진통이 계속돼 강원지역에서는 1백29개 통폐합 대상학교 학부모를 상대로 찬반의향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불과 4~5곳에 그치는 등 여전히 반대 여론이 높아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경남도와 북제주군 등에서 시범 운영결과 농촌지역은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각지역 의회가 이제도 시행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반대 여론이 높다고 보도함.

2. 주요 이슈

○ 쌀 판매 부진으로 RPC 경영난 심화

–강원지역 10개농협의 쌀 재고량이 지난해 보다 10% 증가한 것을 비롯해 보은지역 농협들도 재고량이 수매량의 36%에 달하면서 가공된 쌀을 원가 이하로 판매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보도. 또 전남지역 RPC도 단경기 쌀값은 변동이 없고 재고량은 증가하면서 올해는 28개 민간 RPC가 보관창고 유지비도 건지지 못해 도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 한편, 각 RPC들은 이상태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올 추곡수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쌀 재고 해소대책 부심

–충북 청원지역을 비롯한 각지역 RPC들이 쌀 재고 누적으로 경영난이 심

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이같은 쌀 재고 문제 해결을 위해 RPC마다 1개의 브랜드 개발과 1개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111운동'을 전개키로 하는 한편, 지자체·농민단체 등과 연계한 '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도정기술과 포장개선, 품종개량 등을 통한 종합적인 쌀 소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

○ 쌀산업 우려 목소리 높아

-올들어 쌀 재고 누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던 지역언론들은 8월17일 농경연이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로 갈 경우 쌀 값이 현재의 2/3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8월21일 농협 조합장들이 수확기 쌀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자 일제히 쌀 문제를 주요 기사로 취급. 특히, 언론들은 올 추수이후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가마당 2만원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중앙대 산업경영연구소의 발표가 있자 충남지역에서 농가소득이 무려 1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쌀 산업의 위기감을 강조.

-각 지역 농협에서는 재고 누적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올해산 산물벼 수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했고, 지역 교수들도 시장 초과물량 해외 원조용 활용 등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쌀농업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 정부 '쌀 증산정책 포기' 농민들 반발

-정부가 최근 쌀 재고 누적과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8월29일과 9월4일 연이어 발표한 쌀 대책에 대해, 농민들과 언론들은 이러한 대책이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한편, 특히 9월4일 발표한 'WTO 쌀재협상에 대비한 쌀산업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약정수매를 폐지하는 등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업농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

–전남북과 충청지역 등 대부분 지역의 신문들은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와 관련해 기획특집과 사설을 게재, 정부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쌀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쌀은 우리 국민의 특수한 정서가 담긴 산업이라는 점을 중시해 소비 촉진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 이와 함께 일부지역에서는 이같은 쌀 정책의 방향전환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득보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

○ 농민, 쌀값 안정대책 촉구 시위

–9월들어 논산지역 농민회가 수확을 앞둔 논 8백여평을 갈아엎으며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전남·북 경남지역 농민회 소속 농민들도 쌀값 안정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고, 정부가 청주에서 갖기로 했던 '쌀 산업대책 설명회'가 농가 반대를 의식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기피로 장소를 구하지 못해 연기된 가운데, 각지역 일선 시의회와 농협들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소비촉진운동 전개 등 추수기 가격 안정대책 마련에 부심.

–경북 등 일부지역에서는 올해산 조생종 벼를 정부 약정수매가 보다 낮은 40kg 가마당 5만원선에 수매를 시작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했고, 충북지역 RPC들은 사전에 고시한 양질미만 수매할 것으로 보여 다수확 품종 재배 농가들의 반발도 예상.

–각 지역 언론들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쌀 대책이 올해산 쌀값 하락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작목전환 유도 등의 근본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닥칠 올해산 쌀 가격 하락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논조의 사설을 실었고, 일부 신문은 정부의 쌀 정책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분노도 이해하지만 정부의 쌀 정책 전환의 시대적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농민들도 적정선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농협 쌀 저가수매에 농민들 반발

-정부가 9월25일 쌀 2백만섬을 추가로 수매하겠다는 '쌀대책'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는 시가 수매를 통한 쌀 추가 매입은 쌀값을 보장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예년수준의 수매가를 요구하며 곳곳에서 시위를 계속했고, 언론들도 잇따라 발표된 쌀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원칙이 있는 수매정책이 절실하다고 주문.

-9월25일 각지역에서 산물벼 수매가 시작된 가운데 농협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체 수매분의 수매량을 제한하고 시가로 매입하자 농민들이 생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반발,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보도.

○ 농지 투매 조짐

-쌀값 하락과 정부의 증산정책포기 발표 이후 영농의욕이 상실되면서 충남 예산 소재 농촌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논매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김제지역에서는 매물은 많아도 매입은 없어 1필지당 가격이 올봄보다 5백만원이나 하락했다고 대전일보와 전북도민일보가 각각 1면 톱으로 보도.

○ 농업진흥지역 탄력운용 필요 지적

-최근 제주지역에서 획일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관광 등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에서도 전체농경지의 절반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어 도·농 복합도시 개발 등에 차질을 빚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현재 농림부가 갖고 있는 지정·해제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도.

○ 기능성 쌀 인기, 재배 확산

-쌀 재고 누적과 가격하락에 따른 '쌀산업 위기'와 관련한 기사가 각 신문에서 집중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는 '인삼쌀', '녹각쌀', '금쌀' 등 기능성 쌀이 인기를 끌면서 재배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북과 경북 등 타 지역에서도 친환경 기능성 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쌀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도.

○ 항구적인 물관리 대책나서

-충남도는 4백39억원을 투입, 상습 가뭄지역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해 6천3백22ha의 농경지를 수리안전답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는 영산강 주변 1만6천730여ha의 용수개발을 연내 착공해 2007년까지 완료키로 했으며, 간척지 배수개선사업도 실시해 상습 침수피해도 예방키로 했다고 발표.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시작한 금강농업 개발사업이 지원예산 부족으로 착공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률은 4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농산물 전자경매제 지지부진

-인천과 부산지역 일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농산물전자경매제가 도입됐으나 도매법인들이 손을 이용한 수지식보다 느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보도.

○ 농업정책자금 이용 저조

-농업경영활성화 자금과 유통활성화 자금 등 농업관련 정책자금 이율이 5%선으로 최근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신청절차도 복잡해 전남지역에서는 올 6백70억원 집행 예정으로 있으나 7월말 현재 1백35억원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지역에서도 산촌 소득개발사업 융자금 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등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대출이율을 2~3%

로 낮추는 등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농민들 불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시 농가에 수수료와 심사출장비까지 부담토록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이 육성 취지와는 상반되는 조치라며 반발. 농민들은 또 토양 잔류농약 성분검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고 검사 가능한 곳도 한정돼 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육성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

○ 한우산업 안정세

–올들어 광우병과 구제역, 생우수입에 이르기까지 한우산업에 악재가 겹치면서 농가의 사육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나, 정부의 한우산업안정정책이 주효해 하반기 들어 가격 상승 등 호조를 보이면서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사육두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우산업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도.

○ 한우값 대부분 지역서 4백만원 돌파

–9월 중순 경기 파주지역에서 5백kg 암소가 4백16만원 선에 거래된 것을 비롯해 강원도 홍천지역에서도 4백10만원선에 거래돼 9개월만에 무려 1백1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암송아지 가격도 대부분 2백만원 돌파해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 반면, 상승세에 있던 돼지값은 소비 감소와 과잉 출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 소 사육기반 안정화 대책 필요

–충북지역에서 암소 5백kg 마리당 4백만원을 돌파하고 암송아지 가격도 작년보다 64%나 오르는 등 최근 소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한우 가격이 이처럼 이상강세를 계속할 경우 수입량이 증가해 결국 가격 폭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포항에서는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언론은 송아지 입식대신

새끼번식 등 일관사육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등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

○ 지자체, 한우산업 육성 박차

-경기도가 2005년까지 고급육생산단지 10개소를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고, 울산광역시도 2010년까지 4백23억원을 투입해 29개 한우관련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경북도에서는 한우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2010년까지 7천6백58억원을 투입해 한우표준모델 개발과 고유브랜드 개발 등 한우산업육성 대책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한우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언론들 보도.

○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승계 안돼 농가 피해

-전남과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송아지를 판매할 때 가입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매매 당해연도에는 가입도할 수 없는 제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만 재가입에 따른 추가 비용이 매달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 한우·수입 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 '우려'

-9월10일부터 한우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되면서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우려감이 팽배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92개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일반정육점으로 변경돼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돼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반면, 경남지역에서는 설문조사결과 정육점의 83%가 '계속 한우만 취급하겠다'고 응답해 한우와 수입쇠고기 동시판매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마늘 생산 줄고 양파는 늘어

-최근 마늘가격은 상승세를, 양파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마늘 주산지인 전남과 경북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 23.7%,

17.4% 감소한 반면, 양파는 이지역에서 생산량이 각 25.4%, 2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양파 가격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고 보도.

○ 고추 역병 피해

-전국적으로 고추 주산지에서 역병과 탄저병이 번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이번 역병으로 1천5백ha가 피해를 입어 농가소득이 3백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고, 경북과 충북지역에서도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대해 해당 농민들은 원예작물도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

○ 채소류 적정재배 유지 절실

-전남과 제주지역에서 채소류 재배의향면적이 조사결과,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가격파동을 겪었던 양파와 무·배추 등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지역에서는 양파와 쪽파, 양배추 등은 10%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대파는 13%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과잉생산이 우려된다고 보도.

○ 사과값 강세, 배값 약세

-예산과 청송지역에서 사과 생산량이 줄면서 출하가격이 강세를 보여 상품 15kg 상자당 6만원에서 8만원까지 거래돼 지난해보다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배값은 지난해 보다 20% 정도 하락한 약세를 보이면서 사과값에 못미치는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

○ 읍·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재고 촉구

-행자부가 읍·면 동사무소의 기능 일부를 시·군에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하자 농촌주민들이 원정 민원에따른 불편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는 시범운영 결과 농촌지역은 역기능이 많았다고 발표했고, 북제주군의회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저하 등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하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진통이 예상된다고 보도.

○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통

–강원도교육청은 학생수 1백명 이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지역의 특성을 감안, 30명 이하 1백29개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이 이에 찬성하는 곳은 불과 4~5곳에 그치는 등 반발에 부딪혀 진통이 따르고 있다고 보도.

3. 지역별 농업 관련 보도 내용

3.1. 경기도

○ 쌀 재고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고품질 경기미조차 38개 RPC 창고에 4만여톤이나 쌓여있고, 9월말까지도 1만여톤은 판매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와 농협은 공동으로 기업체에 경기쌀 소비촉진 당부서한을 발송. 한편, 9월말까지 RPC 재고량은 1백58만톤 추정되고 가격도 지난해 수매가를 밑도는 5만2천원까지 떨어져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 쌀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인삼쌀', '냉각쌀', '금쌀' 등 맛좋은 건강미 속속 출시되고 있으며, 평택지역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추청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6배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경기도는 내년 추청벼 재배면적을 5만ha로 확대해 경작비율을 41%로 늘리는 등 고품질미 생산 장려책 마련.

○ 평택지역에서는 상수원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 농약·화학비료 사용 자제토록 하는 대신 줄어든 만큼의 소득 보전하고 있으나 각종 검사절차가 까다롭고 보조금은 적어 올해는 신청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인상과 가격보장, 판로개척 등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 경기도는 사이버농장에 대규모 전자상거래 개념을 도입한 e-Biz모델을 개발, 7월 중순 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3천여 농가가 생산한 9백69개 품목의 전자상거래를 대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경기미의 연간 생산량이 58만2천톤으로 수도권 주민의 3개월분에 불과하지만 연중 대량 유통되는 것으로 미뤄 20~40%는 가짜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고 이같은 이유로 이미지 저하는 물론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6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

○ 농산물 전자경매제가 수지식보다 느리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천구월시장 4개법인중 전자경매로 거래하는 곳은 1곳에 그치고 있어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 농산물 직거래 시장에 도매시장 가격보다 높은 값에 판매하려는 생산자들이 몰려 올 상반기 6개 농산물직거래장터 판매실적이 5천8백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6.3%나 증가.

○ 경기지역의 상반기 농가공품 판매실적이 1백72억7천여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는 농산물 가공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장시설과 자동화 기계 장비 등 시설 개·보수시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저리융자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

○ 경기지역 방위산업체 4천2백여곳에 산업기능 요원이 2만2천3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농업관련 산업기능요원은 이중 0.7%인 1백7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 후계농업인 확대와 RPC 등 농산물 생산시설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

○ 경기지역에서 오리농법과 키토산농법 등 각종 고품질 친환경쌀이 일반쌀보다 20~30%까지 가격이 높아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1천5

백여ha에 달하고, 게르마늄·태평농법 등 재배법도 다양화 추세라고 보도.

○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때 신청수수료 3만원과 심사출장비 3~4만원까지 농가에 부담토록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정책이 배치된다며 반발.

○ 농업구조가 벼농사 중심에서 축산, 화훼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나 농업용 전기요금 특례기준은 벼농사 위주로 존속되고 있어 축산·원예용 전기요금이 벼 재배용보다 기본요금에서 3배나 비싸 경기지역 농민들이 재조정해야 한다고 요구.

○ 일선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택지개발 등으로 남양주에서 3년새 산림면적이 2백37ha나 줄어든 것을 비롯해 매년 전체 산림면적의 1%씩 줄어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량의 산림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산림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배 당도기준을 11도에서 12도로 높이고 한 상자당 갯수도 30개에서 25개로 조정하는 등 배 품질인증을 강화하자 농민들이 최고 7억원짜리 당도측정기를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며 "기존 인증서도 반납하겠다"고 반발.

○ 경기도는 2005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안성 '맞춤한우', 양평 '개군한우' 등 고급육 생산단지 10개소 지정 등을 포함한 육성계획을 발표, 이 계획이 시행되면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으로 매년 우량 송아지 3백60마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

○ 경기도의 축산물 브랜드 수가 5백59개로 전국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동브랜드 개발은 4.2%인 22개에 그쳐 9개도중 7위로 집계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시에서 매각하려하자 노조측은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했으나, 현재 경영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민영화 계획은 즉각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해 난항 예상.

3.2. 강원도

○ 강원지역 10개농협 재고량이 조곡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재고량이 줄지 않을 경우 수매량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RPC 재고량 4천7백여톤을 비롯해 전체 쌀재고량이 6천여톤에 달해 올 추곡수매 파동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언론·농협 중심으로 기관·단체·출향인들 대상 '20kg 3부대 갖기 운동'을 전개.

○ 강원지역 농협들이 산물벼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5천원 낮은 40kg당 5만2천원선으로 책정해 농가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올해 벼 생산량은 29만3천톤으로 정부·농협 수매분을 제외해도 14만여톤이 남아돌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 횡성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농기계·방앗간 등 농업기본시설이 보상 대상서 제외됐고, 농가단위별 경작지도 실제 피해면적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 30% 이상일때만 재해보상 대상으로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상향조정을 요구.

○ 정부의 민영화 요구로 철원 농특산물유통공사를 정부의 민영화 요구로 연말까지 정리키로해 개장 3년 만에 기능을 상실하면서 철원군 및 농·축협 등 출자기관이 수억원의 손실을 보게돼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 여론.

○ 주택 및 도로개설 등으로 농지전용이 늘면서 춘천지역에서는 최근 7년새 농경지가 4백63만평이나 줄었고, 올들어서도 2백여건에 6만여평이 전용 허

가된 것으로 나타나 농지보전 대책 시급.

○ 농관원강원지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김장 배추의 가격이 낮아 올 김장용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보다 55ha 줄어든 1천2백28ha로 나타났고, 김장용 무는 지난해와 비슷한 7백82ha로 집계.

○ 횡성과 홍천지역에서는 9월 하순 5백kg 암소가격이 4백10만원선에 거래됐고, 암송아지가격도 2백만원을 훌쩍 넘는 등 강세를 지속하면서 농가는 소값 상승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언제 폭락세로 돌아설지 예측할 수 없어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지역 특성을 감안해 30명 이하 1백29개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통폐합 추진 불구, 학부모들 과반수 이상 찬성은 4~5곳에 그치는 등 반발에 부딪혀 난항 예상.

3.3. 충청북도

○ 충북지역 17개 RPC 쌀 재고량이 7월말 2만3천4백톤으로 1년새 53%나 증가한 가운데 생산원가도 못건지는 관리비 등으로 농협 1곳당 평균 1억6천만원씩의 적자를 기록해 두곳이 도산 위기에 있는 등 RPC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지역 농민들은 정부 수매대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 청주에서 갖기로 한 정부 '쌀 산업대책 설명회'도 농가 반대를 의식해 관련기관·단체의 기피로 연기됐고, RPC에서는 사전에 고시한 양질미만 수매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권장한 다수확 품종벼 재배농가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

○ 보은지역 농협 RPC들은 적자를 이유로 자체 수매분 수매량을 제한하고 수매가도 시중 쌀값 수준인 5만원 선으로 인하할 방침으로 있어 농민들이 지난해 수준의 수매가를 요구하며 마찰.

○ 단양지역 농민들은 농업재해보상금이 농약대와 대파비용, 경작규모에 상관없이 1ha에 5만원여원으로 책정돼 실질적인 도움이 못되고 있고, 종자값도 3백평 피해에 4만2천원선에 그쳐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

○ 충북지역에서 운영중인 4백70여곳의 영농조합 법인 대부분은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등 부실로 나타난 가운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연평균 30여개씩 설립됐으나 최근엔 한자리수로 감소하는 등 농민들 관심도 줄어.

○ 충북도가 4억1천여만원을 투입해 농약정보 등 16종 1만여건의 정보 구축과 전자상거래및 영상 영농교육 시스템도 구비하고 8월 하순 '사이버 농정시스템' 서비스를 개시.

○ 중부농축산물 물류센터가 99년9월 개장 이후 적자를 면치 못하다 할인매장 재단장·새벽시장 개설·식자재 판매 등 공격 경영으로 올 상반기에는 13억원의 매출 이익을 올리는 등 호전 기미.

○ 충북도는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백억원을 투입해 전체 임도의 절반에 가까운 3백68km의 기존 임도를 대폭 개선, 집중호우·태풍 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발표.

○ 단양지역에서는 마늘 가격이 최근 시중에서 kg당 평균 5천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나, 최저가격보장제로 보장된 가격은 1천8백50원으로 턱없이 낮아 7월 중순부터 시작한 마늘 최저가 보장제에 의한 수매 실적이 전무한 상태.

○ 진천지역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공산업 희망농가가 늘고 있으나, 주세와 부가세 등 관련세금만 1백12%에 달하고, 주류제조 면허취득을 위한 서류도 80여종에 달해 농가 사실상 참여 불가능하며 판매마져 연간 5kl로 제한돼 규제완화 시급 여론.

○ 충북도교육청이 중학생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도시지역 학생은 평균 59.8점에 비해 농촌지역 학생 평균은 46.7점으로 나타나 도농간 학력편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

3.4. 충청남도

○ 충남지역에서 7월말현재 36개 RPC 쌀 재고량이 3만9천3백톤으로 전년동기보다 8천4백톤이나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수확기 이후 쌀값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가마당 2만원이 하락해 농가소득 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7월말현재 36개 RPC 쌀 재고량이 17만8천여톤으로 저장능력의 1백57%에 육박, 추곡수매시 저장창고 대란이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전농충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쌀 증산정책 포기에 반발해 추수거부운동을 선언했으며, 충남도에서는 햅쌀구입 운동·요리개발 축제 등 소비촉진책 마련에 부심.

○ 논산농민회는 9월초순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하며 수확을 앞둔 논 8백여평을 갈아엎고,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1만5천여평을 추가로 갈아엎겠다고 천명. 또 9월20일 아산에서는 한농연소속 농민 4백여명이 쌀값 보장 투쟁 선포식 갖고 벼 50여 가마를 태우는 등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고, 농협충남지역본부는 직원들에게쌀 1포대 이상 구입, 10포대 이상 판매를 유도하는 '쌀 소비 1·10 운동'을 전개.

○ 예산지역에서는 쌀값 하락과 정부의 증산정책 포기 방침 등 영향으로 농민들의 영농의욕이 상실되면서 중개업소마다 논 매물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는 없어 가격 하락 예상.

○ 충남지역 기초단체나 영농조합, 작목반마다 경쟁적으로 농특산물에 대한 고유 브랜드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상표 등록이나 의장 등록은 소홀해 총 8백여종의 브랜드중 상표등록은 1백21건 17.7%에 그쳐 분쟁발생시 피해 우려.

○ 충남도는 4백39억원 투입해 상습 가뭄피해 13개지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03년까지 40년 이상 노후된 11개 지구의 수리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 사업 완료시 6천3백22ha가 수리안전답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

○ 예산지역에서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이 99년 67억7천여 만원에서 지난해 87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3년동안 48%나 증가해 농기계가 농가 부채의 주요인으로 분석.

○ 특화작물 육성 사업이 예산확보 지연과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 51개사업 가운데 4개사업은 대상자 선정조차 못하고 있고, 17개사업은 사업착수도 못하는 등 실적이 48%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

○ 논산배가 품질 우수성 홍보 강화 등 노력으로 99년부터 미국에 진출, 올 6백톤 1백42만 달러어치 수출을 기록한데 이어 10월 일본 오사카 식품박람회에도 출품, 추가 수출이 기대.

○ 예산지역에서 추석을 앞두고 사과 상품 15kg 상자당 출하가격 6만원 선에서 최고 8만원까지 형성돼 지난해보다 50% 정도 오른 반면, 배값은 신고 15kg 상품이 3만원선에 거래돼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쳐.

○ 학생들의 봉사점수제가 천안 농촌지역의 경우 고아원·양로원 등 봉사할 곳이 거의 없는데다 내신성적의 확보를 위해 대부분 농사일 등 집안일을 포기한 채 인근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원정 봉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농가 공동작업 등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3.5. 전라북도

○ 전북지역 쌀 재고량이 7월말 현재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0% 이상 증가한 34만2천여톤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9백92개의 양곡창고 추가 보관능력이 19만톤에 불과해 올해 정부·농협 수매분을 감안하면 5천여톤은 야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농민단체는 9월25일 정부가 '추곡 200만석 추가 시가매입'을 발표하자 시가 수매는 정부 수매가보다 훨씬 낮아 쌀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반발.

○ 전북지역농협본부는 쌀 판매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바이오세라쌀', '추생미' 등 기존 특색미에 이어 '초록매실쌀' 등 기능성쌀을 개발, 시판을 앞두고 있어 쌀 소비촉진 한몫 기대.

○ 전북지역의 전체 농산물브랜드 수가 2백25개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공동브랜드도 전국 평균 61개의 20%에 불과해 농산물 제값받기와 판로확대에 차질을 빚고 있을뿐 아니라 이름없는 브랜드 농산물은 오히려 시장에서 천대받아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도 시급하다고 지적.

○ 전북지역에서 수출 선도조합 육성 등 노력으로 올 6월까지 29개농협이 참여해 1백45만달러의 수출을 기록, 98년 53만 달러에 비해 3배정도 신장했고, 전북지역 수출농산물은 국내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가격 경쟁력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

○ 전북도가 항구적 가뭄대책 사업으로 시작한 금강개발 사업이 시행 13년째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5천2백억원의 절반에 밑도는 2천2백27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공정률이 43%에 그친 가운데 내년 예산도 대폭 삭감돼 농민들은 "치수정책 실종"에 대해 불만.

○ 전북지역 경지정리 사업이 관련예산의 매년 삭감에 따라 올 사업물량은 1천8백99ha로 농민 희망물량의 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은 용수공급 지연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전북지역 농민들은 농업관련 정책자금 이율이 평균 5% 선으로 최근 저금리 추세 계속되면서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해 산촌소득개발사업 융자금 신청자가 전무하고, 농산물 출하선도금 신청률도 저조해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2~3%대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

○ 영농조합법인 7백38개 등 전북지역에 농업법인이 1천25개에 달하나 이중 운영중단된 곳은 1백50개소에 이르고, 실적없는 법인도 79개소에 달하는 등 전체의 26%는 부실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산작업 등 지연으로 올들어 정리된 법인은 11곳에 그쳐.

○ 전북지역에서 쌀값은 떨어지고 농자재값은 오르는 등 영농환경이 악화되자 농지 투매가 늘어 지난해 1천2백평당 3천5백만원 웃돌던 매매가격이 올해는 3천1백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사겠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 추가 하락이 예상.

○ 김제지역에서 논 매물은 많아도 매입은 없어 1필지 가격이 3천만원을 밑돌아 올 봄보다 5백만원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민들 대출 담보력도 떨어져 영농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 전북지역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체 거래량 가운데 전자경매는 7%대에 그쳐 전국평균 27%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원인은 법인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출하농산물도 비규격품이 많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

○ 전북농협지역본부가 농업경영자금 1백34억원 확보에도 불구하고 농민 신청액은 2백37억원으로 신청인 절반이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대출절차도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분리해 배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농민들 "적기에 못쓴다' 불만.

○ 농업기반공사 조사결과, 정읍지역 전체 논 1만8천ha중 38.7%인 3백98개 지구 6천8백34ha가 한해 상습지구로 판명된 가운데 2004년까지 5천56ha를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 등 항구적 가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고 발표.

○ 전북도는 중국 강소성과 94년 자매결연 이후 농업시찰단 교환, 인적 교류 및 농업학교 교류 등 4개항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과 원예, 가축, 임업 등 다방면에서 품종교환도 활발히 논의돼 실질적인 교류 기대.

○ 9만3천3백여ha에 달하는 전북지역 농경지의 농업용수 유지관리비가 3백18억원에 달하나 국고 보조금은 1백63억원에 불과해 농기공전북지사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 매각이나 사업수익금 등 자체자금을 투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보도.

○ 지난해 전북지역 축산, 임업, 원예용 농기계 중국 수출액이 15만3천달러로 전년보다 3백27%나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3만8천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백18% 늘어난 것으로 집계.

○ 7월말 고창지역에서는 고추와 수박에 역병과 탄저병 등이 번져 수박의 경

우 전체 재배면적의 절반이 넘는 6백29ha가 피해를 입었고, 정읍지역에서도 이어짓기 했거나 물빠짐 나쁜곳의 피해가 커 전체 고추 수확량의 50%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

○ 전북지역에서 배추 한포기 산지가격이 3백50원에 그친것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선 1천8백원에 거래되고 있어 농민들이 "중간상만 배불린다"고 주장하며 농산물 안정수급대책 마련 촉구.

○ 시설채소류와 화훼농가 등 수출유망 품목에 지원되는 시장개척 자금 상환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해당 농민들이 상환기간을 2~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

○ 장수지역에서는 무·배추가 전체 채소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등 밭작물 대부분이 일반채소 재배에 집중돼 있어 매년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

○ 9월10일 쇠고기 구분판매제가 폐지되면서 전북지역 92개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일반정육점으로 변경돼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 높아 소비자 피해 우려.

○ 전북도는 2010년까지 3천4백50억원을 투자해 소규모 번식농가 조직화,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한우개량, 컨설팅 등 4개분야 13개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하는 등 한우산업 종합발전대책을 발표.

○ 전북의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시설 노후 등으로 상당수가 적정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시급.

○ 전북지역에는 지난해 1백74명의 농가도우미가 배정됐으나 수혜인원은 절반정도인 8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1백74명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74명에 불과해 수혜기간·지원폭 현실화 등 활성화 대책 필요.

○ 전북도가 관광농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개 지정 농원중 5곳이 사업자 부도 등의 이유로 경매절차 진행중이고, 2곳은 적자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정 취소 등 정비작업 필요.

○ 전북의 농촌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면서 도시 친인척 주소지로 옮겨 전·입학하는 농촌학생들이 증가, 전주에만 위장전입학생이 1만5천여명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농촌교육 여건 개선 등 근본대책 절실.

○ 전북도가 올해 2백32억원 투입해 14개 시군 1천1백60세대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21억8천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3.6. 전라남도

○ 단경기 쌀값 변동이 없고 재고량은 증가해 지난해 평균 1억원씩 적자 기록했던 전남지역 RPC들이 올해는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28곳은 보관창고 유지비도 건지지 못해 도산 위기.

○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미곡종합처리장마다 1개 고유브랜드 개발·1개 품질인증 쌀을 획득하기 위한 '111운동'을 전개하고, 지자체·농민단체·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쌀대책 협의회'도 구성키로하는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쌀 소비량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는 오리·우렁이·활성탄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이 급속히 확산돼 재배면적은 7월 현재 8백24개농가 5백70여ha 달하고 품질인증마크를 신청한 벼 재배면적도 1천여ha 달하는 것으로 집계.

○ 농지구입 자금 지원의 경우 농촌지역은 평당 5~7만원, 도·농복합지역은 평당 2만7천원 지원 등 농지구입 자금이 농기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지역 농민들에게 오히려 적게 책정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원기준의 법개정을 통해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

○ 농업경영활성화 자금·유통활성화 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이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늑장 지원에 대출이율도 5~6%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남지역 농가가 외면, 올 6백70억원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월말 현재 1백35억원 집행에 그쳐.

○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 따르면, 최근 극심한 가뭄과 연이은 장마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기반공사 출범이후 유지관리비로 사용해 오던 조합비가 폐지된데다 국고지원 마져 줄어 효율적인 물관리가 저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었고, 9만4천ha의 연간 유지비도 3백19억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백57억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전남지역에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가 9백38명에 이르고 있고, 농지면적도 2백19만8천㎡에 달하는 가운데 농지 처분명령 불이행도 1백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제기.

○ 전남도는 산림면적이 전체면적의 50%인 69만9천ha에 달하나 관련 예산은 전체예산의 3%대인 7백억원에 불과해 임업정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업직불제 도입, 체계적 임도 설치, 산림 휴양 등 공익기능 증대를 포함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 전남지역 농가의 66%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농가의 60%가 1ha 이하의 소규모 경작농으로 나타났고, 농가 인구 가운데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이 54%를 차지해 노동력 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농업구조개선, 농업기계화·규모화를 서둘러야할 것으로 지적.

○ 전남지역의 올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이 2천5백44ha로 타도시에 크게 뒤지고, 관련 소요예산 21억5천여만원중 8월말 현재 집행된 예산은 10% 수준인 2억3천여만원에 그쳐 친환경농업 육성이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

○ 전남지역에서 친환경쌀 재배면적이 1천8백49농가 1천1백49ha로 생산량은 5천7백40여톤에 달해 지난해 대비 20%나 증가했으나, 관리 미흡과 판로확보가 어려워 활성화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사전 계약재배 확대 등 대책 필요.

○ 농기공전남지사는 상습 가뭄·침수 피해를 원천 차단키 위해 영산강 1만6천7백30여ha 용수개발을 연내에 착공해 2007년 완료키로 함으로써 가뭄피해 해소와 상습 침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90년 이후 초지조성에 대한 자금지원이 줄면서 지난해 말 기준 전남지역 초지면적은 2천9백76ha로 매년 5%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육질·번식률·면역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

○ 전남지역의 영농규모화 사업비 신청액이 5백93억4천여만원으로 당초 계획 예산 보다 117%를 초과했고, 직접지불제 보조금사업도 확보 예산의 158%를 초과해 추가로 예산을 학보하지 못하면 사업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전남지역의 농산물 브랜드가 곡류 2백56개 등 총 4백28개에 달하나 상표

등록 1백3건, 의장등록 16건 등 1백19건만 등록됐고, 3백20건은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명도 행정지명·품종 등을 이용한 것이 대다수여서 브랜드로서의 유용성에 의문 제기.

○ 중국산 수입 영향으로 전남지역 마늘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3.7% 감소한 1만5천8백69ha에 그친 반면, 양파는 재배면적이 15.9% 늘어난 9천3백53ha에 생산량은 25.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전남지역 마늘·양파 재배농가들이 불안정한 가격으로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보리로 작목을 전환하면서 올 보리 생산량은 6만7천톤으로 지난해보다 93%나 증가했고, 재고량도 4만여톤에 달해 생산량 조절과 주정용 확대 등 소비대책 시급.

○ 전남지역에서 내년산 마늘재배 면적이 올해보다 15.5% 줄것으로 예측된 반면, 양파와 무, 배추는 가격파동을 겪었던 올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면적을 최소 10~20%이상 줄이는데 부심.

○ 올 초부터 광우병, 구제역, 생우수입 등 악재가 겹쳐 한우사육 농가가 위축됐으나 지속적인 한우산업안정시책과 가격 상승으로 농가가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사육두수가 3월말 20만8천두에서 6월말 21만8천두로 증가하고 있고, 가임암소도 크게 증가.

○ 전남도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골자로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반응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불편을 호소했고, 74%는 "이용 안한다"고 응답해 시행유보와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전남지역 농민들은, 금융기관 등이 고령사회인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농업인 정년을 일반인과 같이 60세로 적용해 각종 재해·사고시 보상을 제

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선진국 추세에 맞춰 65세 이상으로 농업인 정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 고조.

3.7. 경상북도

○ 경북지역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5천톤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8월20일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이 전년보다 3만톤 많은 19만톤에 달해 하반기 양곡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2000년산 정부 벼 공매율도 35.2%로 지난해 절반 수준 그쳤고, 청송지역에서는 쌀값이 80kg 한가마에 1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만원 하락.

○ 농민단체가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 철회를 촉구하고 산물수매 물량 전량 포대수매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9월 하순 농협 RPC들은 조생종 벼 40kg 가마당 정부 약정 수매가인 6만4백40원보다 훨씬 낮은 5만원에 수매를 시작, 농민들이 반발했고, 청도지역에서는 쌀 재고 넘치고 정부대책 불투명해 쌀농사 포기가 속출하면서미나리 등 시설재배 전환 농가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

○ 경북도는 현재 1.2%에 불과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10년 후 10%대로 끌어 올리기로 하고 친환경 과실·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6천6백70억원 등 총 1조5천억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종합발전 10개년 계획 발표.

○ 영양지역에서는 임업후계자 선정조건을 50세미만, 5ha이상 산림소유자 등 비현실적인 기준 적용에 지원까지 없고 후계자 육성이 소득사업에 연계되지 못해 산림이 군 전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업후계자는 5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

○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병역복무 대신 농업에 종사토록 하는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제'가 관리 부실로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일반 직장에 근무한 4명을 적발함에 따라 병무청서 4백명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조사에 착수.

○ 올해 벤처농업인으로 선정돼 경북도의 지원을 받은 농업인 15명이 「벤처농업 포럼」결성을 추진,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30억원씩 투자해 올해의 두배인 30개 벤처농업을 육성키로 하는 등 벤처농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칠곡·성주지역 농민들은 경운기 2만2천여대 등 농기계 5만여대가 남아돌고 있으나 중고품 취급소가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새농기계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자원낭비와 농가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법정 부품공급 기한연장 등 농기계 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 경북도는 중국농업 파악을 위해 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현지출장 등 통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력 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농업기술원 등 농업관련기관들도 현지 작황·유통 분석 등 중국농업 현황 파악에 총력.

○ 경북지역에서는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조합 정관에 의해 자율 실시돼 각종 탈·불법을 부추겨 조합원간, 지역간 갈등 초래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가 '공명' 감시에 나서는 한편, 선거규정 개정 등 대책을 촉구.

○ 청도지역 농민들은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액이 적고 최근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년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 일반대출 금리와 차이가 없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소 3~4%대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

○ 안동과 청송지역에서는 사과 생산량이 크게 줄어 홍월 15kg 상자당 6만원선까지 거래돼 작년보다 40%나 오른 반면, 배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하

락.

○ 경북도는 산지 한우값 폭등이 수입량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번식과 비육을 겸한 일관사육을 적극 권장하고, 최근 돼지값이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입식자제 촉구와 비인기부위 소비촉진도 유도키로 하는 등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마련.

○ 성주·고령지역 축산농가들은 축산폐수 시설 면허를 2종으로 분류해 5종으로 분류된 공장이나 세차장보다 높은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

○ 초등학교 학급수를 대폭 늘리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따라 농촌지역 초등학교교사들이 대도시 학교 전직을 희망해 수십명씩 사표를 제출,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 학교 교사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

○ 경북 동·북부지역 7개 농촌 군단위에 병원 10곳, 의원7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반 내·외과를 선호해 소아과 안과는 한 곳도 없어 농촌주민들 원정 진료로 경제적 부담 크다고 원성.

3.8. 경상남도

○ 경남지역의 6월말 현재 쌀 재고량은 정부양곡 21만2백톤, 15개 농협RPC 2만1천8백여톤으로 작년 같은기간 비해 각 2만1천톤, 9천6백20톤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민간RPC는 재고처리를 위한 출혈 판매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

○ '메뚜기쌀', '미소만', '촉석루쌀' 등 경남지역에서 25종의 브랜드쌀이 개발됐으나 8월말 기준 소비자 가격은 20kg 당 4만3천원에서 4만7천원대에 거래

돼 김포 '골드라이스' 등 타지역 브랜드쌀 가격의 절반에 그치는 등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농민들은 지자체의 홍보 등 지원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

○ 진주지역 전체 농경지의 절반 이상인 7천8백여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도·농 복합도시화로 인한 지역균형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의 획일적인 지정으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해제권을 농림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 제기.

○ 농촌경제 침체와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경남지역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앙기,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 구입이 총 1만3백69대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6천19대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

○ 경남지역농협본부가 21개 농산물 가공공장중 절반이 넘는 13곳은 판매 부진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어 가동 중단상태인 3곳은 폐쇄조치하고 경영이 부실한 6곳은 중점 관리키로 하는 등 정리에 나섰다고 보도.

○ 2003년까지 농협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농자재구입 세제혜택 조세특례조항이 소멸됨에 따라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시 부과세 10% 추가 부담으로 농협 이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협 경영악화로 환원사업 등 위축이 우려돼 세제혜택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

○ 부산엄궁동시장이 6억원 들여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고 농산물 87개 품목에 대해 전자경매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낙찰시간 지연 등 문제점이 도출돼 법인들이 일부품목에 한정해 실시하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 필요.

○ 농업정책자금이 저금리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대출절차와 심사까지 까다로워 농가가 외면하면서 경남농협지역본부가 확보한 5백61억원중 대출실적은 7.3%에 불과한 41억원에 그쳐 금리인하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도.

○ 경남지역의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91년 9백73명에서 현재는 5백81명으로 40%나 감축됐고, 신규인력 충원도 안돼 30세 미만 젊은층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직 전환후 비전문성과 의욕상실로 대농민 서비스도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파악돼 일부에서는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주장도 제기.

○ 김해평야의 절대농지가 쌀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사 포기가 늘면서 평당 6만원대를 유지하던 논이 5만원에도 거래가 안돼 당분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고, 임차농도 채산성 없어 기피하는 추세라고 보도.

○ 창녕지역에서는 중국산 수입과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확초기 폭락했던 마늘가격이 최근 강세를 유지한 반면, 오름세를 보이던 양파 가격은 7월 중순 20kg 한망에 4천원까지 하락.

○ 경남지역에서는 9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 폐지에 대해 60개 정육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인 50곳은 '계속 한우만 취급하겠다'고 응답했고, 부산지역 1백50개 정육점도 방문조사 결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한우와 수입쇠고기 동시판매에 따른 피해가 크지않을 것으로 전망.

○ 가뭄 영향으로 옥수수 등 가축 조사료의 파종이 부진해 생산량은 20% 정도 감소할 전망이고, 수입량도 큰폭으로 줄것으로 예상돼 휴경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

○ 울산광역시는 2010년까지 고급육 생산단지 27곳 조성 등 한우 명품 육성

을 위한 29개사업에 4백23억원을 투입, 사육규모도 현재 2만5천1백23두에서 3만7백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

○ (주)하림이 사육-도계-가공-유통에 이르는 최첨단시스템 갖춘 국내 최대 규모 공장을 함안지역에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이지역 양계업계가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오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무산위기에 있다고 보도.

○ 함안지역 10개 읍·면 2백37개 리중 80% 이상이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 자녀들까지 '넷맹'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 경남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폐교된 농어촌학교가 4백67곳 달하고, 분교장으로 격하된 농촌지역 초·중·고까지 합치면 7백80여곳이 구조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원·마산 등 도시지역은 1백60곳이 신설돼 도-농 양극화 현상 초래.

○ 경남도는 행자부가 올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으로 있는 읍·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범 실시 결과 이용자가 적고 일부업무 시군 이관으로 원정 민원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행에 문제점 제기. 한편, 일선 시·군의회는 주민자치센터 시행 추진이 농촌지역 실정 감안 않고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며 진주 등 4곳서 조례개정안을 부결 처리해 시행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3.9. 제주도

○ 제주농협지역본부는 농업 진흥기금 확대조성과 감귤정책 개선, 감귤전용 유기질비료공장 설치, 농업 SOC사업 추진 등 일반농업·감귤·축산분야 32

개항목의 '제주농업발전방안'을 9월 중순 확정.

○ 제주감귤출하연합회가 2000년산 감귤의 유통처리과정을 분석한 결과,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 폭락으로 가구당 소득이 1천13만원에 그쳐 감산과 품질 향상 등 유통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 감귤가공공장 운영위원회에서 비상품을 제외하고 상품만 사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농가에서는 상품 감귤 최저가격이 보장돼 있어 가공용으로 출하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 논란.

○ 제주지역 전체 농경지 5만9천2백여ha중 농업진흥지역은 논1백90ha를 포함해 3천6백ha가 지정돼 있는데 관광지라는 특성 감안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해 국제자유도시 등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지정·해제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

○ 제주지역 농민들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시 토양 잔류농약 성분검사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하고 검사가 가능한 곳도 1곳에 그쳐 불편하다고 호소.

○ 농협제주지역본부가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산 재배의향 마늘은 정부 수매에 따른 처리난 해소로 9.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양파는 가격 하락과 판로난이 겹쳐 21.1%나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 북제주군은 채소류 재배의향면적 조사결과, 지난해에 비해 조생양파는 10%, 쪽파 12%, 양배추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나, 대파는 가격 강세 영향으로 13%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제주지역에서 돼지값이 6월에는 1백kg 마리당 30만원을 육박했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7월에는 23만8천원, 8월들어서는 23만1천원대의 시세를

형성해 7·8월 성수기에 오히려 가격이 약세를 보여 하반기 가격폭락에 대한 우려감 팽배.

○ 제주지역 축산농가의 보험과 공제가입 실태 조사결과, 소 가축공제 가입률은 2.6%, 우사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농가도 1천33 농가중 1농가에 그치고, 돈사도 7.8% 가입률 그쳐 재해시 보상대책이 없다고 지적.

○ 남제주는 올 1월부터 한우 9백마리를 대상으로 혈통보전을 위한 등록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등록을 마친 소는 3백70마리로 41%의 진척률을 보여 홍보강화 등 필요.

○ 북제주에서 올 농가 도우미 지원대상으로 33농가가 배정됐지만 실제 희망농가수는 49농가에 달하고 연말까지는 80농가에 이를 전망이어서 기간·일당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